



제5회 만해제

1999년도

백일장 · 사생실기대회

입상작품집

대전중구문화원 042-256-3684
제5회 만해제 입상작품집



0004267

홍성문화원



제5회 만해제

10주년 기념

탄신 120주년 기념

1999년도

백일장·사생실기대회
입 상 작 품 집

홍 성 문 화 원

발 간 사



20세기를 마감하는 올해는 제5회 만해제가 실시되며 만해 한용운 선생의 탄신 1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선생의 높은 사상과 독립정신, 그리고 문학의 세계를 재조명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미래의 훌륭한 일꾼으로 키우고자 만해제 행사를 일환으로 사생·회화·백일장 대회를 치루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보다 더 뜻 깊은 것이 이 행사가 도단 위 대회로 격상된 점입니다.

충남도내의 재능있는 청소년들이 모두 모여 만해선생의 높은 뜻을 기리며, 큰 행사를 갖고, 한마당 어우러 질 수 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꿈나무인 여러분의 작품을 한데 모아, 책으로 만들어 여러분의 가슴속에 영원한 추억으로 안겨 주고 싶습니다.

이 행사와 책이 나올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청년회의소, 예총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9. 8.

홍성문화원장 이 하 영

축 사



우리고장에서 낳으시고 독립운동가요 승려 시인이시며 우리민족의 정신적 지주이신 만해 한용운선생의 탄신 120주년과 입적 55주년을 기념하고, 선생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하기 위해 제5회 만해제의 부대행사로 그림그리기, 휘호대회 및 백일장이 성황리에 개최되어 작품집으로 발간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홍성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본 행사를 처음으로 충청남도까지 확대 실시하게 되어 600여명의 많은 인원의 참여와 함께 선생의 문학세계를 음미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만해 한용운선생의 애국애족하는 문학정신이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행사가 광복을 눈앞에 두고 입적하신 선생의 애국혼을 기리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하며

작품속에 담겨진 여러분들의 생각, 꿈, 예지는 우리모두에게 삶의 지혜와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참가하신 학생 및 문학애호인의 숨은 솜씨를 마음껏 발휘하여 입상하신 것을 축하하오며 앞으로 개최될 만해문학행사에 더욱 많은 참여와 좋은 작품이 나오길 기대하며,

이번대회를 주관하신 JC회장님 및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 8.

홍성군수 이 상 선

축 사

만해(卍海)의 얼이 그립습니다



만해제가 다섯 번째 열리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리기와 글쓰기를 통해 만해 한용운 선생의 정신을 기리도록 행사를 추진하여 주신 만해제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성지방의 뜻 있는 여러 어른들께서 이 행사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주셨던 것을 생각할 때, 수준 높은 향토의 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은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에서 태어나시어, 독립운동가, 승려요, 시인으로서 우리나라 근대사에 정신적으로 큰 봉우리가 되셨습니다. 만해 선생은 홍성인들의 자랑일 뿐 아니라 충남인들의 보람이며, 우리 나라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만해 선생의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과 문학에 대한 열정을 오늘에 되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국분단으로 진정한 광복을 이루었다고 하기 어려운 오늘의 상황에서 만해 선생의 얼은 우리 가슴 깊은 곳에 늘 남아 있어야 하는 진수(眞髓)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보여 준 문학에 대한 열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생생하게 살아 있는 정신입니다. 그분의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는 한국인의 사랑을 받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 속에서 살아 있는 만해의 숨소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기회에 만해 선생의 얼을 기리고 혼을 이어받으며, 그 분처럼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인물이 되겠다는 각오를 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에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정진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5회 만해제를 여는데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가하여 주신 학생 여러분, 지도하여 주신 선생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만해제가 해마다 더욱 발전하여 모름지기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지방축제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 8.

충청남도교육감 오 재 욱

축 사



안녕하십니까?

홍성청년회의소 회장 송창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5회 만해제에 참석하신 학생 및 지도 교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충절의 고장 홍성에서 만해 한용운 선생의 탄신 120주년을 기리고 그 뜻을 후세에게 전하고자 금번 제5회 만해제 백일장 및 사생·회화대회를 홍성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 출신이신 만해 한용운 선생은 민족대표 33인중의 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독립정신을 고취시켜 주셨고 민중계몽 및 문화계몽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분의 민족사상과 정신을 이어받아 21세기 밝은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하신 학생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지도 받은 실력을 이번 행사에 유감없이 발휘하여 마음껏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사를 준비하신 이하영 만해제 추진위원장님께 감사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999. 8.

홍성청년회의소 회장 송 창 호

제5회 만해제 사생실기대회 입상자 명단

등급	소 속	학년	성 명	비고
금상	홍 성 초 등 학 교	5학년	박 예 진	
	청양청신여자중학교	3학년	김 호 영	
	홍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신 지 혜	
은상	홍 남 초 등 학 교	1학년	김 민 정	
	홍 남 초 등 학 교	5학년	전 예 진	
	홍 성 여 자 중 학 교	2학년	류 지 은	
	홍 성 중 학 교	2학년	김 택 진	
	홍 주 고 등 학 교	3학년	김 혜 진	
	홍 성 고 등 학 교	3학년	박 상 진	
동상	홍 주 초 등 학 교	3학년	조 형 진	
	공주부속초등학교	6학년	이 관 교	
	천안미라초등학교	4학년	한 승 민	
	연 기 금 호 중 학 교	3학년	최 미 선	
	홍 성 중 학 교	3학년	김 찬 호	
	홍 성 여 자 중 학 교	2학년	안 유 진	
	공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서 정 미	
	서산지곡고등학교	3학년	성 미 예	
	홍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이 신 영	

등급	소 속	학년	성 명	비고
장려상	홍 남 초 등 학 교	5학년	안 유 지	
	홍 남 초 등 학 교	5학년	홍 소 현	
	홍 남 초 등 학 교	3학년	조 수 연	
	홍 남 초 등 학 교	3학년	이 예 진	
	홍 남 초 등 학 교	2학년	정 종 민	
	홍 남 초 등 학 교	2학년	조 서 형	
	홍 남 초 등 학 교	1학년	백 수 민	
	광 동 초 등 학 교	2학년	이 소 연	
	당진우강초등학교	6학년	강 선 규	
	홍 성 초 등 학 교	5학년	이 혜 원	
	홍 주 초 등 학 교	6학년	장 혜 민	
	홍 주 초 등 학 교	6학년	류 근 성	
	홍 성 여 자 중 학 교	1학년	박 혜 선	
	홍 성 여 자 중 학 교	1학년	박 은 숙	
	홍 성 여 자 중 학 교	1학년	김 지 나	
	홍 동 중 학 교	3학년	권 은 영	
	청양청신여자중학교	3학년	김 민 정	
	청양청신여자중학교	3학년	김 지 나	

등급	소 속	학년	성 명	비고
장려상	공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 경 화	
	홍주고등학교	1학년	마 행 복	
	홍주고등학교	2학년	이 제 욱	
	홍주고등학교	2학년	이 두 라	
	홍주고등학교	3학년	김 수 욱	
	홍성여자고등학교	1학년	최 지 영	
	홍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주 정 미	
	홍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 희 정	
	홍성고등학교	3학년	손 달 영	
	홍성고등학교	3학년	이 범 석	
	홍성고등학교	3학년	김 주 덕	
	홍성고등학교	2학년	유 재 웅	
	서산지곡고등학교	3학년	김 지 선	
	서산지곡고등학교	3학년	문 지 희	
	예산대흥고등학교	3학년	장 문 경	
	서산지곡고등학교	2학년	최 휘 숙	
	서산지곡고등학교	3학년	홍 성 애	

■ 제5회 만해제 사생실기대회 입상자 ■



금상 홍성초 5 박예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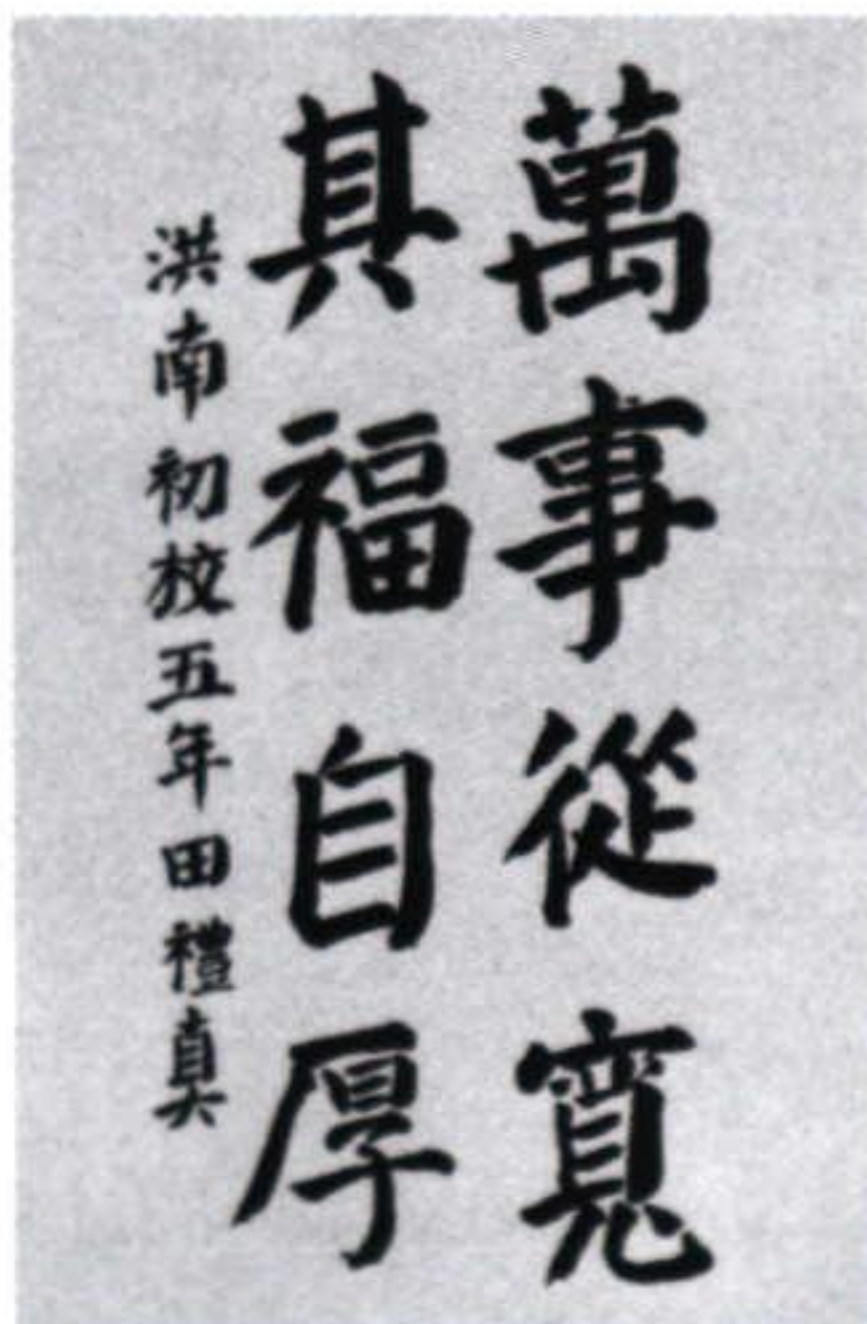
금상 청양청신여중 3 김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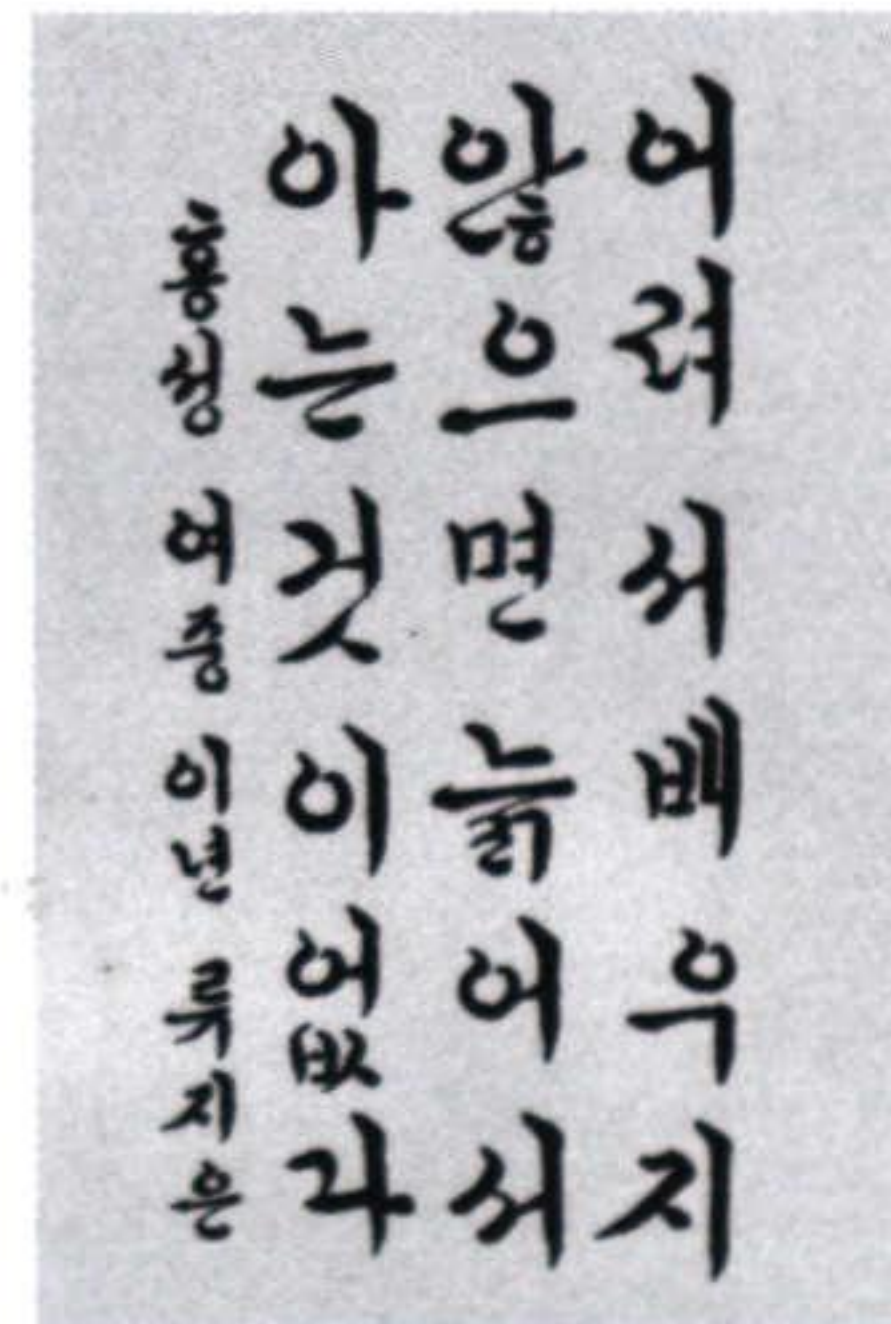
금상 홍성여고 2 신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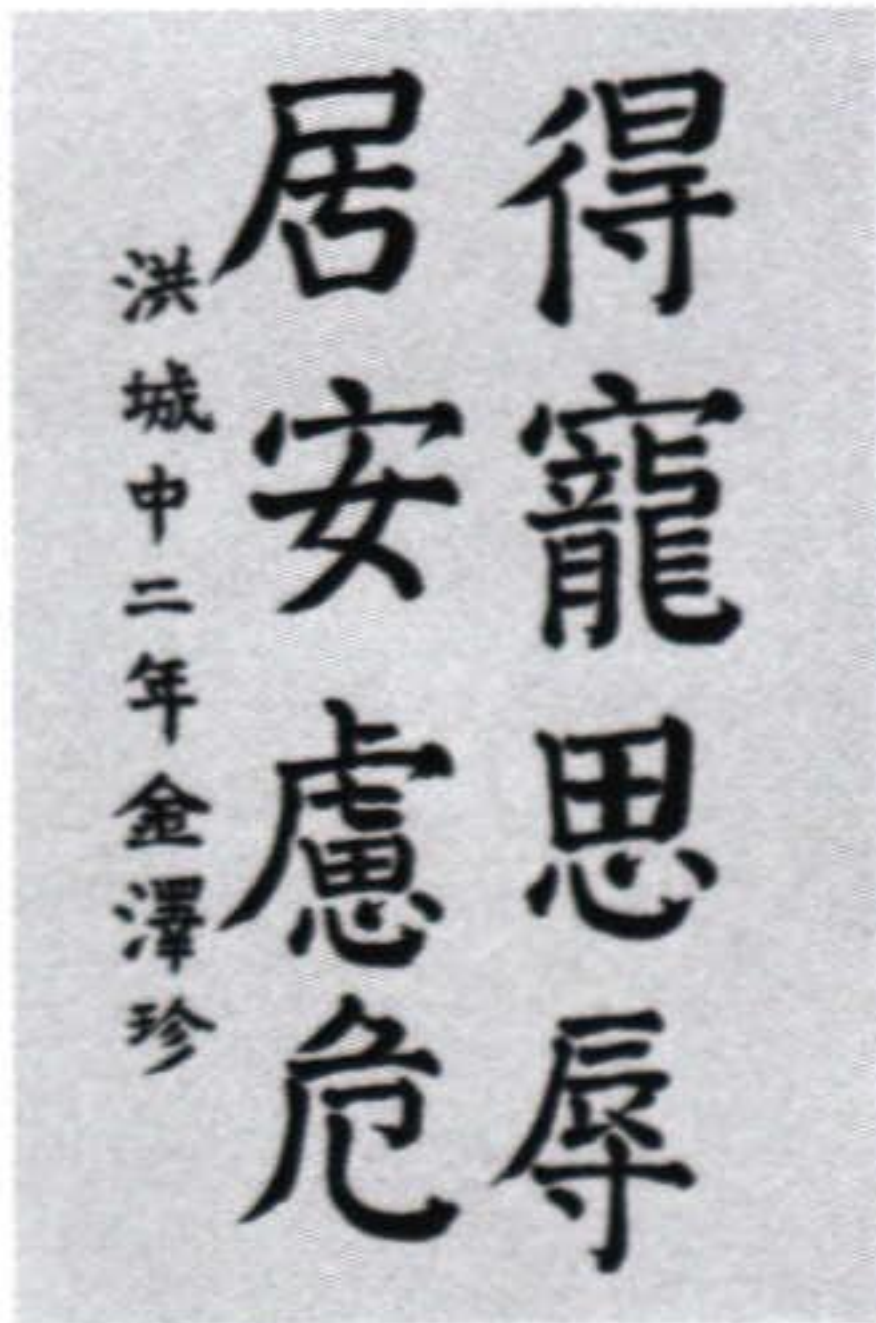
은상 홍남초 1 김민정



은상 홍남초 5 전예진



은상 홍성여중 2 류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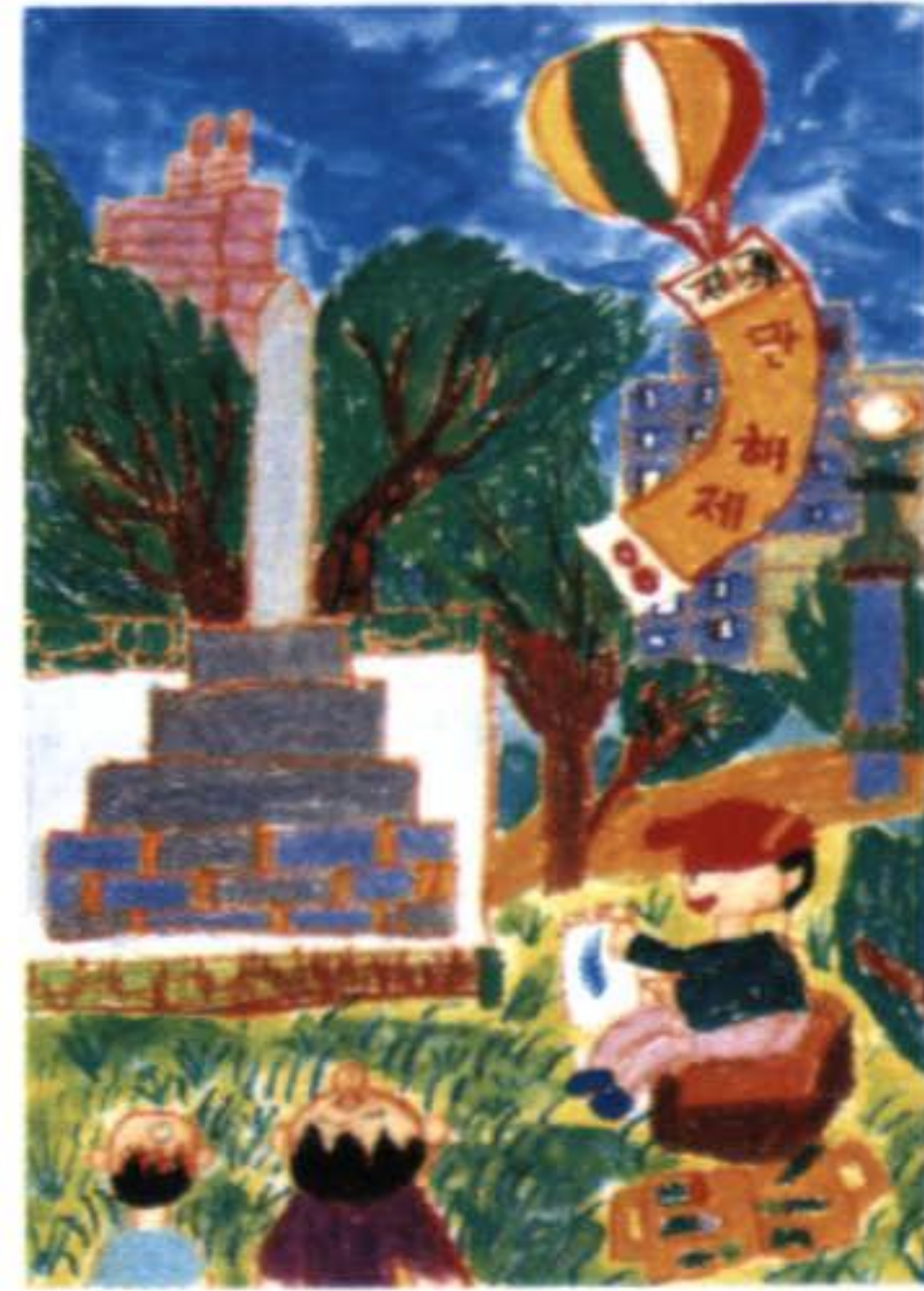
은상 홍성중 2 김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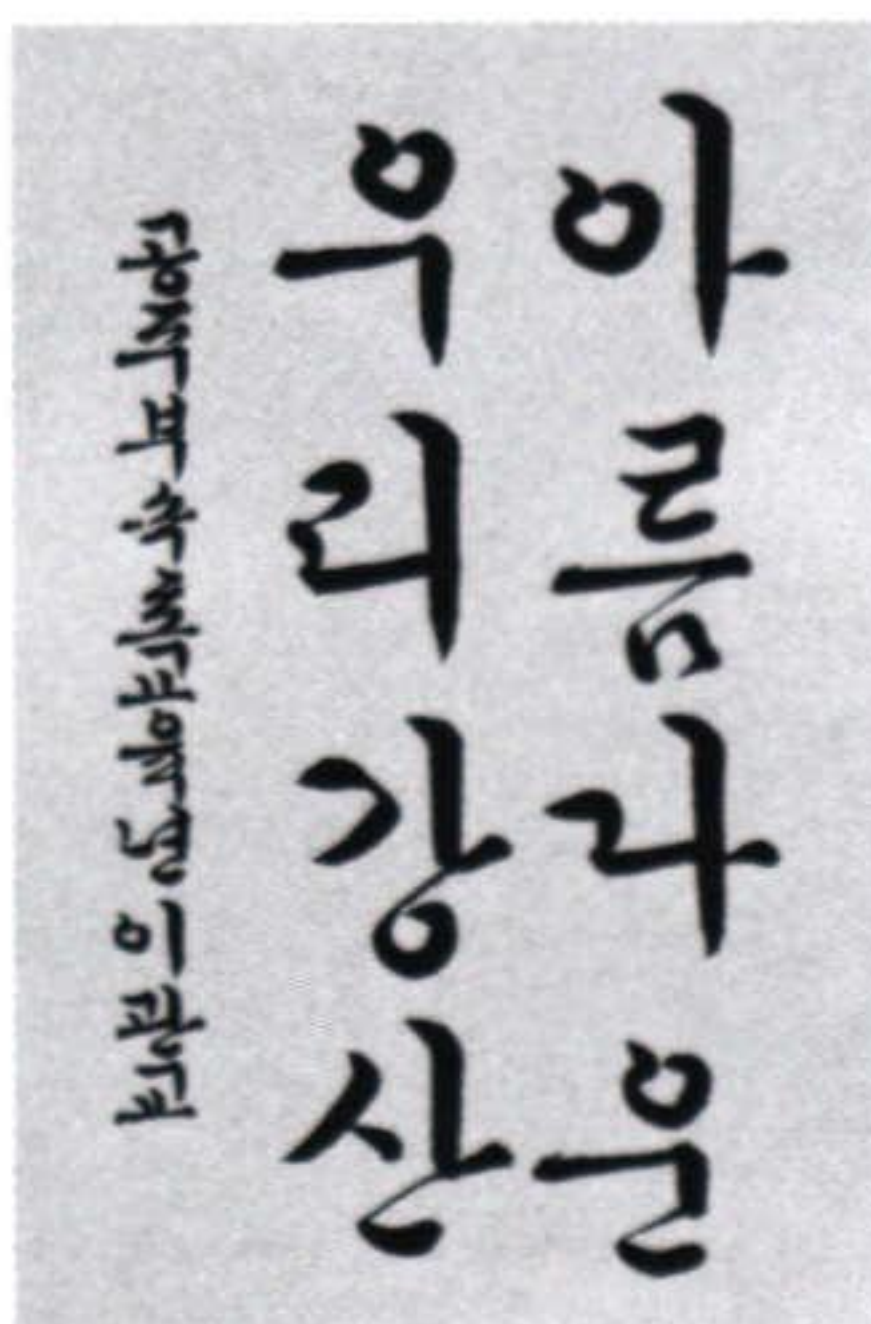
은상 홍주고 3 김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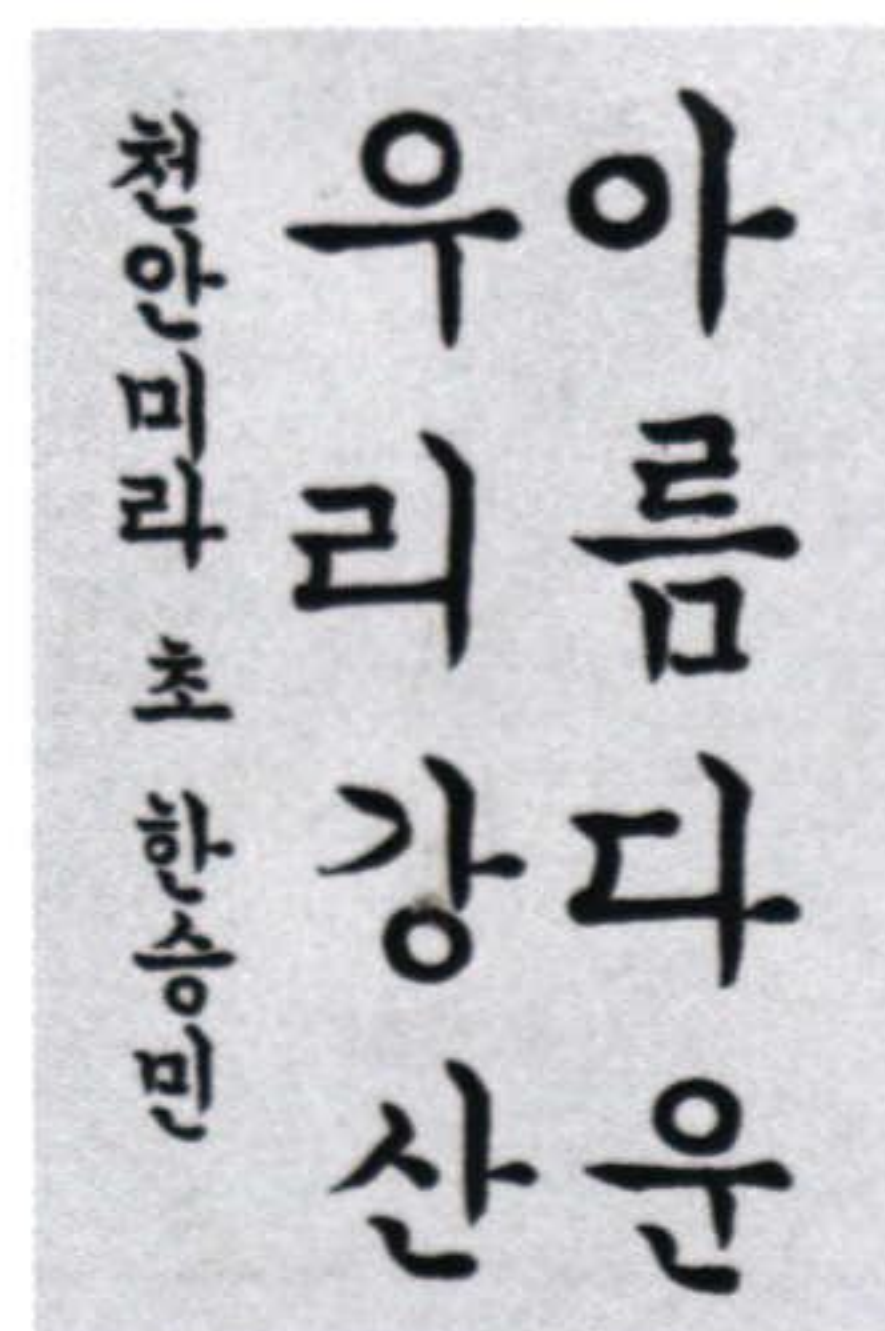
은상 홍성고 3 박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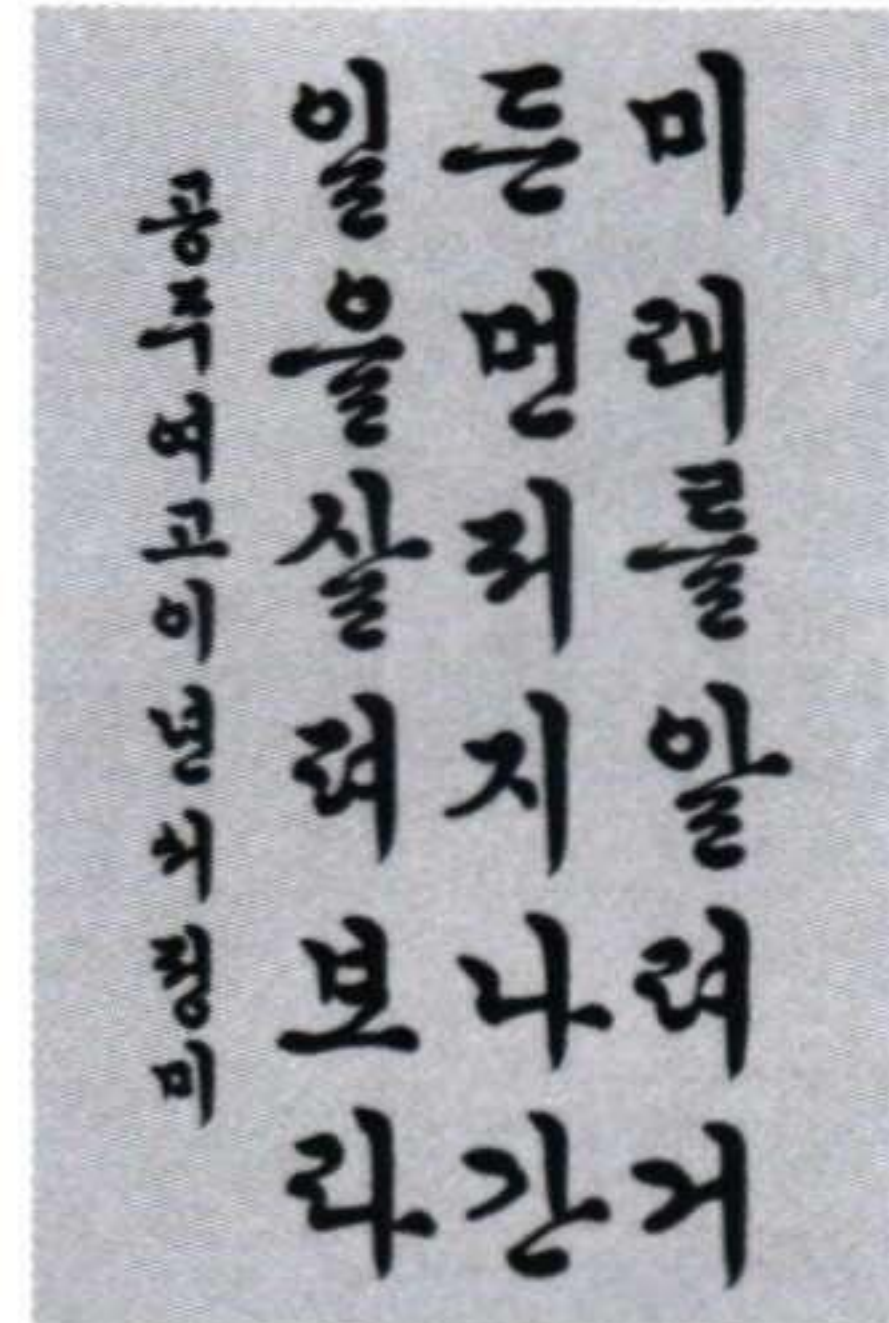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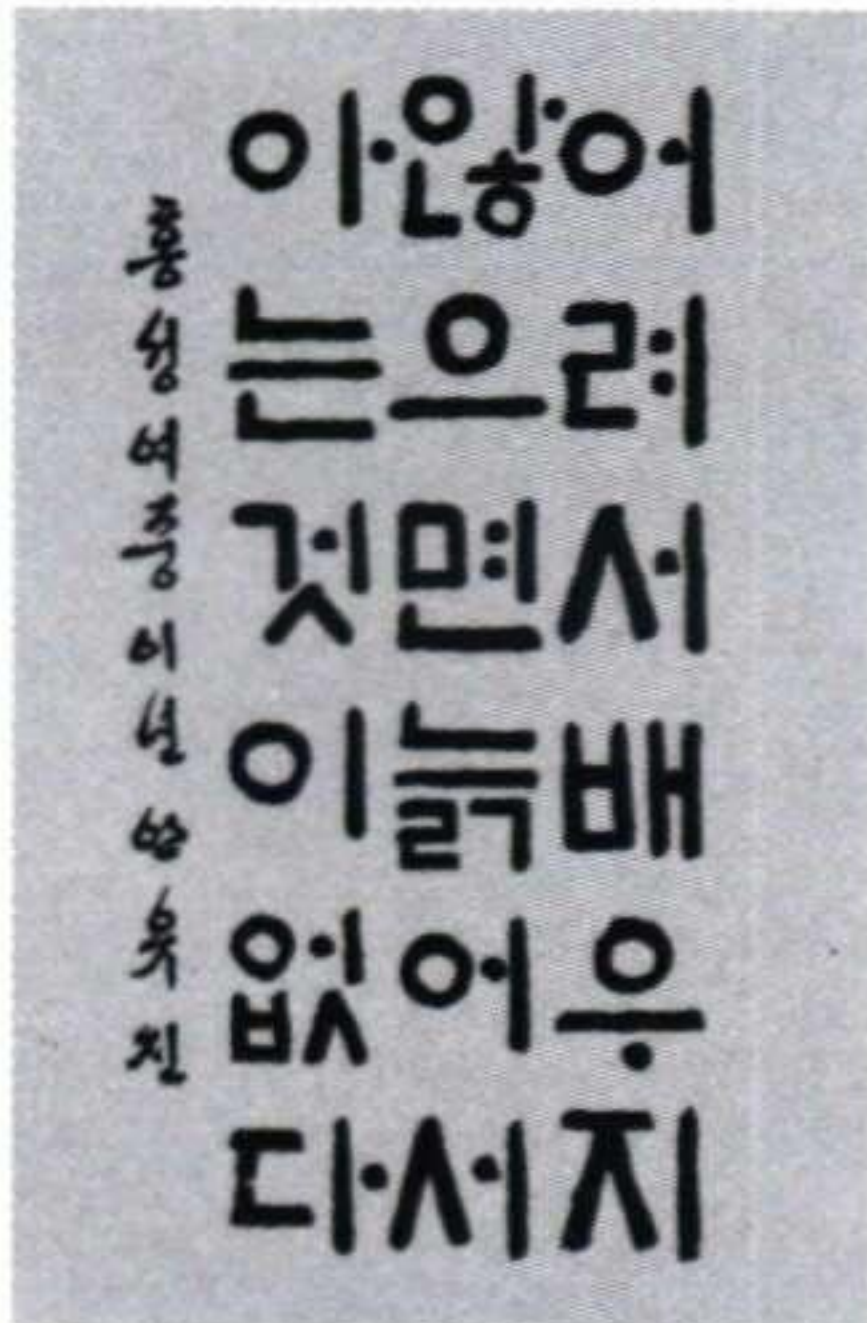
동상 홍주초 3 조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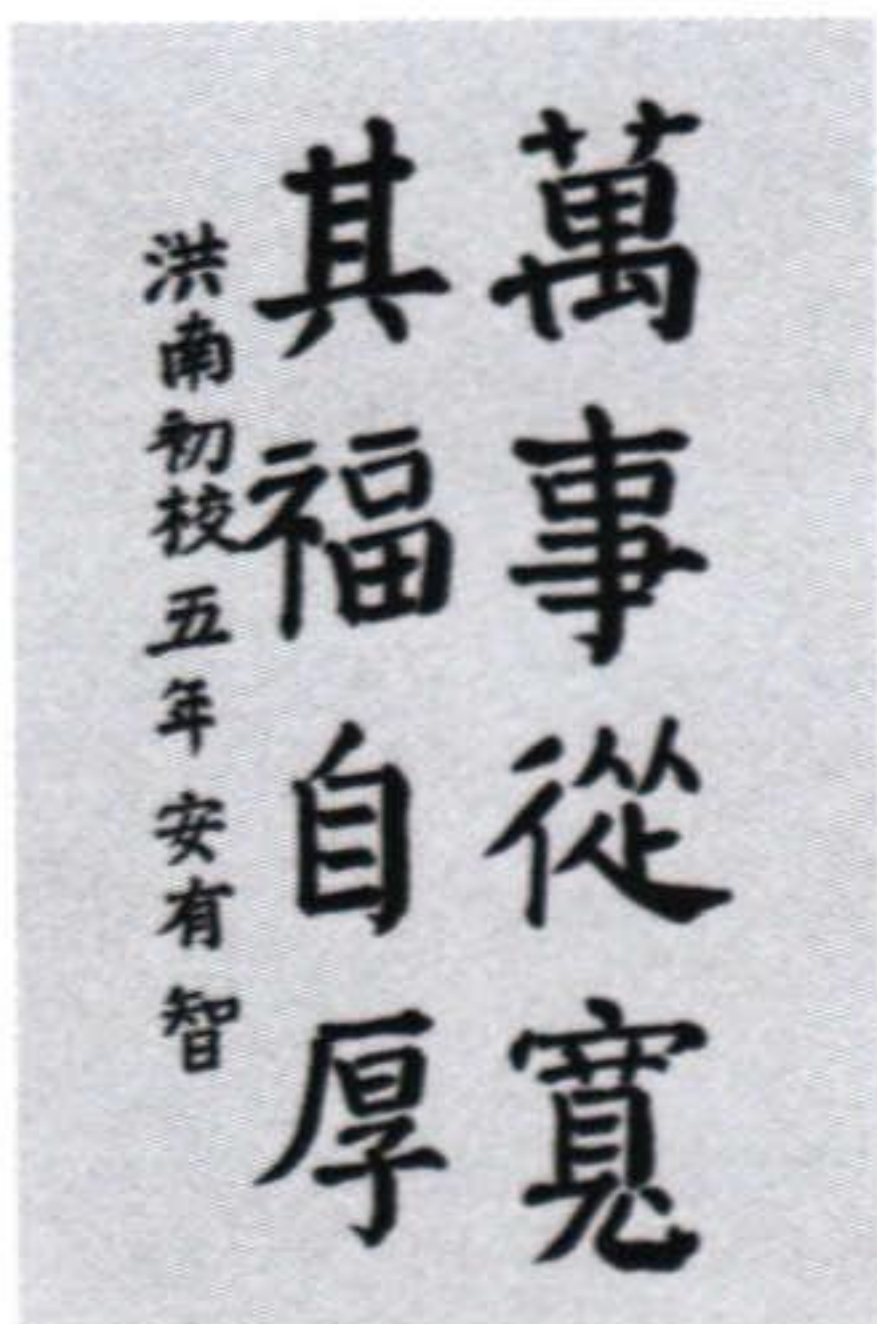


동상 공주부속초 6 이관교



동상 천안미라초 4 한승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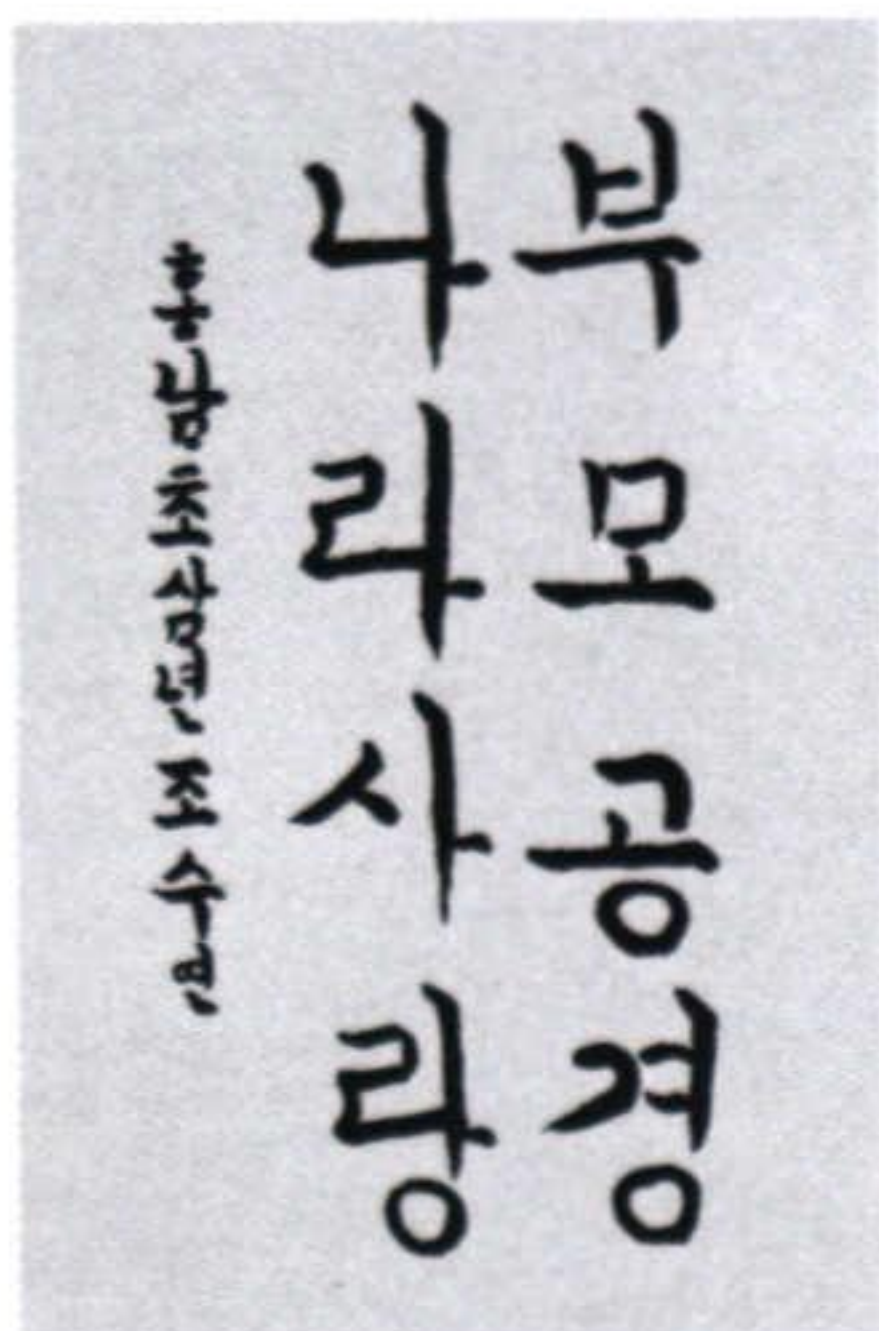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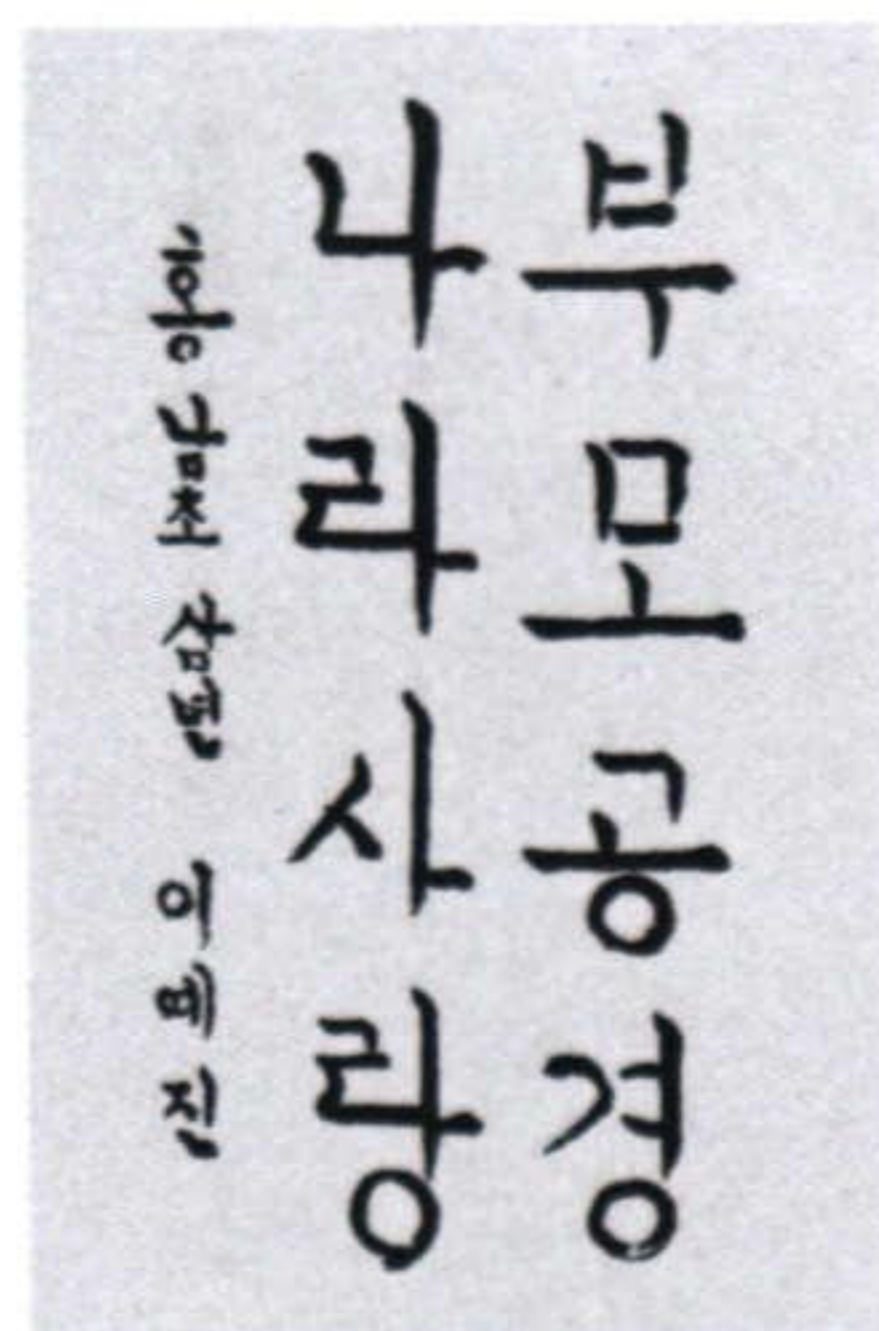
장려상 홍남초 5 안유지



장려상 홍남초 5 홍소현



장려상 홍남초 3 조수연



장려상 홍남초 3 이예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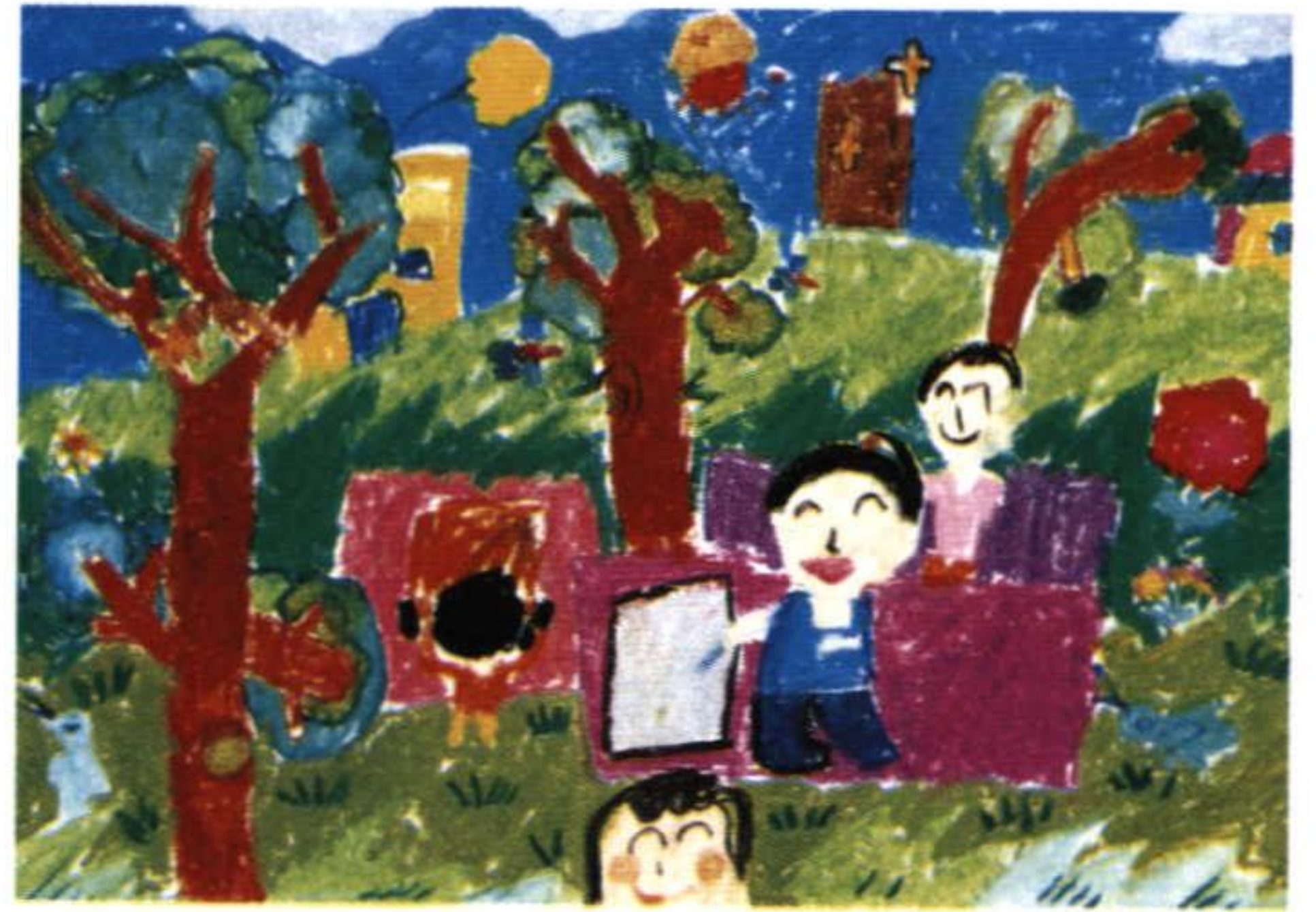
장려상 홍남초 2 정종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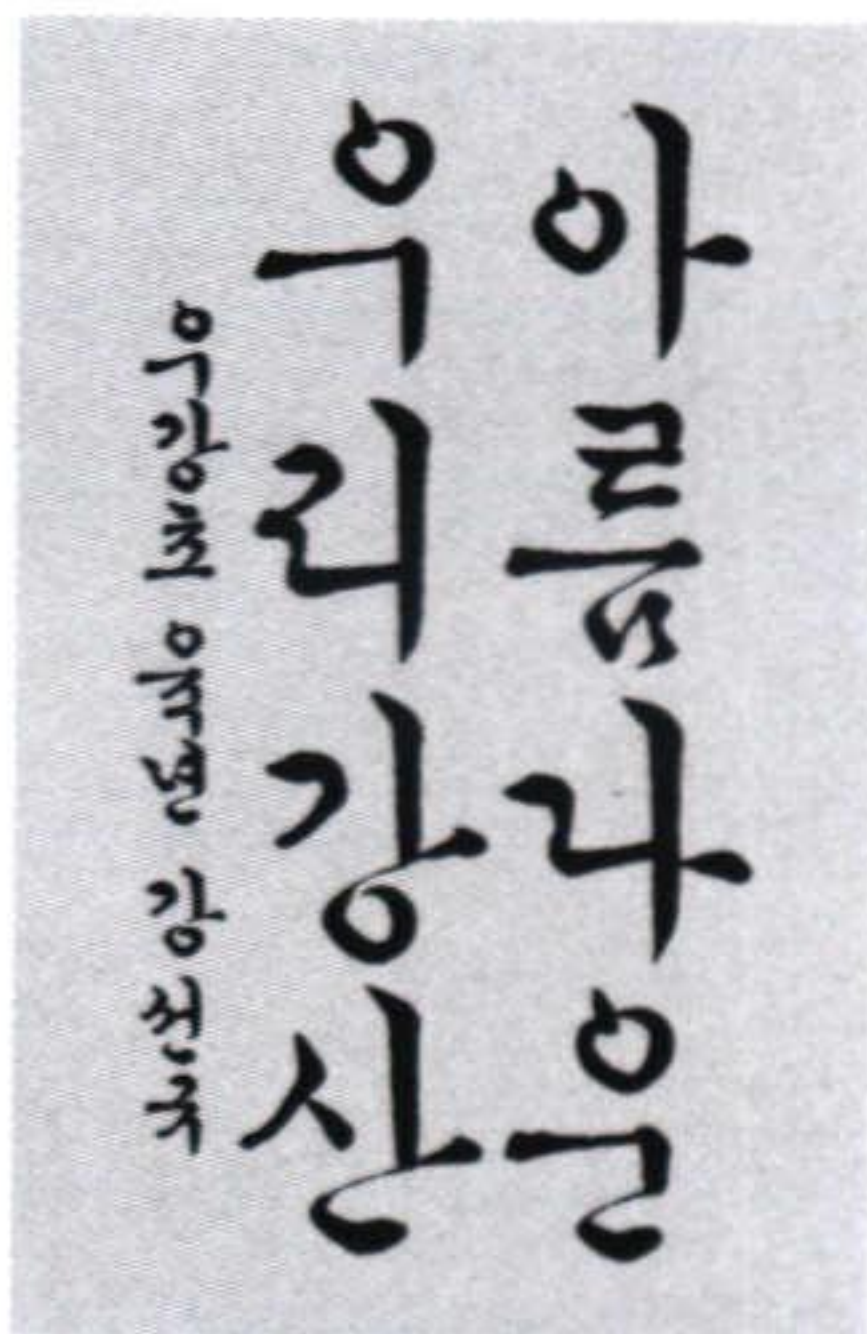
장려상 홍남초 2 조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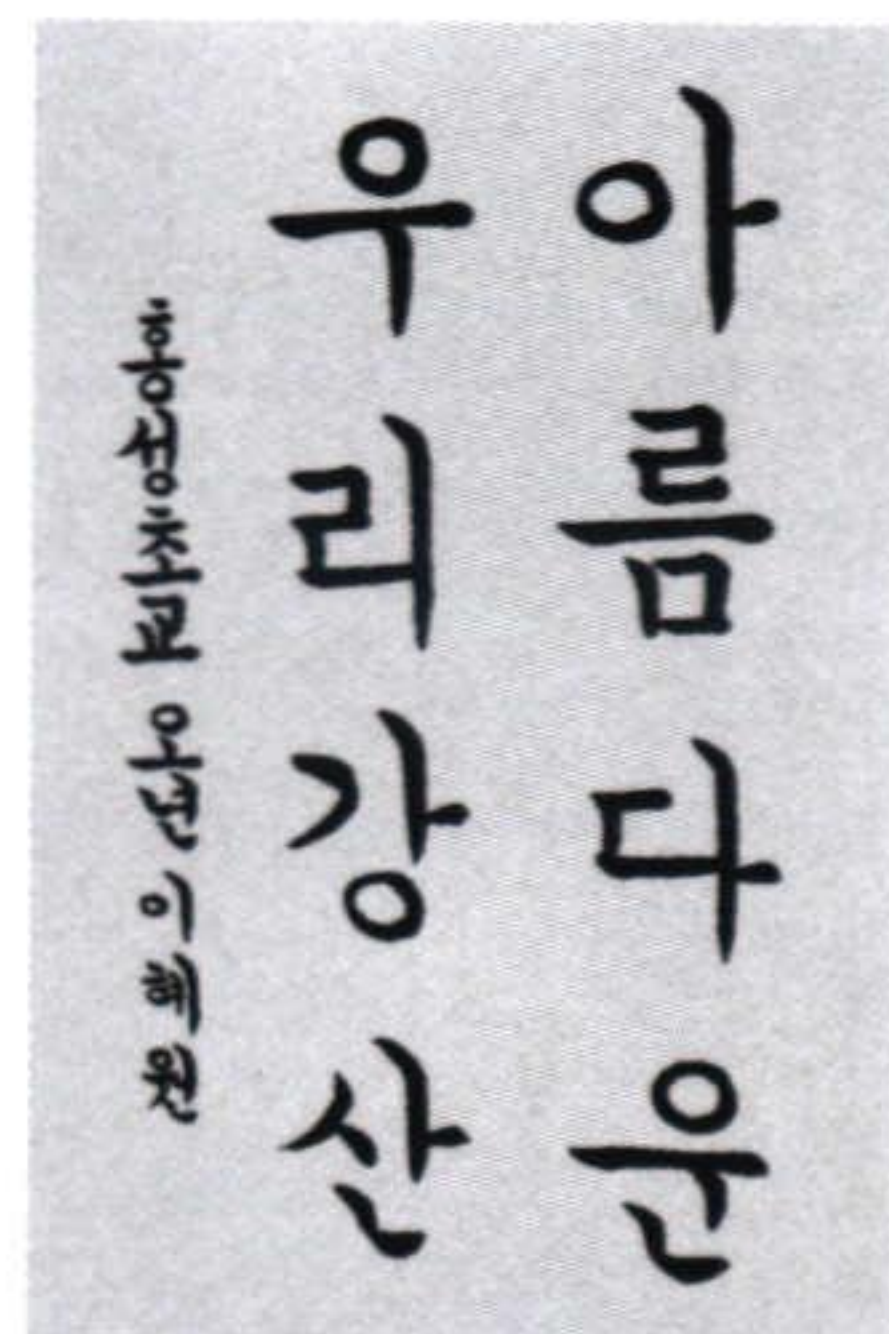
장려상 홍남초 1 백수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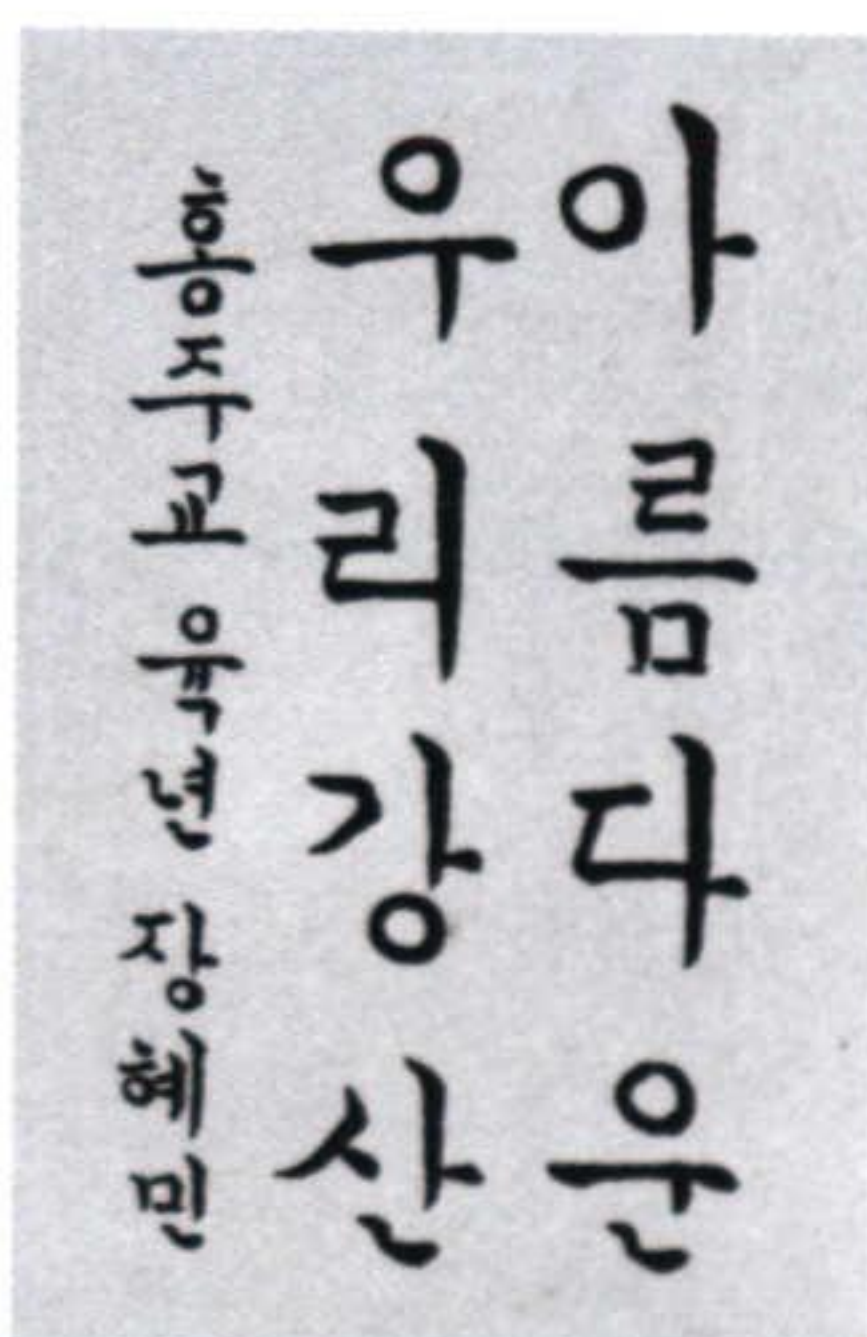
장려상 광동초 2 이소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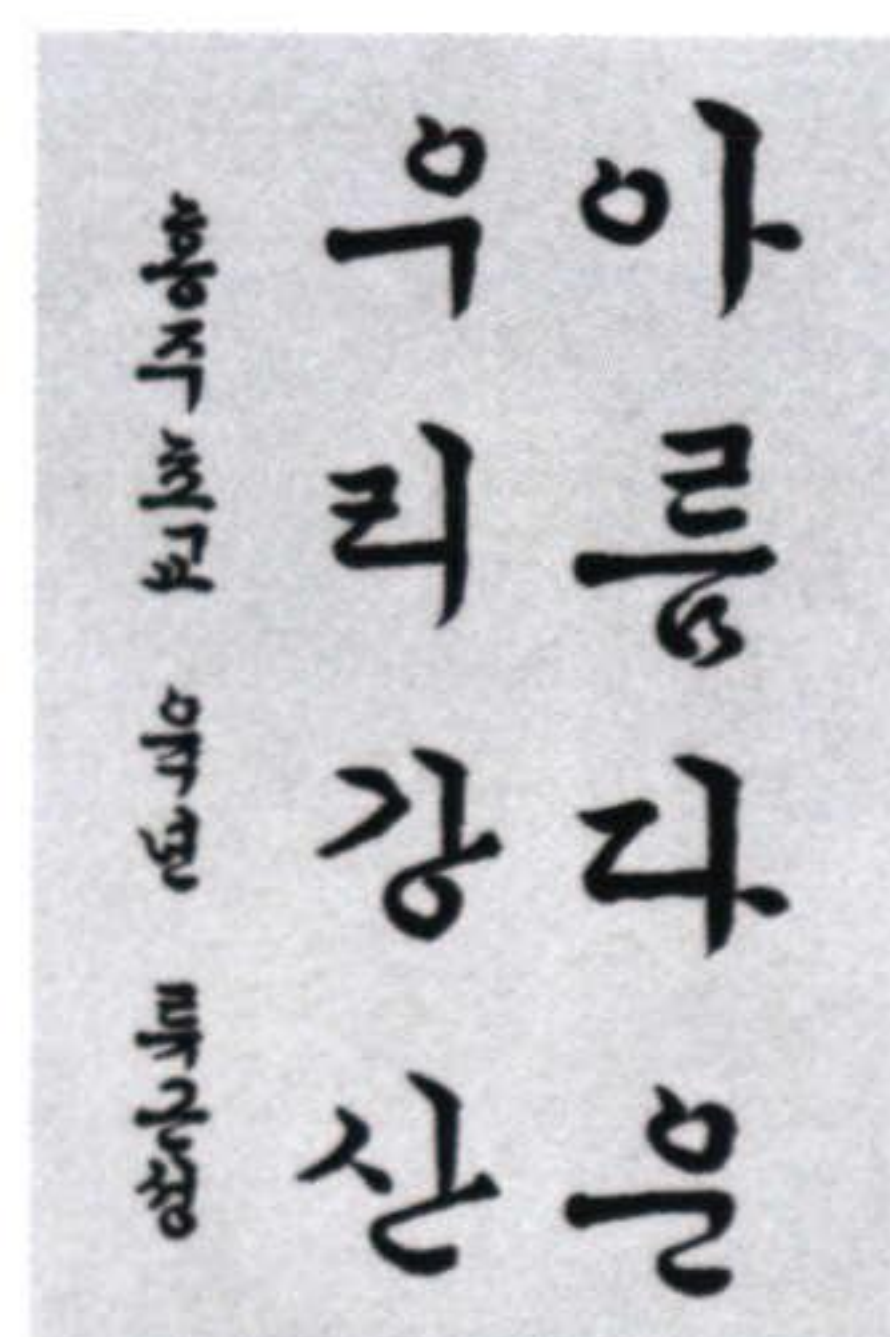
장려상 당진우강초 6 강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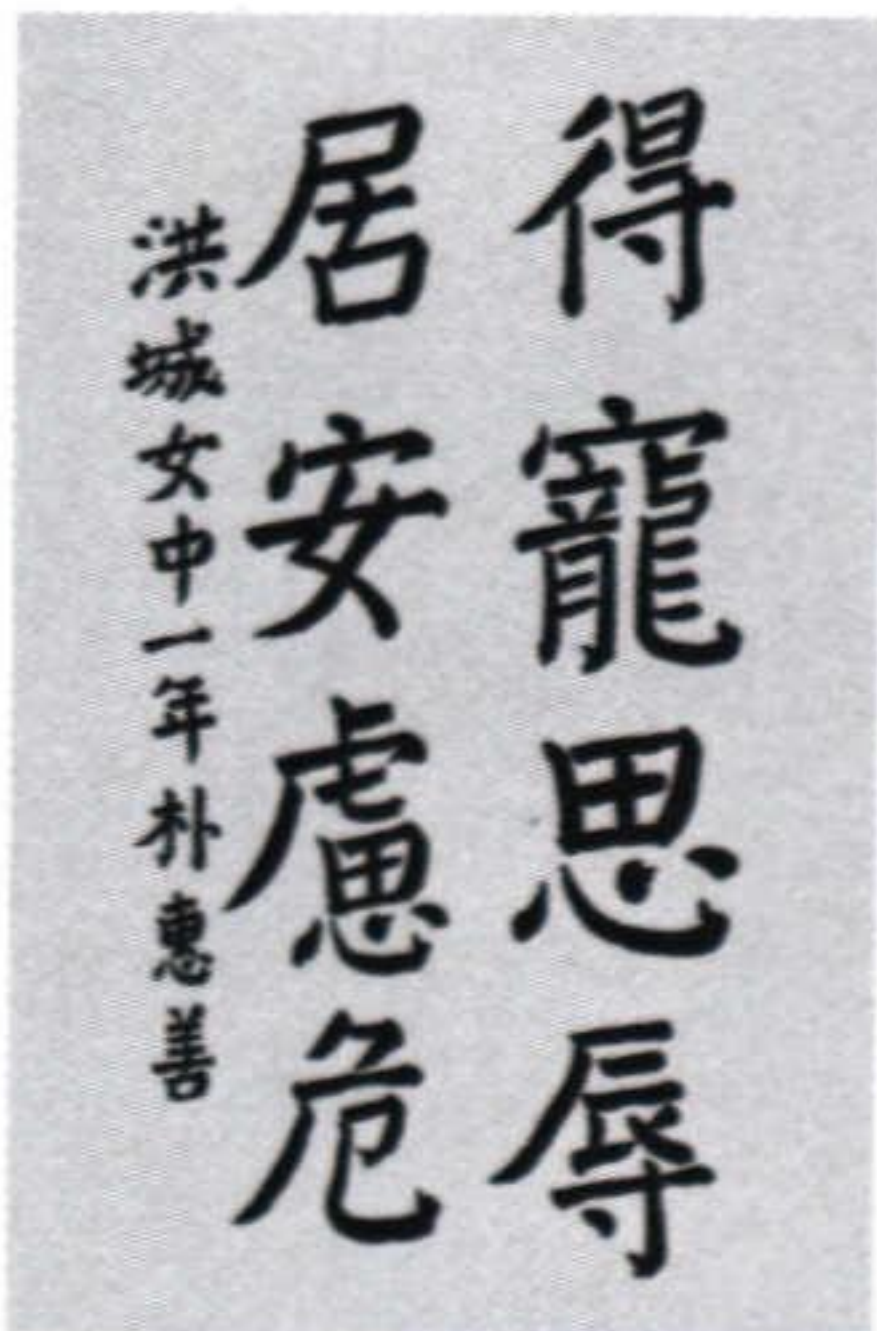
장려상 홍성초 5 이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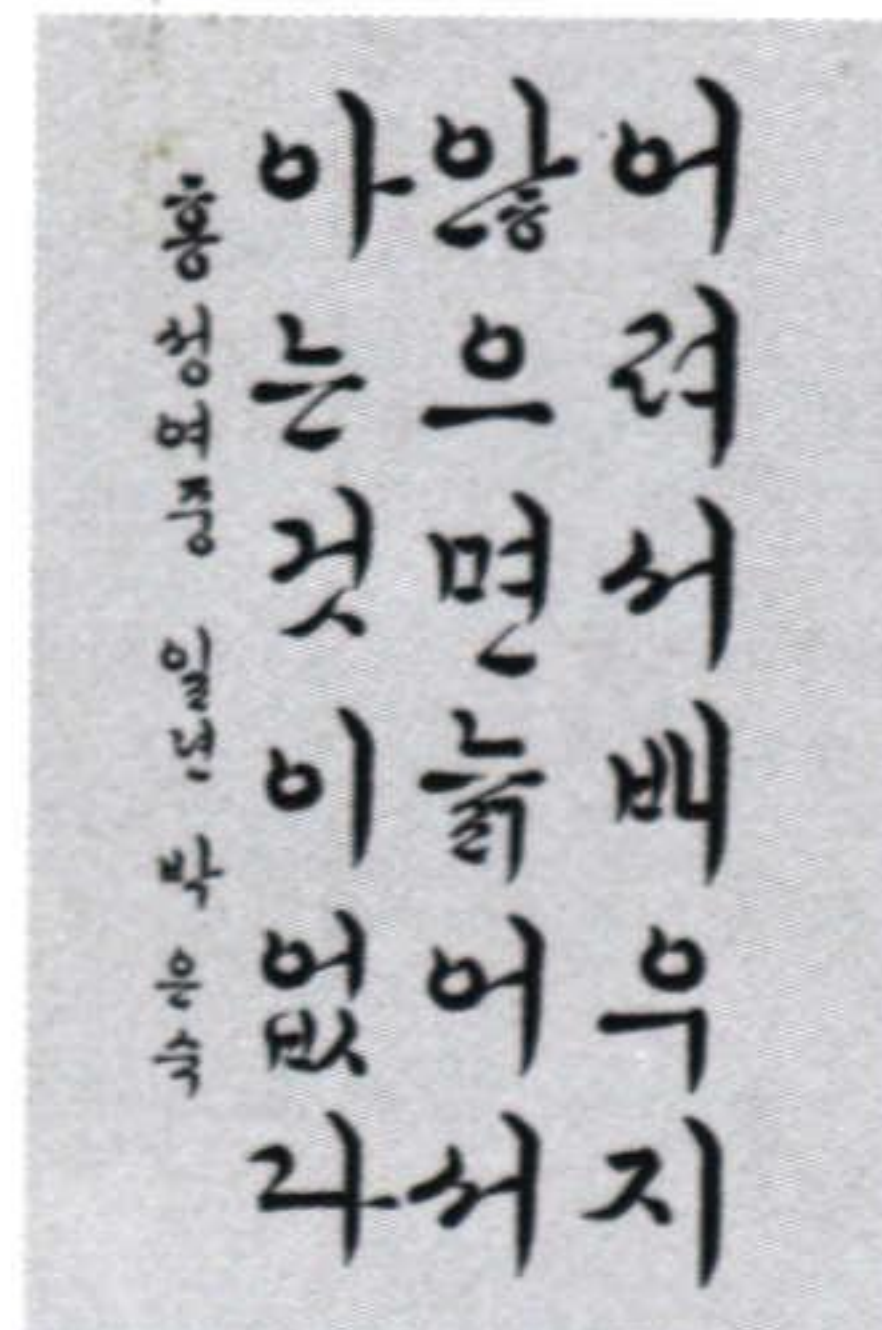
장려상 홍주초 6 장혜민



장려상 홍주초 6 류근성



장려상 홍성여중 1 박혜선



장려상 홍성여중 1 박은숙



장려상 홍성여중 1 김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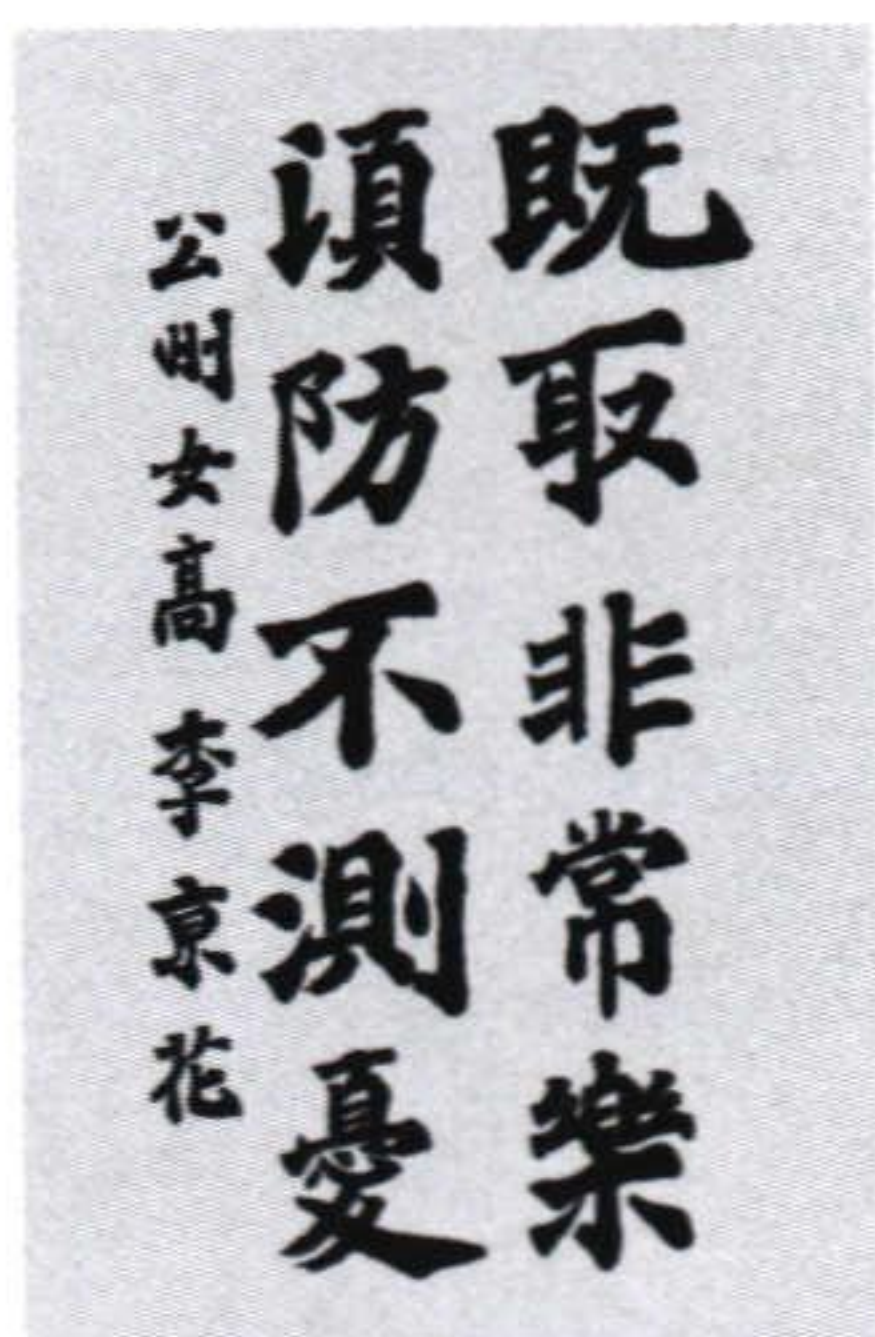
장려상 홍동중 3 권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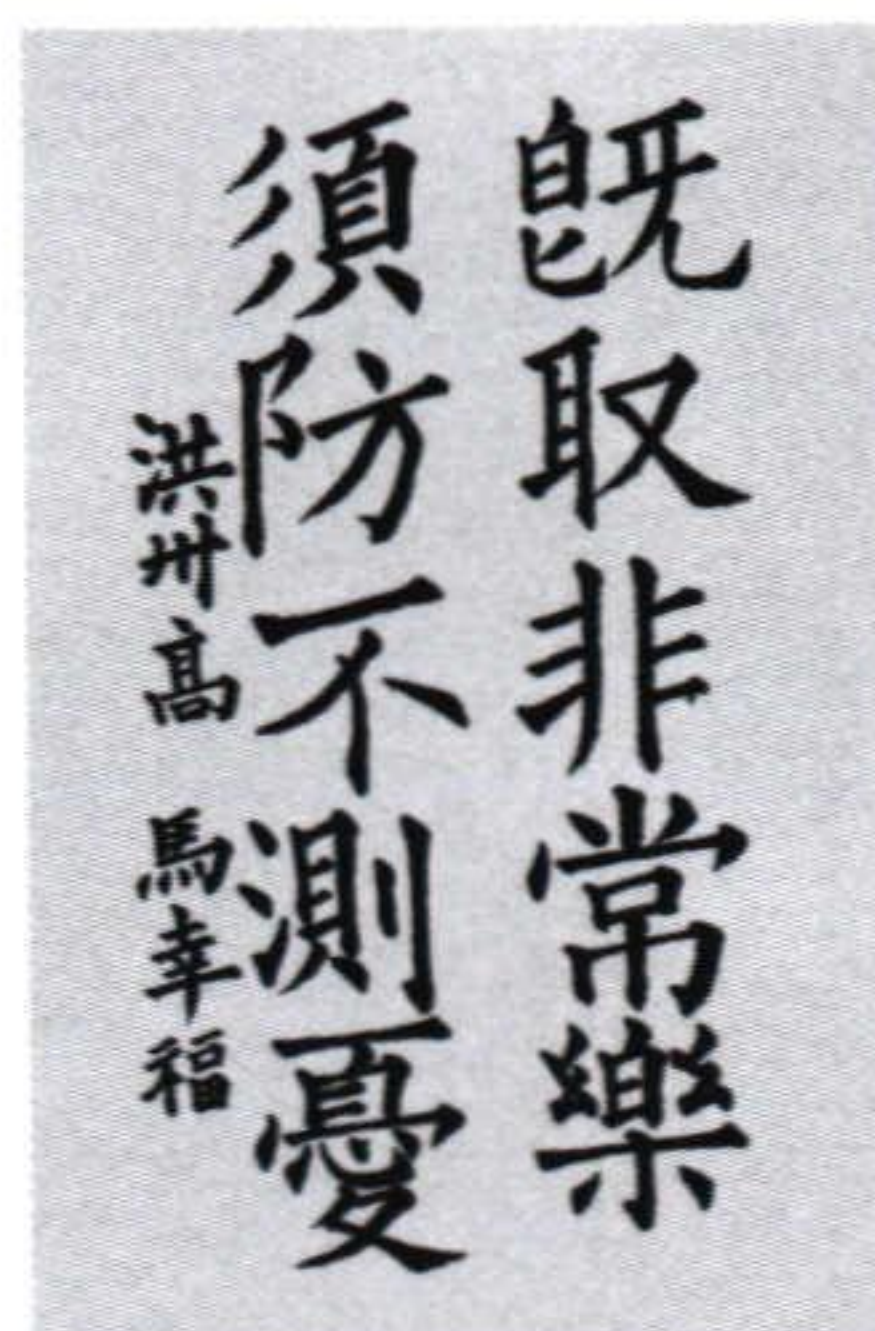
장려상 청양청신여중 3 김민정



장려상 청양청신여중 3 김지나



장려상 공주여고 2 이경화



장려상 홍주고1 마행복



장려상 홍주고 2 이제욱



장려상 홍주고 2 이두라



장려상 홍주고 3 김수욱



장려상 홍성여고 1 최지영



장려상 홍성여고 2 주정미



장려상 홍성여고 3 김희정



장려상 홍성고 3 손달영



장려상 홍성고 3 이범석



장려상 홍성고 3 김주덕



장려상 홍성고 2 유재웅



장려상 서산지곡고 3 김지선



장려상 서산지곡고 3 문지희



장려상 예산대흥고 3 장문경



장려상 서산지곡고 2 최휘숙



장려상 서산지곡고 2 홍성애

제5회 만해제 백일장 입상자 명단

등급	부문	소 속	학년	성 명	비고
금상	운문	홍 남 초 등 학 교	5학년	권 민 지	초등부
		홍 성 여 중	3학년	이 혜 림	중등부
		홍 성 여 고	1학년	임 인 영	고등부
	산문	홍 성 초 등 학 교	6학년	배 새 롬	초등부
		광 천 여 중	2학년	김 현 정	중등부
		천 안 복 자 여 고	2학년	백 효 성	고등부
은상	운문	금 마 초 등 학 교	6학년	이 은 선	초등부
		홍 남 초 등 학 교	2학년	이 연 지	
		홍 성 중 학 교	3학년	이 대 용	중등부
		예산광시중학교	2학년	김 정 숙	
		예 산 대 홍 고	1학년	김 완 미	고등부
		천 안 복 자 여 고	2학년	윤 세 희	
	산문	은 하 초 등 학 교	6학년	한 명 일	초등부
		홍 주 초 등 학 교	6학년	강 솔	
		공 주 대 부 속 중	3학년	박 인 애	중등부
		홍 동 중 학 교	1학년	신 윤 희	
		홍 성 여 고	1학년	권 혜 영	고등부
		천 안 복 자 여 고	2학년	송 설 피	

등급	부문	소 속	학년	성 명	비고
동상	운문	홍주초등학교	4학년	김수아	초등부
		천수초등학교	4학년	박나눔	
		홍남초등학교	2학년	오승미	
		예산중학교	3학년	조강민	중등부
		홍주중학교	1학년	이지훈	
		예산광시중학교	1학년	윤경아	
		홍성고등학교	1학년	이상민	고등부
		결성공고	1학년	정희철	
		홍성여고	2학년	김지예	
	산문	은하초등학교	4학년	유리	초등부
		홍남초등학교	4학년	박혜림	
		광동초등학교	4학년	이창경	
		홍성여중	3학년	김세영	중등부
		광홍중학교	3학년	장형수	
		당진송산중학교	1학년	이아름	
		천안복자여고	2학년	염승숙	고등부
		홍성고등학교	1학년	진명환	
		홍성여고	1학년	전유리	

등급	부문	소 속	학년	성 명	비고
장려상	운문	용 봉 초 등 학 교	6학년	유 은 주	초등부
		홍 주 초 등 학 교	6학년	최 나 영	
		은 하 초 등 학 교	3학년	조 아 라	
		홍 주 초 등 학 교	4학년	권 미 정	
		홍 남 초 등 학 교	3학년	권 열 음	
		결 성 중 학 교	1학년	김 수 선	중등부
		결 성 중 학 교	3학년	송 유 정	
		예 산 여 중	3학년	윤 병 미	
		예 산 대 홍 고	2학년	홍 선 미	고등부
		홍 성 고 등 학 교	2학년	김 지 석	
		홍 성 여 고	2학년	최 선 미	
	산문	갈 산 초 등 학 교	4학년	김 선 애	초등부
		신 당 초 등 학 교	6학년	윤 재 옥	
		대 정 초 등 학 교	6학년	오 지 아	
		예 산 여 중	3학년	김 혜 연	중등부
		홍 성 여 중	1학년	김 정 민	
		홍 성 중 학 교	1학년	전 영 민	
		광 천 중 학 교	3학년	이 상 권	
		예 산 대 홍 고	2학년	조 선 희	고등부
		광 천 고 등 학 교	3학년	정 향 경	
		예 산 대 홍 고	2학년	백 순 영	



엄마의 마음

홍남초등학교
제5학년
권 민 지

나는 나는
알 수 있어요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엄마 얼굴모양
하트모양 되면
엄마께 사알짝
다가가 말해요

“엄마, 아빠가

선물주신 거죠?”
그때 엄마 얼굴엔
미소가 뛰놀아요

엄마 얼굴모양
세모모양 되면
엄마께 살짝
다가가 말해요

“엄마, 아빠랑
싸우신 거죠?”
그때 엄마 얼굴엔
미안함이 감돌아요

나는 나는
알 수 있어요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엄마 얼굴모양
별모양이 되면
엄마께 사알짝
다가가 말해요

“엄마 제가
자랑스러우세요?”
그때 엄마 얼굴엔
별빛이 미소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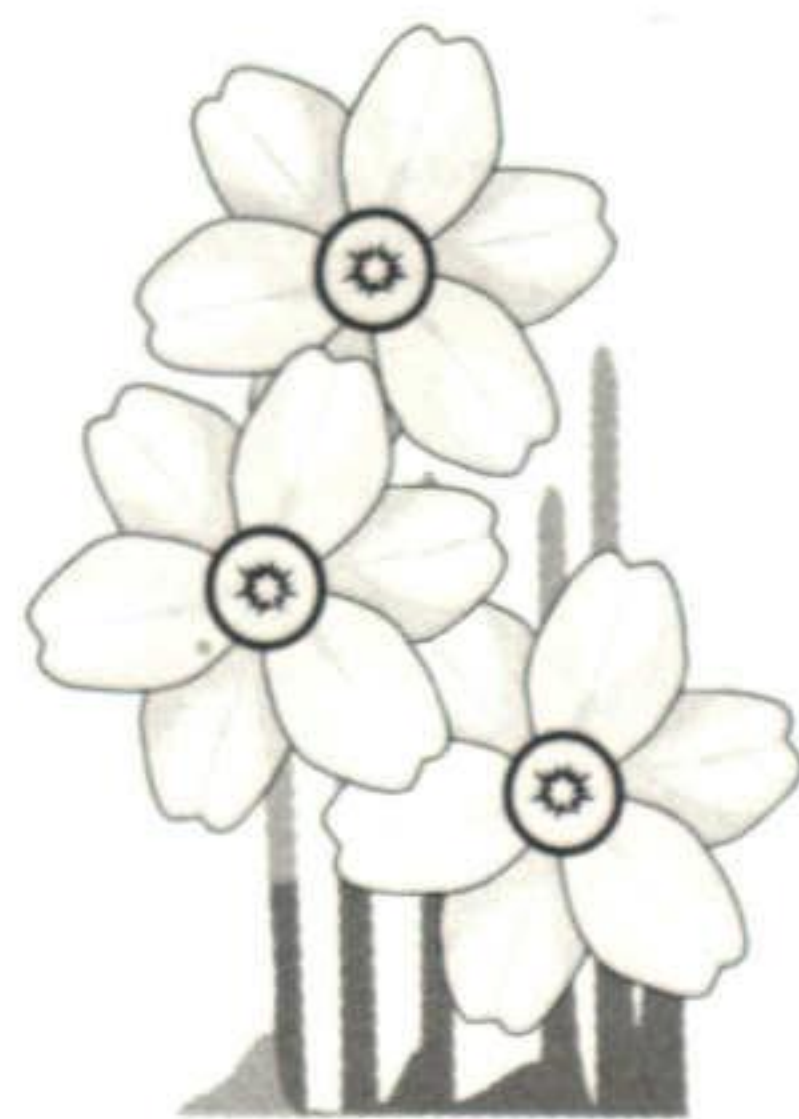
엄마 얼굴모양이
네모모양 되면
엄마께 살짝
다가가 말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엄마 얼굴엔
용서가 아롱져요

엄마의 얼굴속엔
엄마의 마음이
엄마의 따스함이
나타납니다

엄마의 얼굴이
하트모양 되도록
별모양이 되도록

엄마의 마음이
항상 행복하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금상

비오는 날

홍성여자중학교
제3학년
이 혜 림

툑, 툑, 툑
언제나 주먹쥐고
휘어진 허리 두드리며
긴 한숨 내뿜는 여인

이제는
주름투성인 얼굴에
머리엔 흰 꽃이
수북한데

오늘도 어김없이

커다란 바구니 짊어지고
저 먼 외길을
걸어가는 여인

비오는 날 밤마다
세상 모르고 자는
다섯 남매를 보며
거칠고 부르튼 작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는 여인

여인의 슬픈 마음
그 눈물이 하늘에
시린 비가 되어 내리네

그 눈물을
웬수같은 자식들
때문도 아니오
먼저 떠나간
남편 때문도 아니오

그 누구도
원망치 않는
썩쓸한 마음에서
넘쳐나오는
눈물이니

그 비는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민들레 같은 마음
아름다운 여인의
눈물입니다



금상

어느 일요일

홍성여자고등학교

제1학년

임 인 영

길이 그리 멀지도 않다
할머니 세숫대야 머리에 이고
칭얼대던 손녀 곁으로 오던 길

지나지 않는 시간에
홀쩍 커버린 손녀는
길이 그리 멀지도 않다

굽은 산 주름고개 넘어
십리 동구밖 훨씬 가셨나
새벽 찬 이슬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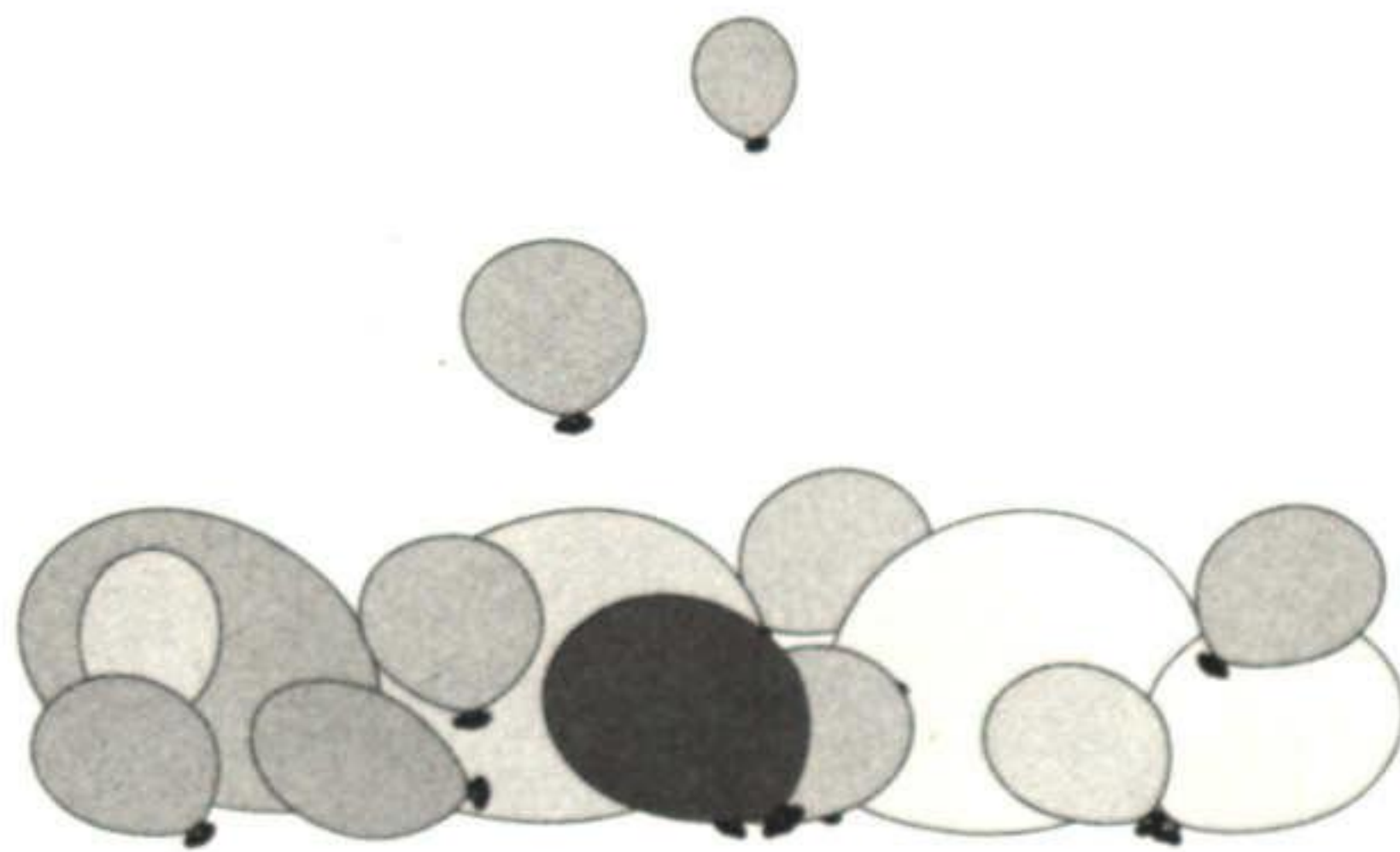
안개 속으로 숨으셨나

세숫대야 은방울
소리도 고요하다
하얀 버선 지긋이 누른 고무신
흙소리도 없다

굽은 산 주름고개 걸려
지나지 않는 일요일

내일이 오길 막아선
어두워 지지 않는 그 시간

향내음 실은 그날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다





엄마의 마음

홍성초등학교
제6학년
배 새 림

4학년때의 일이다. 마침 그날은 내 사촌 동생의 생일날이었다. 그래서 인지 더욱 그 날을 잊을 수 없다.

온세상이 흰 옷을 갈아 입은 추운 겨울날 엄마와 사촌동생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시내에 갔다.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시내에 수많은 네온사인에는 하나 둘씩 불이 켜지고 있었다. 엄마와 나는 선물을 사기 위해 시내의 여러 가게를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조금 외진 곳에 있는 아동복 할인가게를 찾았다. 엄마는 그 곳에서 동생의 선물을 고르셨다. 그동안 나는 옷을 구경했다. 그 중에 내가 가장 입고 싶었던 예쁜 코트가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 옷을 바라보며 그 옷을 입은 내 모습을 상상했다. 저 옷이 내 것이라면……. 나는 괜히 욕심이 생겼다.

"엄마, 나도 저 옷 사주세요."

"지금은 안돼. 다음에 사줄게."

다음에 사준다면 엄마. 그런데 나는 그 옷에 왜 그렇게 욕심이 났을까? 나는 너무 화가 났다. 엄마는 내 기분을 풀어 주려고 애를 쓰셨다.

"새롬아, 빵 먹을래?"

"싫어"

"그럼 만두 사줄까?"

"몰라, 다 싫어."

나는 혼자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새롬아, 같이 가야지."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어도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뒤따라온 엄마는 내 기분을 풀어 주려 계속 설득하셨다.

"엄마가 다음에 꼭 사줄게. 응?"

"됐어. 치. 내 친구들은 그런 옷 다 입었는데, 그런 옷 없는 앤 나밖에 없어."

엄마는 말 없이 내 얘기를 듣고 계셨다. 속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았다.

"엄마도 다른 엄마들처럼 우리 딸 예쁜 옷도 입히고 싶고, 좋은것 많이 해주고 싶어. 그런데 지금 우리 형편도 생각해야지. 그래, 엄마가 다음에 코트 꼭 사줄게."

그리고는 엄마의 그림자는 점점 멀어져 갔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엄마의 마음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도 후회가 되는 일이다. 내가 철부지 어린아이도 아닌데, 괜히 엄마 마음만 상하게 한 것 같다.

세상에서 가장 깊고 넓은 것……. 엄마의 마음과 사랑이 아닐까? 얼마 전 사조 마을로 수련 활동을 갔을때, 촛불의식 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난다. 우렁이라는 생물은 새끼를 낳을 때까지 양분을 저장하고, 먹은 뒤 새끼를 낳으면 자기 몸을 새끼에게 준다고 한다.

그러면 우렁이 새끼는 어미의 몸을 먹으며 자란다는 이야기였다. 새끼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 주는 우렁이 처럼 우리 엄마도 나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한다.

자식과 가족을 위해 사시는 엄마.

엄마의 마음은 세상 그 무엇 보다도 깊고 넓고 소중하다.





비오는 날

광천여자중학교
제2학년
김 현 정

오늘도 아빠께선 온몸이 땀으로 젖어 들어오신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빠와 똑같은 모습으로 엄마가 오신다. 언제나 그런 모습에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께선 큰 하우스 두 동과 여러개의 논 농사를 지신다. 농사짓는 양이 많아서인지 우리 부모님께선 날마다 녹초가 되셔서 들어오신다.

그런 부모님의 피와 땀으로 여러 농작물이 결실을 맺는다. 이번에는 하우스에 수박을 심었다. 이제는 잎과 줄기도 꽤 컸고 열매도 주먹만하게 자랐다고 말씀하셨다. 매일 지치도록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애길 하실때의 부모님 얼굴에는 생기가 돈다.

21 며칠동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께선 모처럼만의 반가운 비라고 좋아하셨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한번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는 그칠줄을 몰랐고 더구나 거센 바람까지 불어 왔다. 부모님의 얼굴은 점점 어두어져 갔다. 냇가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황토색의 굵은 물줄기가 두렵게 느껴졌다. 아빠께선 그치지 않는 비가 농작물에 피해나 주지않을까 내내 노심초사 하셨다.

이윽고 아직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릴거라는 기상캐스터의 말을 듣고 아빠는 우비를 입으시고 나가셨다. 아마도 논이 걱정이 되셨는지 논쪽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셨다. 비속으로 거센 바람속으로 사라지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자연은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왜 자식을 위해 헌신한 우리 엄마, 아빠에게 이런 걱정과 근심을 안겨 주신 것인지.....

한동안 그렇게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 TV속의 뉴스 앵커의 말 소리가 들려왔다. 사망자명단이 불리워지고 피해상황이 화면에 나타나고 다시 한번 자연의 엄청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거센 바람에 나뭇가지들이 부러지고 집밖의 잡동사니들이 날라다니는 듯 했다. 창문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눈앞에서 우리 부모님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비닐하우스가 아니 그 하우스의 겉을 감싸고 있던 비닐이 날라갔다. 그리고 그안의 농작물들은 우리가 나가 있어도 견디기 힘든 굵은 빗방울과 거센 바람을 고스란히 받아냈다.

우리 부모님께서 올 한 해동안 흘린 피와 땀이 헛수고가 되어 갔다. 가족들의 표정이 굳어져 갔다. 늦게 돌아오신 아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그냥 그렇게 있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어쩌면 우리의 이런 행동은 이기적인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번 비와 바람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보금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상 나와 내 동생을 위해 우리 부모님께서 흘린 땀이 헛것이 된다는 것이 나는 믿어지지 않았고 억울했다.

그렇게 비오는 날은 지나갔다. 물론 하우스에서 건진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몇달동안 하우스를 짓는 일밖에는……

우리 가족은 그 비온날 이후로 한동안 절망에 빠져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주위를 정리하며 다른 농작물을 키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해 쏟은 정성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비오는 날

복자여자고등학교

제2학년

백 효 성

언제나 그렇듯이 비는 소리없이 온다. 사람들의 머리 위로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그들의 몸이 사람들에게 닿으면 피하기 때문일까? 그래서 비의 운명은 항상 서글프다. 우산이란 방패막이로 자신을 가리는, 거부당하는 숙명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인가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 한 계절 빠지지 않고 사계절 모두 내린다. 이번 여름에도 어김없이 비가 내렸다. 물이 말라 농사 걱정을 하는 주름패인 농부의 얼굴에도 평범한 일상에 지루함을 느끼는 직장인의 얼굴 위에도 이번 비는 반갑기만 했다. 그래서 비는 즐거웠던 것일까? 이번 비는 하늘이 뚫린 듯 했다. 억수로 퍼붓는 빗줄기에 사람들은 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어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푸른하늘과 이른 아침의 한적한 거리.

그리고 집에서 나온 지 몇 발자국 되지 않았는데 흐르는 땀들. 모든 것이 변함이 없었다. 다행히 버스의 맨 뒷자리에 앉은 나는 매일 지나치는 거리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보려 애쓰고 있었다. 또 하루의 시작이었다. 낮이 많이 익은 사람들을 태우고 내려주며 버스는 목적지 없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다. 어느 새 버스가 붉은 벽돌 담 거리로 들어섰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리는 문으로 향했다. ‘취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덜컥 열렸고 혹시 문이 닫힐 새라 얼른 내려왔다. 순간 나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며 하늘을 쳐다봤고 그때 ‘후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비가 몰아쳐 대기 시작했다. 나는 무의식중에 손을 머리 위로 받쳐들고 교문을 향해 달려갔다. 몇 발짝이나 뛰었을까? 갑자기 다시 햇빛이 고개를 쳐 들기 시작했다. 무안해진 손을 다시 내리고 교문을 들어서는데 내 발걸음에는 마음속에 큰 비라도 기대 했었는지 허망함이 묻어 있었다. 그랬는지 모른다. 이 찌는 더위에 더군다나 방학 중에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이 짜증스러움을 시원한 비가 씻어주길 바랬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며칠 전에 다녀왔던 시골 할머니의 푸념 때문이었는지…….

"비가 안 와서 큰일이여. 얼른 와야 할텐데……."

교실로 들어가보니 반 친구들도 벌써 물에 빠진 생쥐 꼴이었다. 옷과 머리의 물기를 털고 있는 나에게 옆 친구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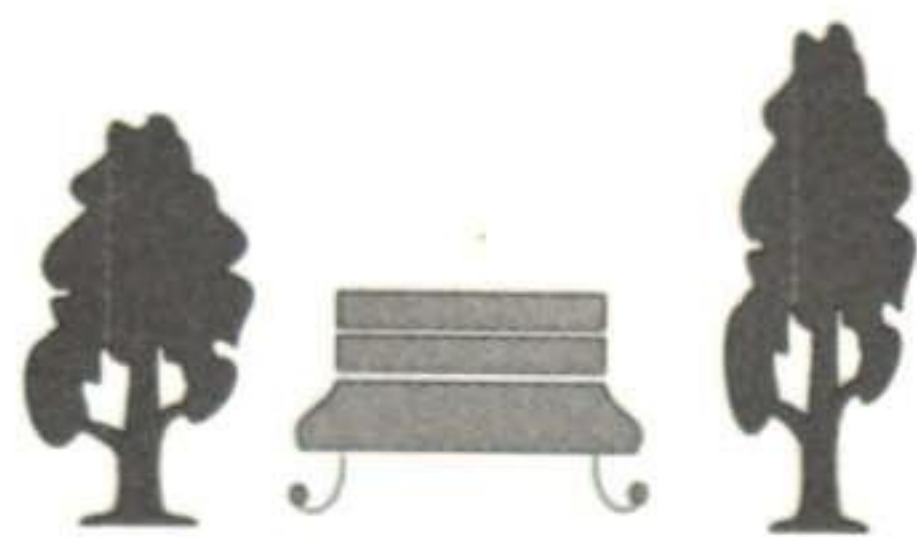
"오늘 비 다른 곳에는 엄청 많이 온대. 침수 지역도 있을 거라는데?"

"그래?"

라고 대답을 하고는 이기적이게도 나는 우리 가족의 안전을 걱정했다. 그러나 곧 씩씩한 웃음을 지었다. 한 단어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바로 ‘수해’라는 단어였다. 작년의 참사가 파노라마처럼 나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울부짖는 사람들.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건물들. 모든 것이 생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었다. 두 손을 놓고 자신의 집이 점점 잠기어 가는 것을 보아야만 하는 것을 어떤 고통에 비길 수 있을 것인가. 짧은 순간이나마 나 자신만을 생각했던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졌다.

후끈후끈 불어오는 바람과 끈적거리는 땀이 흐르는 것을 참으며 겨우 겨우 공부를 끝내고 교문을 나섰다.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밀쳐지는 만원 버스로 더 피곤해진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다. 선풍기 바람과 함께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는 하루의 피로를 식히며 점점 높아만 가는 온도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었다. 그때 작게 켜 놓은 TV의 영상은 나의 시선을 집중시켰고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나의 예감이 적중해서도 아니었고 그들의 아픔이 다시금 생각 나서도 아니었다. 단지 또 다시 고통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의 분노였다. 나는 그 수해 다음의 상황이 충분히 짐작됐다. TV화면 한편의 '수재의연금'이란 명목 아래 올라가는 숫자들. 연일 방송되는 점점 불어나는 강물과 수재민의 모습들. 이것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다. 단지 1년 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 뿐이다. 이번 수해처럼 예측되는 재난이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다. 침수 지역이라도 달랐다면..... 이번 수해는 지역까지도 똑같았다. 두번 다시는 겪지 않으려는 마음 가짐으로 수해 대비 방책으로 들어간 엄청난 예산은 모두 어디로 증발해 버린 걸까? 새삼스레 내가 사는 이 나라가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비오는 날은 그렇게 나에게 기억된다. 누군가의 말처럼 비오는 날은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운치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 편하게 빈대떡을 부쳐 먹는 날도 아니다. 이번 비오는 날은 다만 아픔을 가지고 온 날일 뿐이다. 영원히 잊지 못할..... 영화속의 주인공처럼 아름답게 맞지도 못하고 그저 비참하게 내리는 그 비를 바라만 보아야 하는 서민들의 비는 그렇게 아픈 기억으로만 간직된다.





애국심

금마초등학교
제6학년
이 은 선

너무나 조용했지만
화려하진 않았지만
영원한 불빛으로 남은
님의 애국심

불교계의 큰 빛으로
시인의 큰 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님

바람 앞에서

꺼질수도 있었지만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의지 하나 만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신
님의 애국심



은상

엄마의 마음

홍남초등학교
제2학년
이 연 지

엄마는 항상 우리가
훌륭하게 되길 바라데요

동화속 어여쁜 공주처럼
말을 탄 용감한 기사처럼

우리를 훌륭하고
착하게 키우고 싶은 맘이

하늘만큼 땅만큼 바다만큼이래요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엄마의 마음은
온통 우리 사랑뿐이에요





비오는 날

홍성중학교
제3학년
이 대 용

지금의 나도 그렇지만 당신도 비오는 날을 싫어했지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데
이 망할 비가 길을 막는다며 그저 울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비가 좋았습니다
마치 물 못 먹은 땅처럼 갈라진 당신의 손을 보면
나는 그저 비오는 날이 좋았습니다

당신이 떠난 그 날도 비가 오고 있었지요
여느 때완 달리 일터로 나가던 당신의 뒷모습은
마치 다시 못 볼 사람을 보는 듯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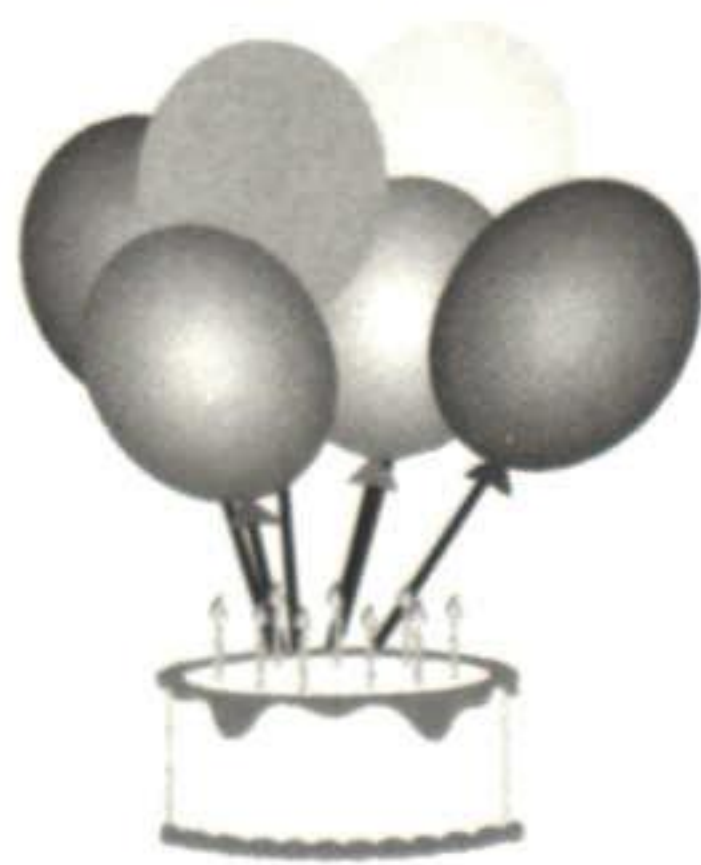
너무나 무섭게도 내 걱정스런 맘은 슬프게 적중하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은 당신처럼

비오는 날이 싫습니다



은상

비오는 날

예산광시중학교
제2학년
김 정 숙

예리한 붓끝으로
그림을 고친다

어두운 색의 나무잎새를
더욱 빛나게 해주고

더러워진 건물의 벽을
깨끗히 바꿔주고

자동차도 깨끗히 고쳐준다
강물에게도 맑은 물을 그려준다

모든 것들에게 그림을 예쁘고 맑게
고쳐주었건마는
사람의 마음은
고칠수가 없었다

창가에 앉아
다시 맑은 물감을 보았다

비는 다시 정착액을
뿌려주며
맑은하늘과 해를
그려주고 사라진다

오랫동안
비가 그려준 맑은 것들을
보고 있자니
나도 맑은 것을
그리리라 생각하며
맑은 물감을 만든다



은상

비오는 날

대흥고등학교
제1학년
김 완 미

비가 내린다
설새없이 떨어지는 물방울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슬픔이 되어버렸다

지난 내 추억들과 함께
떨어지는 빗줄기를 보면서
어느새 나는 생각에 잠겨 버린다

아무생각 없이 홀로 거리를

방황했던 시간들
시련의 아픔으로
괴로워 했던 순간들

어느새 비는 그치고
세상의 모든 슬픔이
하나 둘
씻겨져 내려갔다

맑게 개인 하늘을 보면서
나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일을 약속한다
새로운 추억을 꿈꾸며



은상

비오는 날

복자여자고등학교
제2학년
윤 세 희

알레그로,
승화된 슬픔이 내는 벅찬 숨소리와
낮은 고통으로
비(悲)는 이미 비(雨)가 아니다

그는 공간을 뚫고
허공을 가르는 빗줄기
바람의 힘을 빌어 돌아온
낮은 자의 울먹임
그의 날엔
온통 그리움으로 세상이 젖는다

밤을 새워 닦는 빈 유리창엔
슬픈 울림이 가득하다
무언의 외침
그의 날엔
온통 그리움으로 세상이 울린다

그 누구
손잡아 줄 이 하나 없으랴
스스로에게 하는 공허한 위로는
차라리 기쁨이다

손을 흔들며 웃어도
시원치 않을
계절의 첫하늘이 내린 슬픈 축복,
그 긴여운을 음미하는 어린 생명,
이제 빗속의 그 절정에서
비(雨)는 비(悲)가 된다





심부름

은하초등학교
제6학년
한 명 일

"명일이랑 희진이 할 일 없으면 마당에 있는 풀이나 매라."

"어, 며칠전에도 했는데, 또 하라구요. 싫어요."

"싫어도 그런건 알아서 해야지."

또 할머니의 지겨운 심부름이 시작되었다.

"꼭 그런것은 우리한테만 시켜. 맞지?"

"어쩔 수 없잖아."

동생의 말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호미를 찾아서 마당으로 갔다. 마당에는 어느새 자랐는지 풀이 많이 있었다.

"오, 저걸 언제 다매."

드디어 나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동생은 말없이 마당에 있는 풀을 매고 있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풀을 매기 시작했다.

"어, 이걸 왜 이렇게 안 매지지?"

나는 손에 있는 힘을 힘껏 주고 호미로 풀을 세게 내리쳤다. 그제서야 풀은 맥을 못추고 빠져나왔다.

"어, 이제 나왔네."

안 나오던 풀이 나오니까, 시원하고 재미있었다. 그래서 계속 해보았다. 나는 이제 완전히 풀매기에 재미를 붙였다. 동생이 커다란 풀을 못매고 킁킁거리고 있었다.

"에이, 그것도 못하냐? 저리 비켜봐."

나는 잘 매지도 못하면서 잘난척을 했다. 나는 겨우 그 풀을 뽑았다.

"봐, 이정도 풀이면 나한테 다 맡겨."

나는 겨우 해놓고도 동생에게 우쭐댔다.

동생도 질세라 나에게 대꾸했다.

"오빠, 그 풀 겨우 뽑았지?"

그 순간 나는 가슴이 뜨끔했다.

"아니야. 니가 못하니까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동생이 또 말을 하려고 했다. 그때 할머니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나와 동생은 싸웠을 것이다.

"아직까지 이것밖에 못했냐?"

동생과 나는 마당을 둘러보았다. 풀은 아직까지 많이 있었다.

"어, 이상하다. 많이 맨것 같았는데..."

"할머니가 하는것 잘봐. 이렇게 해서..."

할머니께서 시범을 보여주셨다. 금방 절반이 끝났다. 나와 동생은 할머니께서 보여주신대로 했다. 금방 다 끝났다. 나와 동생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우리는 씻고, 점심을 먹었다. 밥 맛이 꿀맛 같았다. 아마도 일을 하고나서 먹었기 때문에 더 맛있었던것 같다. 처음에는 귀찮게 여겼지만, 나중에는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도 심부름을 열심히 잘해야 겠다.

은상

엄마의 한숨소리

홍주초등학교
제6학년
강 솔

하루, 이틀, 사흘...

와! 이제 개학도 얼마 안남았다!

모두들 방학이 끝나면 아쉬워 하지만 난 마냥 기쁘기만 하다. 방학이 끝나면 귀찮은 두 동생들을 돌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맛벌이를 하시는 부모님으로 인해 난 늘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동생들을 돌봐야 해서 화가난 마음에 난 오늘도 5살이나 차이가 나는 동생과 티격태격 다투기 시작한다.

"언니, 게임기 하자. 응?"

"언니 지금 TV보잖아."

"이 텔레비전이 언니것도 아니잖아."

"요게!"

동생 희진이는 도망가도 나는 잡으러 다니고…….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동생의 실수로 엄마가 가장 아끼시는 도자기가 깨지고 말았다.

이를 어찌! 우리는 깨진 도자기에는 손도 대질 않고 서로의 잘못으로 미루기에 바빴다. 그때 마침 엄마가 돌아오시고 엄마는 깨진 도자기를 보고 무척이나 놀라셨다.

"술아, 조심했어야지! 네 동생들이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쩔뻔 했니?"

"엄마, 그게 아니고……."

"술아,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빌어야지 웬 변명이 그렇게 많아!"

"엄마 ……."

난 내 방으로 도망쳐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무릎위에 있는 손등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자초지종도 들어보지 않고 나만 나무라는 엄마가 너무나 미웠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술아, 저녁 먹어라."

"안 먹어요."

"술아, 요즘 네 동생들 밥도 잘 안 먹는데 네가 안 먹으면 어찌겠니? 나와서 밥 먹어라."

갑자기 화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엄마는 항상 동생, 동생… 동생밖에 모르지? 엄마는 어떻게 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거야? 나도 이제 동생 안 볼꺼야."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틀어 막았다. 그리고는 그렇게 잠이 들어 버렸다.

잠에서 깨어보니 아직은 밤이었다. 배에서 꼬르륵하는 소리가 나서 뭐 좀 먹을까 하고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불이 켜져있는 엄마방이 눈에 띄었고 방 안에서는 땅이 꺼질듯한 한숨소리가 들렸다. 아까 엄마에게 한 말이 떠올라 난 무의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방안에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내뿜으시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엄마, 아까전 일 죄송해요."

"솔아....."

엄마는 한동안 말을 끊으시다가 다시 말을 이으셨다.

"솔아, 엄마는 너희 셋 모두 똑같이 너무나 사랑한단다. 엄마가 너만 혼내고 너만 나무라는것은 네가 언니이기 때문이야. 엄마는 솔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항상 고마워 하고 있어. 엄마 마음 알겠니?"

"엄마....."

나는 엄마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서러웠는지 눈이 부을 정도로 소리내어 울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엄마의 한숨 소리가 나를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는 엄마의 따뜻한 마음인 것 같다.



은상

비가 추적추적 올때면...

공주대부속중학교

제3학년

박 인 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날이었다.

나는 태권도 학원에서 돌아와 막 숙제를 하기 시작하였다. 우중충한 날씨때문인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수학숙제에 몰두하고 있던 나는 문득 인기척을 느껴 문쪽으로 눈을 돌렸다. 거기엔 오랜 주름살이 깊이 패이신 할아버지께서 나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셨다.

"할아버지! 왜요?"

나는 너무나 의아스러웠다. 생전 내가 무엇을 여쭙어 보아도 대답 한번 없으신 할아버지이셨기에, 그때의 다정하고도 인자하신 눈빛은 나에게 많은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시던 할아버지께서는 술을 한잔 하셨는지 걸걸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인애야, 너는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사람 되야

혀. 알았지?"

할아버지의 그 유언 같으신 말씀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하고 대답을 하였다. 그때 나는 할아버지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만 들었을뿐, 그것이 마지막일 줄은 꿈에도 생각못했다. 그리고 나는 살짝 문 사이로 할아버지를 보았다. 할아버지께서는 한일자로 꼭 다문 입술로 담배만 뽀뽀 피실 뿐이었다. 그리고는 이따끔 허공을 멀거니 쳐다보시기도 하였다. 가슴속에 맺히신 한을 담배연기를 통해 길게 내뿜으시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조금은 가슴이 아려왔다. 밖의 하늘은 할아버지의 착잡한 심정만큼이나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순간 내일 비가 올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난 별생각 없이 숙제를 끝마치고 밥을 먹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밤에 잠을 자고 있던 나는 잠결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끼고, 문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내 옆자리에서 주무시던 이모도 없었다. 가만히 문에다 귀를 기울이던 난 그것이 싸우는 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삼촌과 이모가 계셨다. 밤의 어두운 적막을 깨고, 할아버지의 노하신 음성이 들려왔다. 목소리를 떨어가며 자신의 지난 세월들을 한탄하는 소리였다. 옆에 듣고 계시던 삼촌은 누가 들을세라, "그만 하세유. 취하셧어유." 하시며 말리셨다. 이모도 그 옆에서 계속 그만 하시라는 소리를 되뇌일 뿐이었다. 그러나 할아버지께서는 점점 더 역정을 내셨다. 나는 이런일들이 어디서 발단되었는지는 잘 몰랐으나 웬지 할아버지가 측은해지기 시작하였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나 어린마음에도 벼락같은 역정이 무서웠는지 귀를 막았다. 난 이제 제발 그만 하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잠시후 '윽'하는 탁하게 갈라진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막고 있던 손을 빼고 가만히 있었다. 이모와 삼촌의 허둥지둥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모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인애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 무겁고도 침울한 한마디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 걸 느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말씀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왔다. 내가 이러는 동안 할아버지는 구급차에 실려 나가셨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른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보니, 내 예상대로 창밖에는 슬픈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그때까지만해도 어제일이 혹시 꿈이 아닐까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역시 현실은 냉정했다. 내가 자고 있던 큰방에는 병풍이 세워지고, 할아버지의 시신이 병풍뒤에 말없이 누워계셨다. 일가친척들은 금새 모이고 곡하는 소리만이 내 귀에서 앵앵거렸다. 비록 지금까지 할아버지의 다정함이라든가, 추억이 그리 많이 서려 있진 않지만, 그때 난 왜 그리도 슬펐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아마도 할아버지의 숙정때문일 것이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매우 화려하게 치러졌다. 그러나 이미 가셨는데 장례식이 화려하면 무엇하리. 생전에 이만큼 잘해 드리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마당에 놓여진 꽃가마는 정말 예뻐다. 나는 마음 속으로 이 예쁜 꽃가마를 타시고 손을 흔드시는 할아버지를 그렸다. 또 눈물이 흘렀다. 마음속에 할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나는 비에 젖은 관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할아버지는 전부터 죽음을 미리 예감하셨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하지만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비에 젖은 관이 서서히 흙속에 묻히자, 나의 눈물도 점점 사라져 갔다.

벌써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2년이 지난 지금! 난 그날처럼 비가 추적추적 내릴때면 문득 할아버지의 말씀과 비속에 치러진 장례식이 생각난다. 그러면 가슴 한켠이 구멍 뚫린 바위처럼 시려온다. 이것은 어쩌면 당신을 잊지 말라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바램일 것이다.

은상

비오는 날

홍동중학교
제1학년
신 윤 희

내가 3학년 여름의 일이다.

아침부터 비가 오락가락 했다.

"엄마! 우산 가져가요?"

그러자 엄마께서는 "가져가봐."라고 말씀하셨다.

엄마 말을 들을까 했는데 그랬다가 비가 안 오면 괜히 우산만 무거운 것 같아서 집었던 우산을 놓고 집을 나섰다.

집을 나서면서도 '그냥 한번 가져가 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버스를 타니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지?' 내심 걱정이 되었다.

가느다란 빗줄기는 내가 교실에 도착하자 굵어지기 시작했다.

금방 그칠 비가 아니었다.

공부를 할 때도 창 밖을 내다보며 한숨만 쉬었다.

‘집만 가까웠어도 비 맞고 걸어가도 되는데…….’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갈 시간이 가까워지자 걱정은 더욱 되었다.

‘버스터미널까지만 뛰어 가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우르르 쿵쿵 내치는 천둥, 번개소리가 나의 발목을 붙들었다.

할 수없이 책받침으로 머리를 가리고 뛰어가기 시작했다.

‘아침에 엄마 말씀 들을걸’

너무나 후회가 되었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하니,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되어있었다. 너무 창피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꼭 나만 쳐다보는것 같았다. 나는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멀리서 버스가 보였다. 나는 급한 마음에 제일 먼저 버스에 올라탔다. 그리고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았다.

또다시 걱정이 되었다. 우리동네 버스터미널에서 우리집까지 15분정도 걸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비를 맞고 가야할지 앞 길이 막막하고 캄캄한 밤하늘 같았다.

멀리 보이는 우리동네!

가까이 갈수록 몇 명의 아주머니들이 우산을 들고 서있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가 분명히 나를 기다리고 있는걸 꺼야.’ 난 걱정했던 마음을 가라 앉힐 수 있었다.

따뜻이 안아줄 엄마를 생각하며 기분 좋게 버스에서 내렸다. 이리저리 둘러보며 엄마를 찾았다. 그러나 어디에도 우산을 들고 나를 안아줄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너무 속상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와 우산을 쓰고 나란히 걸어가는데…… 엄마가 너무 미웠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 길었다. 동네 아주머니가 주신 우산때문에 내옷은 젖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집에가니 엄마께서는 우비를 입고 계셨다.

나는 입이 나와서는 "학교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하고 방으로 서둘러 들어 갔다.

엄마께서는 "비맞고 왔어! 그러니까 아침에 우산 가지고 가지 그랬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비 올줄 알았나? 그러면 나 데릴러 오지 그랬어요!"라고 통명스럽게 말했다. 이렇게 말은 해 놓고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엄마께서는 내가 한 말이 내내 마음에 걸리셨는지, 나한테 신경을 쓰셨다.

다음날은 비가 그쳤다.

나는 그냥 어제처럼 학교에 갔다. 그런데 비가 또 오기 시작했다. 다시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은 다행히 친구와 버스터미널까지 갈 수 있었다.

버스에 올라서서는 내려서 뛰어갈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다.

버스에서 내려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그런데 뒤에서 내이름을 불렀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뒤를 돌아보니 엄마께서 우산을 들고 나와 계셨다.

"엄마"

나는 엄마에게 달려갔다.

엄마께서는 이마에 흐르는 빗방울을 닦아 주시며, "화 다 풀렸어."라고 말해 주셨다.

순간 엄마께 죄송하고 고마웠다.

엄마께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엄마는 꺾은 빗방울에 벼들이 걱정되어 논에 나가셨던 것이었다. 그것도 모르는 나는 투정만 부리고... 우산때문에 아니, 비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비야, 고마워"

은상

비오는 아빠의 날

홍성여자고등학교

제1학년

권혜영

그날은 처음으로 수박을 경매하러 간 날이었다. 수능을 앞둔 언니의 대학 자금 마련을 위해서라도 올해 유난히 수박농사를 크게 지으신 아빠는 수박 값이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자 결국 수박을 소매 하시게 되었다.

뜨거운 무더위 속에 몸도 가눌수 없었지만 아빠와 우리는 내리쬐는 태양에 맞대응이라도 하듯 묵묵히 수박을 날랐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다. 비라도 내렸다면 좋을 것을 자꾸 날씨만 원망하게 됐다. 수박이 워낙 안팔리는 터라 아빠는 차를 세워놓고 밀차로 파셨는데 나는 차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빠를 따라 다녀야 했다. 그래서 처음 수박을 경매하던 날에도 따라가게 되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경매장에 우리 수박을 진열해 놓고 날이 어둑해졌을때 드디어 우리 수박이 경매에 부쳐졌다. 이해 못할 동작으로 경매가 진행 되고 있었지만 우리 수박을 사람들이

박수박 이라고 부르는 소리만은 똑똑히 들려왔다. 경매가 끝나고 경매가를 물어 봤을때 수박이 큰것이고 작은것이고 모두 합쳐 한통에 800원 이라고 했다. 그럴 수는 없었다. 터무니 없는 값이 아닐 수 없었다. 수박은 아빠의 자식과도 같았다. 동네 사람들이 수박값이 폭락하자 모두 수박에서 손을 뗐지만 아빠만은 밤낮 가리지 않고 수박에 매달리셨다. 결국 아빠는 수박을 도로 집으로 가져 가서야 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아빠는 속상함에 수박을 신지 못하시고 서성거리셨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아저씨를 붙잡고 왜 우리 수박이 박수박이냐며 큰소리를 치기 시작하셨다. 아빠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웅성거림도 시작됐다. 사람들은 전문가적 견해를 들먹이며 계속 우리 수박을 박수박이라고 비난거렸다. 나보다 키가 작으셨지만, 그날은 유난히 아빠가 작게 보였다. 아빠는 결국 제일 좋은 수박 한통을 고르시더니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갈라 보였다.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호기심에 아빠를 쳐다봤고 잘라진 수박은 영낙없는 박수박이었다. 순간 사람들의 조소에 찬목소리가 귀에서 맴돌았고 웃음소리도 들렸다. 속이 상했다. 창피하다기 보단 너무 속이 상했다. 얼마후, 아빠가 보이지 않았고 나는 경매장 밖을 둘러보며 아빠를 찾았다. 그때 구석에서 하늘을 쳐다 보시는 아빠가 보였다. 나는 다가가지 못했다. 가슴이 아려서 나도 하늘을 봤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우리는 지체없이 경매장을 나왔다. 집을 향해 올때 비가 오기 시작했다. 창문이라도 뚫을 기세의 비가 그날 일과 함께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오는 내내 아빠와 나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아빠에 대해 생각했다. 항상 위대하던 아빠가 오늘은 평범하고 작은 아빠로 보였다. 그러나 나는 아려오는 가슴을 힘껏 누르고 마음속으로 힘껏 외쳤다.

"아빠, 힘내세요."

그때도 아빠 눈물처럼 계속 비가 왔다.

은상

님

북자여자고등학교
제2학년
송 설 외

단상 위에 걸려있는 한 승려의 모습이 유난히도 눈길을 끈다.

따사로운 햇살 가득한 솔밭에 누워 지그시 눈을 감고 머릿속에 그 승려의 얼굴을 그려본다.

넓은 이마, 강렬한 눈빛, 야원 불, 굳게 다문 입술……

넓은 이마는 한 없이 넓은 그의 마음을, 강렬한 눈에서는 의지를, 야원불과 함께 굳게 다문 입술은 그의 다부진 성격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한다. 한마디로 초상화 속의 그의 모습은 강인함과 굳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초상화 속의 주인공은 민족 대표 33인의 하나요, 승려요, 문장가이자 시인인 만해 한용운이다.

언젠가 거실 책꽂이 한 구석에서 우연히 ‘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의 넓은

시집을 꺼내 본 적이 있다.

수 십편의 시들 중에서 첫 시부터 마지막 시까지 모두가 한 사람을 향한 염원과 복종, 고백과 맹세로 가득 차 있었다.

부드럽고 따스한 어조와 사랑이 가득 담긴 내용들은 내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었다. 그 후로도 한용운님의 시는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입속을 맴돌았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한용운님의 대표적인 시이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 ‘님의 침묵’의 첫 구절이다.

이 시에서 만해의님은 조국일 수도 있고, 신이나 절대자일 수도 있으며 그가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다. 그 대상이 누구이건, 그 무엇이던간에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님은 다른 누구의님도 아닌 만해 자신만의님이었을 테니까…….

중요한 것은 만해의님에 대한 태도이다. 만해의시 세계는 온통 ‘님’으로 가득 차 있다. 만해의시 속에 존재하는님은 만해 자신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존재임이 분명하다.

한 사람을 향한 지고지순하고 순고한 마음. 그것이 만해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다. 만해는시를 씀으로써님을 찬양하고,님을 찬양함으로써 끝없는 진리를 구하려고 애썼다.

님은 만해의정신적 지주로서 만해의 삶에 그 누구보다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만해에게는 그 자신만의님이 존재했기에 사랑과 지(知)로써 자신만의시 세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가 우리에게 보여 주었던 희생과 사랑의정신은님이 그에게 보여 주었

저멀리 산속 뛰놀던 토끼
강가에서 흐르던 돛단배
길옆에 우두커니 서있는 나무도

더덩실 어깨춤에 흥겨워
주르룩 흘러 내리는 빗 장단 소리에
흥겨워 절로 노래 부른다

그날 푸르던 나무 잎새들
시원스레 닦여진 자기 모습에 반해
저마다 축복속에서
자기 자태를 뽐낸다

동상

님

홍성여자고등학교
제2학년
김 지 예

볼 수 없는 님의 소리
아직도 들리지 않는다

멀기만한 님
소식을 묻지만
표정없는 입가만 더 굳어지고

가끔 멀리 님의 환청이 들려
님 보길 간절하는 나의 손
종이 비행기를 날려
님이 보고 달려오길 빈다

멀리 보이는 안개가
님을 가려
종이 비행기 보고 달려 올 님
나의 발은 가까이를 외쳐
절벽 끝으로 이끌린다

그래도 모르는 님
소식도 모르는 님
받을 줄 모르는 님
주지도 못하는 님
멀리 도망 간다
입을 감춘다

님도 나를 찾다 지쳐
괴로워 하실까
오늘도
나의 시련을 잊은채
님을 찾는다



동상

엄마의 마음

은하초등학교

제4학년

유 리

토요일 오후, 나는 언제나 그렇듯 밀린 총정리를 풀고 있었다.

하지만 연필이 잡히질 않고 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어머니께서는 근무를 마치고 TV를 보고 계셨다. 동생들은 황찬이 방에서 놀고 있고, 아빠께서는 노트북으로 뭔가를 하고 계셨다.

갑자기 짜증이 났다.

나만 공부한다는 생각에 평소에 즐기는 책도 읽고 동생들과 놀며, TV도 보고 싶었다. 그리고 한문제 풀고 몇장 남았는지 세어보고 또 세어보기를 반복했다. 그러면서 왜 총정리를 샀을까? 왜 귀찮게 이런걸 사서 풀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총정리를 풀지 않을 수 있나를 생각했다. 그러다 난 생각했다.

답을 베끼기로.....

맨 끝을 찾아보니 다행히 답안지가 있었다.

나는 답을 베껴 쓰려 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힘들게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답안지 보고 베끼면 얼마나 쉬워’ 하는 마음과

‘안돼. 그러면 안돼. 네 실력으로 총정리를 풀어야지 답안지를 보고 쓰면 총정리를 푸나 마나야.’ 하는 마음이 싸웠지만 답안지를 보자는 마음으로 기울었다.

나는 곧 답안지를 베끼기 시작했다. 그러길 여러번. 계속 그러다 난가척 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보았다.

어머니께서는 나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 엄마가 총정리 풀렀지, 답안지 베끼랬니?"

어머니께서는 나를 붙잡고 거실로 가서 혼내셨다.

"힘들면 쉬면되지, 왜 답안지를 베끼니?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하시며 자로 나를 때리셨다.

총정리를 푼 후 저녁을 먹고 일기를 쓴 후, 자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들리는 쪽에 가보니 어머니께서 울고 계셨다. 나에게 실망하신 것과 나를 잘못 가르쳤다는 죄책감으로 흘리는 그 눈물을 난 보았다. 난 느꼈다.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엄마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다.

그뿐 아니라 나의 공부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그런데 나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번 괴롭혔다.

정말 죄송했다. 나 때문에 우시다니…….

나는 엄마를 사랑한다.

엄마의 마음을 알겠다.

나에게 많은 기대를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따뜻한 마음을…….



동상



심부름

홍남초등학교
제4학년
박 혜 림

"스르륵, 스르륵"

책장 넘기는 소리만이 내 방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덜커덕'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나는 깜짝 놀랐다. 문을 열고 들어 오
신 분은 다름아닌 어머니였다. 어머니께선

"혜림아, 두부 좀 사다줄래. 찌개를 끓이려고 하는데, 두부가 없구나.
빨리 좀 갔다와 줄래"

나는 솔직히 가기가 싫었다. 내가 왜 갔다와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이
다. 그래서 어머니께

"저 지금 책 읽고 있어서 가기 싫은데요. 동생 시키세요. 아니면 어머
니께서 갔다 오시든지요."

하고 말씀드렸다.

"지금 엄마가 갔다 오고 싶은데 바빠서 그런단다. 거스름돈은 네가 사고 싶은 것 사고 한번만 갔다 와줄래?"

나는 못 이기는 척 하고 슈퍼로 향했다. 처음에 가기 싫었던 마음과는 달리 기분이 좋고 편했다. 거스름돈 때문이 아니었다. 기분이 훨훨 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심부름을 부탁하는 쪽이 공손하게 부탁을 하면 기분이 좋아 금방이라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강요하는 투로 말하면 쉬운 것이라도 하기가 싫을 것 같다.

‘그럼, 내 동생은 나의 심부름이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

나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하지만 좋지 않을 때에는 아주 쉬운일이라도 동생에게 시키곤 했었다. 동생은 그때마다 잘 해주었었다. 나는 내가 심부름을 하기 싫어 해서 심부름이란 귀찮고 안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틀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도 자신이 진정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상대방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과 같은 일일 것이다 그러니 심부름을 해주는 일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인 것 같다. 그리고 심부름은 참 값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제부터 언제나 심부름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해 줄 것이다.



어머니의 마음

광동초등학교
제4학년
이 창 경

나는 엄마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안듣는 것도 아닌 보통 그렇고 그런 엄마의 첫째딸이다.

그러던 어느날 엄마를 속상하게 해 드린일이 생겼다. 나와 내 동생 지은이와 재미있는 놀이를 하다가 그만 내가 실수로 지은이를 발로 차서 책상에서 떨어진 것이다. 지은이의 코에서 피가 흐르고 지은이의 작은 손이 무릎을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한 순간 나의 작은 실수에 지은이가 아파 한다는 것이 나에겐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다. 곧 지은이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오신 엄마는 전과 달리 미소를 지으시며

"창경아, 조심해야지. 지은이도 언니가 일부러 그런거 아니니까 울지 말고."

‘엄마가 왜 화를 내시지 않으시는 걸까? 왜지?’

나는 엄마방 문앞에 서서 방 안에서 나는 소리를 엿들었다. 방안에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곧 나는 방안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다. 나는 우리동네가 환히 다 보이는 우리집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엄마가 내가 오기전에 옥상에 올라와 계셨다. 나는 살그머니 엄마 옆으로 다가갔다. 나는 아까 전에 왜 화를 안내셨냐고 물어보았다.

엄마께서는 잠시후

"엄마는 너희들을 착하고 예쁜딸로 키우고 싶어! 그러니 엄마도 너희들의 본보기니까 되도록이면 꾸중하지 말아야지."

그러시고 잠시후 다시 말을 이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싸우지만 말고 서로 양보하고 사랑 해야돼."

나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네"

나는 소리를 지르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지은이도 코에 휴지를 넣고 올라왔다. 지은이는 엄마와 내말을 엿들었다는 듯이 눈물은 더이상 흘러 내리지 않았다. 엄마와 지은이와 약속했다. 지은이와 나는 싸우지 않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기로.....

나는 깨달았다. 엄마 아빠는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우리가족이라는 것을.....



동상

비를 맞고 싶은 날
『비 오는 날』

홍성여자중학교
제3학년
김 세 영

수없이 많은 비가 쏟아졌다.

모든걸 삼켜버릴 듯한 기세로 그렇게 수많은 비가 내렸다. 견우와 직녀는 뭐가 그리 서럽고 슬픈지 한시도 쉬지 않고 울어대기만 했다.

그렇게 억센 빗줄기는 집도, 차도 다 휩쓸어 가버리더니 사람들의 희망까지도 휩쓸어 버렸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 착한 사람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이다.

어렸을때 비가 참 좋았다.

노란 고무장화를 신고 오는 비를 다 맞아가며 첨벙거리면서 비오는 날을 즐기곤 했었다.

그런데 언제 부턴가 비오는 날이 싫어지기 시작했다.

그게 언제부터였는지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처음 “천둥번개”라는 것을 알고부터 였던것 같기도 하고 우산속으로 들어오는 비 때문에 옷이 젖는다는 것을 알고부터 였던것 같기도 하다.

초등학교 저학년때의 일이었다.

아침엔 맑았던 하늘이 학교수업 모두 마칠때쯤 어두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세찬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우산을 안가져온 나는 슬슬 걱정이 됐다. 벌써 밖에는 우산을 가져오신 엄마들이 아들 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가 직장에 계셔서 학교에 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은근히 엄마를 기다렸는데 괜한 기대였다.

우산을 가져온 친구가 같이 가자고 했다. 친구 우산을 같이 쓰고 교문을 막 나서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불렀다.

뒤돌아 보니 우리 할머니였다.

기쁘긴 했지만 왠지 모를 실망감에 기분이 나빠졌다.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오시는데 왜 나만 할머니가 오셔야 되는지……. 철이 없어서 였을까. 그땐 왜 그리도 할머니가 창피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가 정말 고맙고 또 죄송스럽다. 그때 할머니께서 가져오신 우산이 아니었다면 친구의 우산 밖으로 반쯤나온 어깨를 빗물에 다 적셔야 했을 텐데…….

초등학교때 그렇게도 싫던 비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비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다. 가끔 어렸을적 처럼 빗속으로 들어가 침병거리면서 흠뻑 젖어 보고도 싶다. 그렇지만 이젠 내가 너무 커버린 탓인지 선뜻 그렇게 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 어릴적 나처럼 너무나 천진스럽게 노는 조그마한 아이들을 창밖으로 내다보며 대리만족 하는게 전부다.

그런데 몇해전 부터 더 굵고 세차진 비를 보면 무서워진다.

혹시나 다시 내가 비를 싫어하게 될까봐 또 사람들이 점점더 희망을 잃어가게 될까봐 두렵다.

하지만 난 알고 있다. 아무리 모질고 세찬 비바람도 사람들의 마음 한 구석에 조용하게 자리잡고 있는 자그마한 희망은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걸.....

나도 이제 한번쯤은 비를 맞아 보고 싶다. 그 비로 인해서 내마음의 찌든 때를 씻어낼 수 있다면 하루종일이라도 흠뻑 비를 맞아보고 싶다.

하늘에서 내리는 건우와 직녀의 눈물이 아니어도 좋다.

누군가가 내 맘에 비를 뿌려줬으면 좋겠다. 그 빗방울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릴적 그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숨쉬기조차 힘든 억센 빗방울을 뿌려줬으면 좋겠다.

비를 맞고 싶은 날이다.

새로 태어나고 싶은 날이다.



❖ 동상 ❖

어느 일요일

광흥중학교
3학년
장 형 수

“어휴, 더워!”

어느 무더운 여름. 땀에 흠뻑 젖어 몸이 무거울 정도 짜증이 났다. 더구나 오늘은 일요일이라 폭 쉬는 줄 알았더니 할머니께서 우리 가족에게 줄 것이 있으시다며 막내인 나보고 버스 정류장에 나오라고 전화를 걸으신 것이다. 밖으로 나온 나는 아스팔트 위에 이글거리는 아지랑이를 보고 투덜댔다.

“우리 옆집은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갔다고 하는데 이런 황금같은 일요일에 피서는 커녕 뜨거운 태양 아래 땀 흘리는 형편이라니 정말 내 모습이 처량하다.”

그렇게 마음과 표정을 온통 찌푸리다가 언뜻 고개를 돌려보다 트럭에

서 과일장사를 하시는 할머니를 보게 되었다.

얼굴에는 주름이 많이 지시고 마른 체형이 아니신 그 할머니는 편안하신 모습의 미소를 띠시며 내리쬐는 햇볕에 동화하신다는 듯이 땀을 흘리시면서도 조금도 싫어하는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

‘저 할머니는 덩지 않으신가?’

몇 분이 지나자 그 할머니에게 과일을 사려는 손님이 왔다. 그 할머니는 얼른 트럭에서 내려 오셔서 친절하게 과일을 파셨다.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햇볕에 달구어진 아스팔트에 맨발로 서 계신 그 할머니의 모습은 정말 위대함 그 자체의 모습이었다.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그 할머니의 손자는 가난한 티가 엿보이지 않았다. 땀에 절고 햇빛에 바랜 노란색 원피스를 입으신 할머니와는 대조적이었던 것이다.

그 할머니는 손자에게 잘 익은 빠알간 복숭아를 주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는 행복한 모습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다. 조금전의 찌푸렸던 얼굴이 금새 환한 모습으로, 기쁨에 찬 웃음으로 바뀐 것이다.

“형수야!”

할머니께서 나를 부르셨다. 바로 나의 할머니께서 오신 것이다.

“할머니!”

나는 얼른 달려가 할머니의 주름진 두손에 있는 무거운 붓짐을 들었다.

“할머니, 오늘 진짜 덥죠.”

“그래, 엄청 덥구나!”

할머니 역시 붓짐 속에 과일이 가득했다. 소나기처럼 내리는 땀과 함께.

할머니께서는 요즘 과일 농사를 하신다. 그것은 나와 형이 과일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이다.

더운 날에도 우리를 위해 진땀을 흘리시며 고생하시는 우리들의 할머니의 모습을 우린 감사해 하며 보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힘들게 일하여 땀에 젖은 옷이 냄새가 난다 하여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듯 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

“할머니께서 흘리시는 그 땀의 의미는 우리들을 위한 사랑이요, 피땀 흘린 노력의 결정체는 우리 할머니께서 가지고 오신 과일들이에요.”

라고 말이다. 우리는 지금 덥다고 짜증내며 투덜거릴지 모르지만 오늘도 역시 손자, 손녀들을 위한 위대한 노력을 하시는 할머니들을 본다면 더위를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항상 우리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할머니들. 이번 일요일을 계기로 할머니들의 포근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일요일마다 과일을 가득 담은 봉지를 주름진 두 손에 가지고 오시는 우리 할머니는 8월 15일 일요일인 오늘도 어김없이 잘 익은 사과나 복숭아, 딸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중학생이 되어서야 알게된 그 사랑은 내 가슴 속 깊이 새겨져 잊혀지지 않을 행복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젠 폭 쉬는 일요일이 아닌, 사랑을 받는 행복한 일요일이 된 것을 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짜증나던 더위도 너그럽고 포근한 사랑으로 잊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비 오는 날

송산중학교
제1학년
이 아 름

한가로운 일요일 외가 쪽 친척들이 놀러 오셨다. 방학 때마다 보기 때
문에 너무 반갑고 신났다.

가족 모두가 둘러 앉아서 내일 떠날 피서 계획을 의논했다. 내 또래의
친척 애들은 오랜만에 내방 구경을 해서인지 신이 나 있었다.

“야! 넌 해수욕장에 가면 뭐가 제일 보고 싶어?”

“응 난 밤에 바닷가에 나가면 파도에 무언가가 출렁이며 반짝이는
것”

우리들은 그렇게 들떠 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렸다.

드디어 아침 눈을 비비며 부시시하게 일어나니 빗소리가 들렸다. 갑자
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창밖을 보니 어젯밤의 꿈들이 사라지고 말았

던 정신과 일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해의 사상적, 정신적 지주로서 자리잡고 있는 님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요, 시인이요, 선구자인 만해 한용운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었다.

만해 자신에게 자신만의 님이 존재했듯이 나에게 있어서 님은 만해 한용운 자신이다. 나는 그의 아름다운 시 세계를 동경하고 단아하고 깨끗한 그의 삶을 사랑하고 공경한다.

다시한번 파란 하늘을 올려다 본다. 유유히 흘러가는 희뿌연 구름들 속에 그의 모습이 그려진다.

강인함속에 서려있는 따뜻한 미소가 하늘에 번져간다.

만해 한용운.

그는 이미 갔지만 나는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심부름

홍주초등학교
제4학년
김 수 아

수아야!
복사 좀 해 와라.

그냥그냥
참고
심부름 하지만

내마음의
얼굴은
찌푸러져요

재미있는
만화영화 보다가도
수아야!

신나게
놀다가도
수아야!

심부름 하고
돌아오는데

수아야!
수고했다.
하시느
우리엄마

찌푸려졌던
내 얼굴에
웃음꽃
활짝 핀다.





어머니 뒤에 숨은 마음

천수초등학교
제4학년
박 나 늬

어머니 뒤에
꼭꼭 숨어있는 마음
사랑과 소망으로
꽉 차 있는 마음

슬프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어머니의
솔직한 마음

숨바꼭질 하듯이

꼭꼭 숨다가
슬쩍 나타나는 마음

경건한
어머니의 밤 기도 소리에
숨었다 나타나는
그 사랑스런 마음

지금도
어머니는
두손 모아
나를 위해
기도 하겠지





동상



엄마의 마음

홍남초등학교
제2학년
오 승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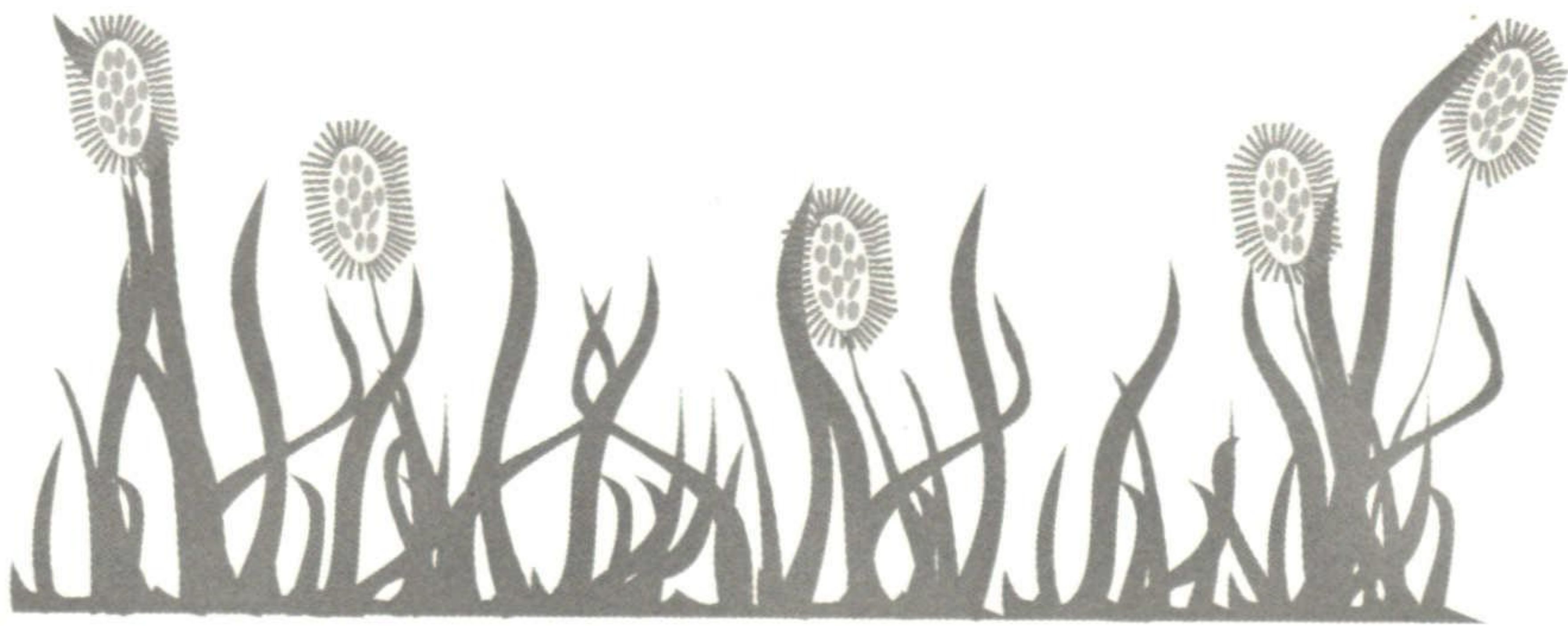
퇴근 하고 돌아오면
책읽어 주시고

일요일엔 손잡고
등산도 가고
방학에는 놀이동산
놀이 가지요

잠잘때는 자장자장
재워 주시고
아플때는 곁에서

밤을 새지요

엄마의 마음엔
사랑이 가득



동상

님

예산중학교
제3학년
조 강 민

님은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던
님이 돌아 왔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하늘 가린 가시나무
뿌리 채 뽑아내어,
님이 돌아 오고야 말았습니다

끊이지 않는 눈물이 흘러
강이 되고

만세 소리가 대북을 이뤘던
그 날이 돌아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 기뻐
뽕과리를 들고 나가
한바탕 눈물 연주를 한
그 날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이님을 보내지 않았기에
당신의 영혼의 눈물과 함께
님은 돌아 왔습니다

당신이님을
너무나도 사랑 했기에
님은 결코
떠나시지 못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 날 입니다
당신의 온몸을 바치고
뼈와 살을 갈며 기다린
님이 돌아 오신 날입니다





동상



비오는 날

홍주중학교
제1학년
이 지 훈

왠지 모르게 비오는 날의 내머릿속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떠오른다

아픔을 마음으로 삼키시고
눈물도 마음으로 흘리시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어머니의 사랑

깊은 바다, 높은 하늘 보다는
더 깊고 높으신 어머니의 사랑

난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내 맘속에
영원토록 간직하고 싶다

비오는 날이면 언제나 내 머릿속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떠오른다





비오는 날

예산광시중학교
제1학년
윤 경 아

마당에 말린 고추가
다 젖어 버릴까봐
할머니는 걱정하시는 눈빛으로
창 밖을 바라보시곤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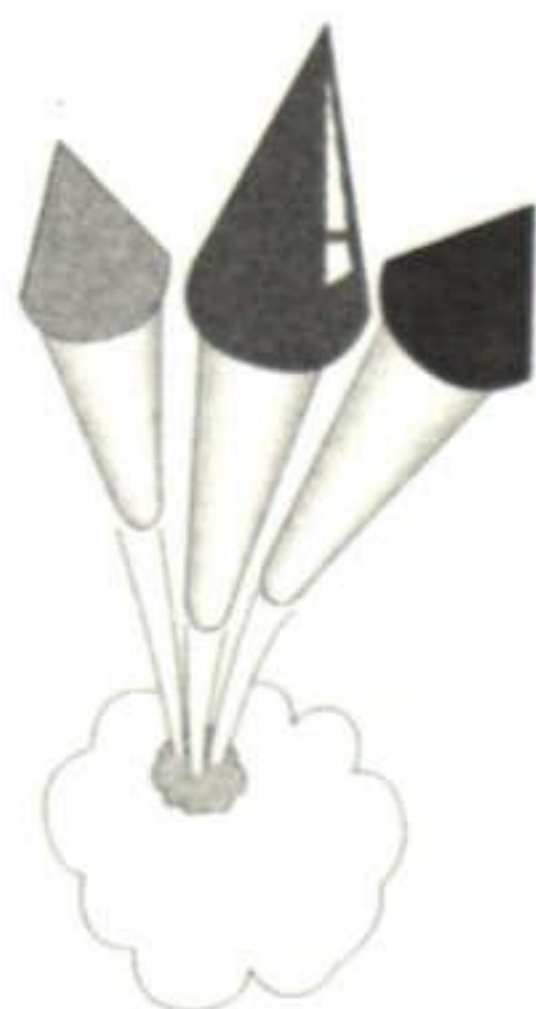
할머니의 초라한 모습에
친구들에게 숨기고 싶었던 나는,

마음으로 소리를 듣고
손으로 말을 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창피했습니다

아직은 친구들에게
나의 할머니를 소개하긴 싫지만
꼭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내 눈엔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 집에 찾아오는 친구들은
우리 할머니가
병어리라는 사실에
놀려대고 비웃습니다

비가 오는 날
그토록 생각나던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후회를 합니다
햇살이 그림다고
할머니께서 안고온
따뜻한 햇살이 그림다고...





비오는 날

홍성고등학교
제1학년
이 상 민

비오는 하루
나의 침묵속에서
내 눈에 내리는 비

7년전 오늘
나의 가슴속에서
빛으로 사라진 너

눈물의 의미
시리도록 차가운 너의 모습과
쓸쓸히 남겨진 그대의 사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님의 침묵속에서 피어 오르던
연기의 의미를.....

님과 이별
그때도 오늘처럼
서럽게 내리는 빗속에 파묻혀
우산속에 그치지 않는
작은 슬픔이 되었던 나

빗물인지 눈물인지
슬픔인지 아픔인지
모를 그리움이 나를 감싸면
어김없이 내 눈에 내리는 슬픈 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외로운 내 눈물의 나날들

잊으려 몸부림쳐도
가슴 한 구석에
깊숙히 되새겨 지던
그대의 존재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비오는 날

결성공업고등학교
제1학년
정 희 철

무덥던 여름날
지나가던 나그네
마을 담장 및 강아지들도
그리던 날이다

푸르던 하늘이
금새 나를 집어삼킬듯
무서운 얼굴빛을 띄며
조금씩 땅에 내리운다

그런날은

다.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생각할 정도로 장대 같은 빗줄기가 그칠 생각이 없이 쉬지 않고 내렸다.

우리들은 실망과 함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심심해서 TV를 켜보니 파주 지역이 침수된 광경이 나왔다. 그순간 피서 갈 생각이 사라졌다. 파주지역은 침수가 되어 지붕만 보이고 높은 곳에서 구조되는 사람들을 보니 너무 안타까웠다. 침수된 파주 지역을 보니 작년 여름이 생각났다. 당진시내는 파주처럼 물난리가 났었다.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쓰레기 지독한 냄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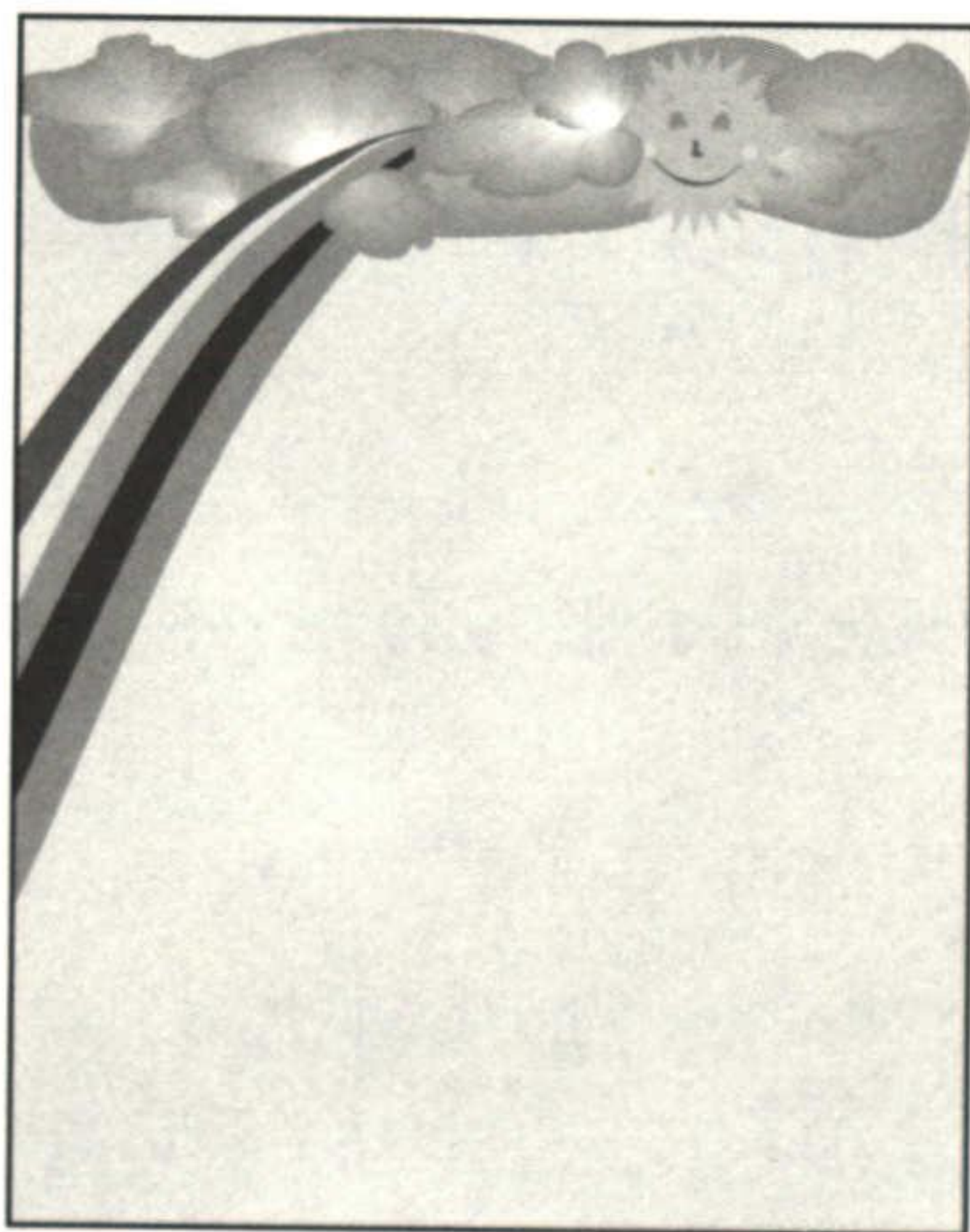
하지만 이번엔 당진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들께서 당진천의 물이 점점 올라가고 빗줄기가 힘차게 내리는 중에도 더이상 당진천이 넘치지 않도록 밤에 작업을 하셔서 당진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TV에 나오니 고맙고 자랑스럽다. 친척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가시고 뉴스를 보았다. 수해 지역 주민들은 울먹이는 얼굴로 물에 잠겼던 물품들을 세척하고 계셨다. 난 가슴이 뭉클했다.

어떤 피해주민이 인터뷰를 하면서 말했다. “남편이 퇴직하고서 장만한 에어컨과 새 냉장고가 다 고장났어요.” 하고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수재민을 돕기위한 전화를 했다. 수재민들이 너무 가여웠다. 집도 살림도 모두 물에 젖어서 쓸모 없어지고 또 가족까지 잃은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니 내 가슴도 아팠다. 이렇게 그칠 줄 모르는 비가 갑자기 너무 원망스럽고 싫어진다.

일년동안 지은 농사도 그렇다. 아직 익지도 않고 달려있는 사과와 배, 여러가지 농작물들은 태풍 때문에 모두 떨어지고 상처를 입었으니 농민들의 한숨도 끝이 없는 것 같다. 비 오는 날이 언제 끝날지…….

어서 빨리 복구작업을 해야 할텐데... 변덕스런 비 때문에 복구 작업도 순조로이 안되고 있는 것 같다. 가수들이나 탈렌트들도 백화점에서 옷도 팔아주고 군인 아저씨들이나 119 소방 대원들도 열심히 복구작업을 도

우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하고 서로를 위할 줄 아는 모습이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리고 수해가 생겼을 경우 빨리 물이 빠지고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도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지지만 지금도 복구 작업은 한창일 것이다. 이런 악몽같은 비 오는 날 보다는 농작물에게 영양분도 되고 먼지도 흘려 보내주는 그런 비 오는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 맑고 따뜻한 날이 오고 무지개가 있는 그런 비 오는 날을 바라며.....



동상

비 오는 날

복자여자고등학교
제2학년
염 승 숙

방학인데도 책과 그리고 더위와 씨름하는 날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오늘도 자율학습이 끝난 오후 다섯시 쯤. 교문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다. 내딛는 걸음 하나 하나에 피곤함이 묻어난다.

바람이 이마를 쓸고 간다. 내리쬐던 햇볕이 차츰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금새 검은 구름이 몰려와 해를 덮고 세상을 에워싼다.

‘비가 오려는 건가. 변덕스럽기는.’ 아침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일기예보를 보고 우산을 챙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에 교문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자연스레 빨라진다. 하늘이 금방이라도 울먹일 듯 새침하다.

그렇게 나는 교문을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문 밖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 삼삼오오 떼지어 걸어가는 사람들과 뺑뺑대며 서로 먼저 가겠다고 부산을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싸이렌도 울지 않는 차를 도로에 세워둔 채, 경찰은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지나가라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사람들 틈에 끼여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면서 나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싸늘한 기운에 몸을 떨었다. 그 다음에 내가 보게 될 것은 생각지도 못한 채 그저 눈만 꿈뻑였다.

그런데, 그 때였다. 뚝뚝... 뚝뚝뚝... 북소리와 함께 들려온 고함소리가 내 심장을 조여들었다. 해는 이미 자취를 감추어 버린지 오래다.

‘강제사직 웬말이냐, 부당해고 철회하라’

붉은 띠를 둘러맨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몰려오고 있었다.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후들거리는 두 다리로 애써 버티고 서서 그들은 그렇게 온몸으로 절규했다. 그들의 쉼 목소리가 망치가 되어 내 가슴에 깊이, 대못을 박는다. 나는 점차 조여오는 내 심장을 어찌할 수 없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 마저도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다.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이며 그들은 어떠한 심정일까. 당장 한끼의 저녁식사와 잠잘곳을 걱정해야 하는 그들, 추위와 배고픔이 아닌 실패와 절망감에 몸서리치는 그들에게 나는 무어라 이야기해야 하는 것일까.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우리 다함께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 이야기하는 나를, 그들은 증오의 눈초리로 쳐다볼 것인가. 나는 그것조차 두렵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뛰어서라도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무언가라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입술이 움직여주지 않았다.

빗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질때쯤, 나는 이미 교문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주룩주룩, 장대비가 쏟아진다. 교문 밖 세상의 서러움을 끌어안고 온

나를 위로하듯, 하늘은 더욱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

가녀린 풀잎들도 그 풀잎 뒤로 숨은 어린 민들레 꽃도 서러운 빗줄기에 놀라 움츠러든다. 그래 퍼부어라, 더 퍼부어라. 이렇게 퍼 붓고 나면, 슬픈 아픔들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 그런 이들로 가득찬 숨막히는 세상이 조금은 씻겨지겠지. 하지만 이내 짧았던 내 생각이 부끄러워진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가여운 이들이 갑작스런 장대비로 허둥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내가, 아직은 그들과 공존할 수 없고, 공유할만한 그 어떤것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에 나는 비참해진다. 하지만 나는 이야기하고 싶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우리 모두 다같이 부둥켜 안고 절대 쓰러지지 말자고 작지만 용기있게 외치고 싶다.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고, 여기서 쓰러지기에는 살아야 할, 살아내야 할 시간들이 아직은 너무 많다고.....

빗방울이 차츰 헐거워진다. 문득, 수산나 타마로의 ‘마음의 공원’이라는 책의 한 구절이 생각난다.

‘그에게 세상은 매우 멀고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세상이 그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남아있는 빗방울마저 떨구어내는 새파란 잎사귀가 싱그럽다. 투명한 맑음을 자아내는 하늘 위로 새 한마리가 날아 오른다. 우리의 소중한 바람이 키워 낸 희망의 새요, 미래의 길조다.



 동 상

비 오는 날에 비를 맞으면

홍성고등학교
제1학년
진 명 환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걷는 것은 너무나 낭만적인 일이고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이다. 오늘 같은 날은 비라는 것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비를 맞는다면 목적지가 없어도 너무 좋은 것 같다. 그 옆에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홀로 걷는다 하더라도 그 비를 맞으며 걸을때에 생각하는 것들은 자기 마음속에 깊이 차지해 순간순간 마다 그 생각했던 것들을 떠올릴 것이다.

내가 맞으며 걷고 싶은 비는 태풍과 같이 성나게 내리는 비가 아니요, 이슬비처럼 짜증나는 비도 아니요. 나의 마음과 몸과 잡다한 생각들을 깨끗히 씻을 수 있는 그런 비를 나는 맞고 싶다. 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낭만이 있고 순수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인것 같다. 비를 싫어하는 사람

의 이유는 많다. 집에서 나가는 것이 귀찮다라든지 우산을 들고 다녀야 한다든지 옷이 젖는다는 잡다한 이유로 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유들을 무시해 버리고 비속을 걸으며 많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어떠한가 시련을 당했더라도 그 시련을 이겨 내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시련도 여러가지가 있을 텐데 혹시 사랑에 대한 시련이 있을수가 있겠고 사업의 실패, 성적이 떨어졌다든지 하는 시련이 있을 것이다. 그 시련을 이겨내려면 자기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머리속에 정리하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가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잊지 않고 성공하고자 하는 집념을 나타내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비오는 날에 비를 맞는 사람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산을 가져오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역이용해서 시련을 이겨내고 고민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다. 비를 맞으며 만약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눈물이 빗물인지 콧물인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창밖에서 비가 오는 것을 사람들은 여러가지로 생각할 것이다. 가뭄속에서 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고마운 생명같은 비요, 비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사이에는 이 징그러운 비 또 오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창밖에서 비가 내려오는 소리가 내 귓속에 들려온다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고마운 비가 오는구나라고 반갑게 맞이하고 싶다. 비가 태풍이라면 비속을 걸어다니다 검푸른 바다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겠지만 그 비가 적당하다면 마음을 다시 정리해보고 비를 맞다가 몸이 병이 걸리더라도 마음속에 귀한 것을 얻었으므로 만족하고 싶을 뿐이다.

나는 기다릴 것이다. 나에게 시련을 큰 힘으로 바꿔주는 비오는 날을 ...

 동 상

비 오는 날

홍성여자고등학교

제1학년

전 유 리

어둠이 자욱히 깔린 밤.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또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어둠속에 빛나는 보석같이 사람의 마음을 황홀하게 해 주는 별을 보면 깊은 잠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주위엔 온통 어둠뿐이지만 하늘을 올려다 보면 별과 내가 하나가 된 느낌이다. 별이 내가 되고 내가 별이 되어 마음속에 묻어 두었던 생각을 펼쳐버리면 금방이라도 새처럼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별을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얼마전 통신에 펜팔친구를 찾는다는 글을 올린적이 있었다. 손으로 직접 쓰는 것도 좋지만 컴퓨터란 통신매체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부풀었다. 별을 좋아하고 관심있는 친구를 찾는다는 글을 쓰고 나와서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았다.

좋은 친구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날 컴퓨터를 켜고 들어갔을때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같은 또래 남자친구가 눈에 띄었다. 프로필과 소개서를 살펴보니 웬지 별과 같은 순수함이 묻어나는 친구 같았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를 만났다는 것이 너무 기뻐다. 채팅방에서 처음 만났을때에는 별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없었고 그뒤로도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친구와 만난 다음부터 별에 대한 관심이 더해갔고 별에 관한 책을 보면서 밤을 새기도 했다. 별자리에 대한 전설을 읽고 잠이 들때면 내가 별자리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우리는 약속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자리를 찾아서 서로에게 말해주기로.

“오늘은 어떤 별자리를 찾았어?”

“물고기 자리, 바로 내 별자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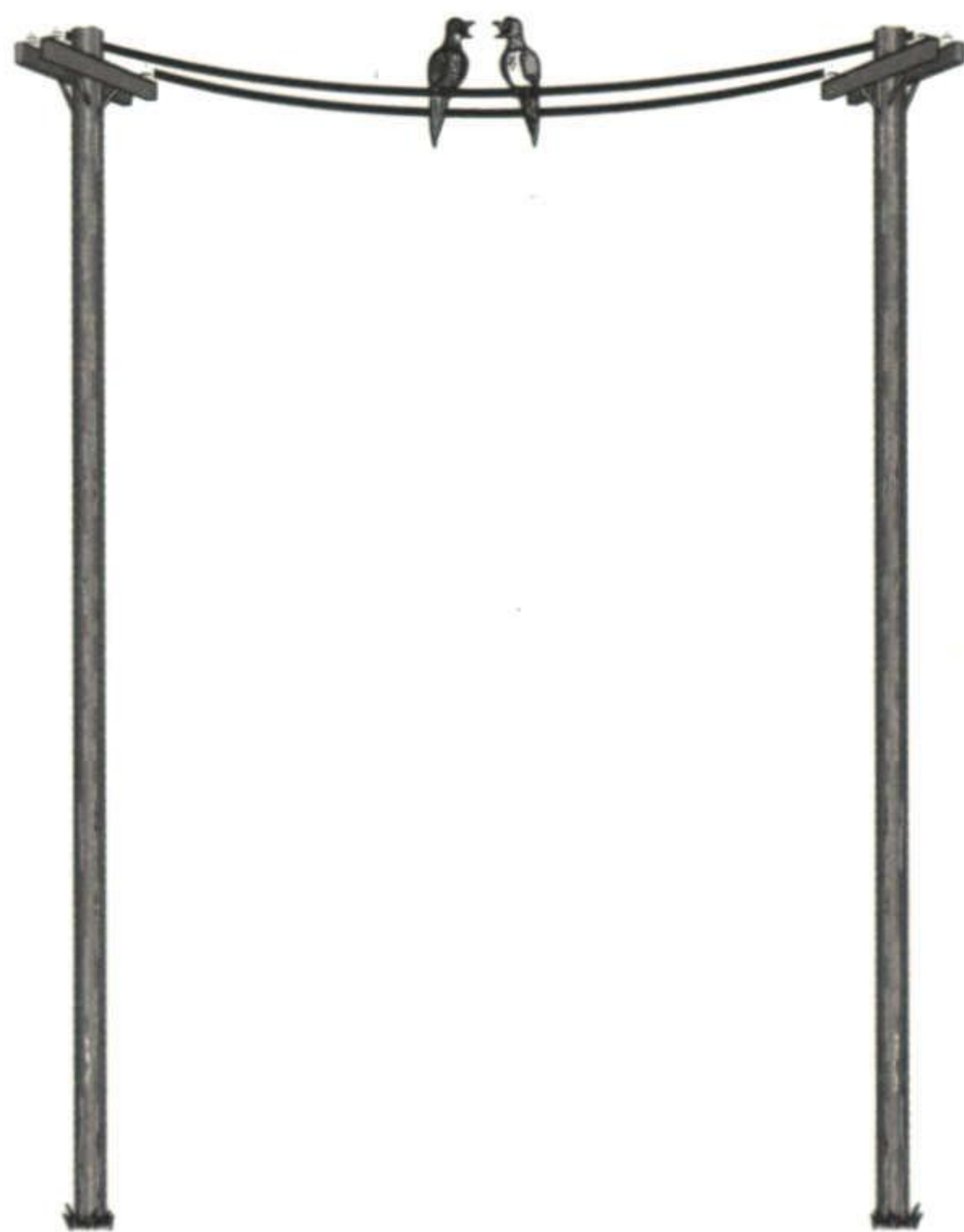
“그럼. 내가 별점을 봐줄게.”

책에 나온 별자리 점을 찾아서 자세하게 적어 주었다. 컴퓨터 모니터에 적혀지는 글을 보면서 친구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적어주면서 챙겨주고 나쁜내용이 적혀있을 때면 조심하라는 말까지 해주면서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라서 부담감이 느껴지고 불편할 것 같았지만 오랫동안 사귀 친구처럼 친근감이 느껴졌다.

그 친구는 별에 대한 내용이외에도 내 고민을 잘 들어 주었다. 친구문제로 고민하고 있을때 그 친구에게 편지를 보낸적이 있었다. 다음날 답장을 받게 되었는데 자기일처럼 걱정해주고 위로의 말을 적어 주었다.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친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더해 갔다. 아마 그 친구는 별의 마음을 닮은 어린왕자일 것이다. 컴퓨터로 만나는 친구이지만 언제나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친구보다도 친근감이 느껴진다. 그 친구와 만날때면 어릴적에 읽었던 어린왕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이다. 아마도 별이 맺여준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친구에게서 편지가 왔다. 별소나기가 내리는 날 같은 시간에 나가서 구경하자고 그래서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드디어 별소나기가 내린다는 그날이 되었다. 아침부터 설레이는 마음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저녁때가 되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씩 내리게 시작했다. 창밖을 보면서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렸지만 비는 더 거세게 내렸다. 캄캄한 밤에 내리는 비를 보면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비오는 날이 싫다고... 그 친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장려상

엄마의 마음

용봉초등학교
제6학년
유 은 주

누구보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누구보다 나를
위하고 보살피는

누구보다 나를
믿어주는 엄마

누구보다 나를

총명하게 지혜롭게

누구보다 나를
자랑스럽게...

그렇게 만들꺼야
그렇게 만들자고

다짐, 또 다짐하며
가르치는 엄마의 맘

나도 엄마처럼
나도 위엄있게

멋있게 가르칠거야
나중에 엄마되어



장려상

몰랐습니다.

홍주초등학교
제6학년
최 나 영

과자살 돈달라고
조르는 제게
엄마가 쥐어주신
오백원짜리 동전 하나...

“좀 더줘! 좀 더줘!”
라고 조르면
돈은 주시지 않고
웃기만 하시는 엄마...

그 때는

엄마가 미웠습니다.

어느 날,
배가 고파
몰래 열었던
엄마의 지갑,

그 속엔
10원짜리 7개만 달랑,
그 동전에
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내게 주시려고
아껴둔 두부 살 돈을
주셨다는 걸...

전 몰랐습니다.
엄마의 웃음 속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을지...

이제는
엄마가 좋아집니다

이제는
엄마에게 죄송해 집니다

장려상

심부름

은하초등학교
제3학년
조 아 라

콩나물 한 봉지 사와라
엄마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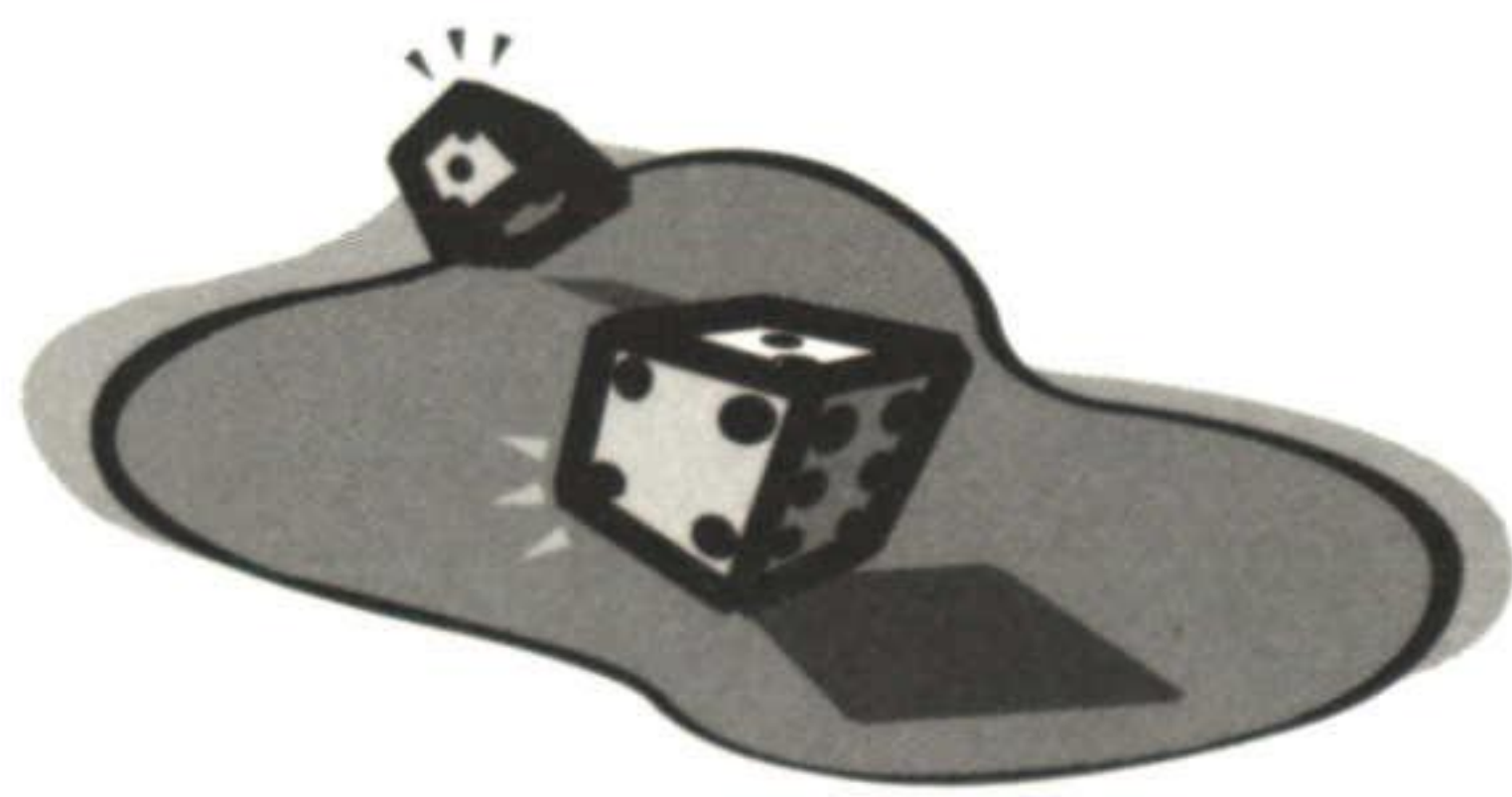
투덜투덜 나오는
나의 투정

담배 한 갑 사와라
아빠의 말씀

투덜투덜 나오는
나의 투정

심부름이 끝난 뒤
언제나 듣는 칭찬

찌푸렸던 내 마음은
풍선처럼 두둥실



장려상

엄마의 마음

홍주초등학교
제4학년
권 미 정

나와 동생이
싸울때면
엄마께서는
매일 나만 혼내요

왜 나만
혼내는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럴거예요

엄마의 마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 말이에요

어느 날
엄마의 얼굴을
보니
몹시 편찮으신 것
같았어요

다리가
몹시 절이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리를 주물러
드렸어요

그때,
엄마의 마음은
몹시 편안했을 거예요

장려상

심부름

홍남초등학교
제3학년
권 열 음

음식물 찌꺼기
구역질 나요
발걸음을 무겁게
버리러 가요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오는 길
콧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와요

“수고했다.”

한마디에
내 마음은
두둥실
하늘을 날아요.



장려상

비 오는 날

결성중학교
제1학년
김 수 선

“똑똑똑”
소리에 잠을 깨어
일어나 보니

언제나 다를까
순수하게 지켜보던
빗방울들이
창문틈에 끼어
날 지켜보고 있다

여기도

저기도
온세상에도...

그래서
난 이 빗방울들의
소리에 취해
창문에 기대어
있노라면

어느새
선량한 마음으로
무지개를 피어
따스하게
내 체온을 감싸준다

장려상

장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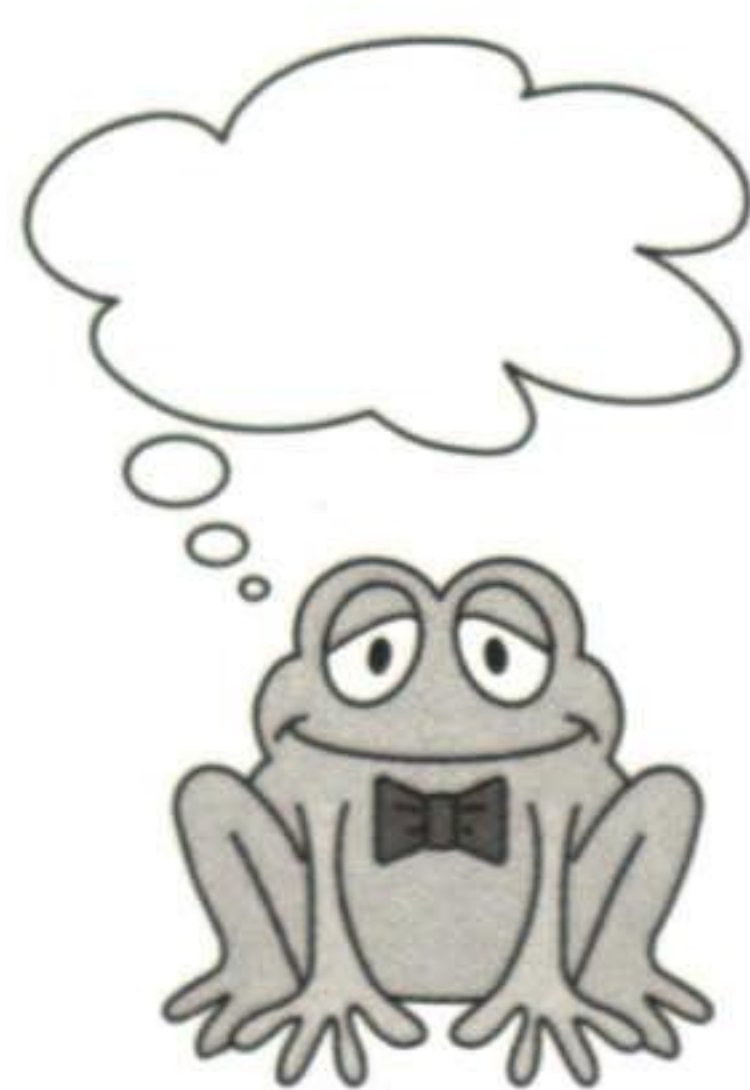
결성중학교
제3학년
송 유 정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꽤 오랜된거 같은데 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무엇이 이를 그토록 슬프게 했나요...
무엇이 이를 그토록 아프게 했나요...
그는 참고 참았던 분노를 오늘도 터뜨립니다
오래전부터 마를 틈 없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의 얼굴엔 눈물에 씻긴 까만 물이 흐릅니다
그의 눈물과 까만물은 턱으로 흘러 발끝으로 떨어집니다
그의 눈물에 땅들은 풀들은 그리고 나는 아파합니다
떠내려 가는 집들도
넘쳐나는 강물도

무너지는 우리의 한숨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끝없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리의 마구 놀리는 칼질에 무서웠겠죠
 쓰러지는 나무와 꺾여지는 산들을 내려보며 무서웠겠죠
 마구 올라가는 연기에
 마구 버려지는 쓰레기에
 마구 흘러가는 폐수에
 많이 아팠겠죠
 눈, 코, 입 모두 아팠겠죠
 사람들의 이기심에 치를 떨었겠죠
 자기만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를 보며 가슴 졸였겠죠
 우리의 이기심으로 파괴 되어가는 세상을 보며 불안했겠죠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멈추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로 인해 우는 당신에게 죄송한걸요
 가끔 나에게 괴성을 지르고 불을 번쩍여 놀래켜도 달게 받겠
 습니다
 이렇게 울고나면 시원하겠고
 이렇게 울고나면 후련하겠죠
 이렇게 터뜨리고나면 당신은 밝아지겠죠
 그러나,
 오늘도 그칠줄 모르는 당신의 눈물에
 한숨짓는,
 울고있는,
 모든걸 잃어가는...
 당신이 안고 가는 우리를 생각해 주세요
 당신의 눈물에 많은걸 깨우치겠죠

당신의 눈물에 많은걸 알아가겠죠.
당신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 다시 웃겠죠.
한참이 흐른후에.....

당신은 오늘도 울고 있군요.
이젠 눈물을 거두세요.
그 눈물에 많이 깨우친 우리를 보며.....



장려상

비

예산여자중학교
제3학년
윤 병 미

산 너머 뿌옇게 잿빛 꿈이 떠오르면
하늘 깊이 숨겨진 옥 껍질이 열리어
수 많은 반짝임되어 쏟아져 버린다

홀로 남은 이의 외로운 눈빛같고
투정대는 우리 아기 울음같고

푸른 솔잎 가장자리에서 작은 꿈이 묻어나고
작은 풀잎사귀 사이로 옥구슬이 굴러가고

하늘 가득 잿빛 용이 꿈틀대다
썩빛 고운 비단
하늘에 널어 놓으면

어느새 흰 나비 두 눈 가득
고운 빛 머금고
저 멀리 날아가리라

하늘의 보배
천하에서 생명의 빛을 보리라



장려상

비 오는 날

대흥고등학교
제2학년
홍 선 미

검은 구름이 차가운 하늘을 포근하고도 넓은 가리개로 가리려고 애쓰지만 미처 가리지 못한 곳에서 부터 당신은 시작 됐어요

마음 속까지 뜨거워 보이는 땅을 시원하게 식혀주려는 당신

설새 없이 내리는 액체를 모두 받아 먹어서인지 배불러 보이는 땅
먹지 못하고 입에 담고 있던 영롱하고 맑은 빛의 빗물을 이젠 뱉어 버리고 있는 땅

투명하고 깨끗한 창문을 툭툭 치다가도 지쳐버려 나중엔 몸에 중심을 잃어 버려 자신을 흘려버리는 당신

땅속까지

넘치는 신비로움에도 숨쉬기 힘든 작은 생명들은 두려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끝없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는 걸 보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려는 당신

그런 당신은 계속 멈추지 않고 미치도록 쏟아져 절제할 수 없는 당신

아마 사랑하는 님을 잃어버린 이유로
쉬지않고 하루 종일 내리는 당신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에게 맞서 싸우느라 힘을 모조리 다 썼는지
점점
세력이 약해져
이젠
가벼운 공기에 떠다니는 당신

외로움을 잊으려고 그렇게도 무서운 얼굴을 하며 번쩍이는 빛을 내는
친구를 좋아하는 당신

전 그런 당신을 내 부끄러운 손으로
감싸 내 기억에 추억하고 싶어요

장려상

비와 높은 분들

홍성고등학교
제2학년
김 지 석

예측할 수 없는 소나기같은
우리의 높은분들 그 속을 누가 알라

비에 젖지도 않은 가구들
바꾸기에 바쁜 우리 높은분들
국민들은 많은 비속에서 고생하고
높은분들은 많은 돈속에서 즐거워한다
비가오면 개는 날이 있듯이
우리 정치도 깨끗해졌으면

장려상

비 오는 날

홍성여자고등학교
제2학년
최 선 미

시각 장애인의
유일한 언어는
비라는 친구

고요한 망막속에서
리듬 맞추어 떨어지는
비와의 대화끝에

친구를 찾고
희망을 찾고
사랑을 느낀다.

※시각장애인의 대화는 비와의 대화라는 것을 바탕으로 쓴 글인데 그만큼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한 대화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일요일은 외출의 날

모처럼 일요일이 아니다
두렵게만 하는 고통의 날

무서운 눈초리
거리의 방해꾼 사이로

고통의 하루는 막을 열고
힘겹게 느리게 돌아가는
휠체어 바퀴

계단을 보면 까매지는 머릿속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진실의 도움자여

주위의 눈초리 때문에
두렵고 부끄러웠던 날

왜?

좋아하는지…….

※ 이 시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일요일의 외출이 어떠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몸이 온전한 사람들은 일요일을 고대하게 하지만 장애인은 어떨지… 눈초리가 무섭게 느껴지는 건 자신이 그렇게 인식해서 그렇게 된거라 생각한다. 주위사람이 그냥 스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는데에 관한 소외감이랄까? 끝부분 여운이 남는데 좋아하게 해달라는 바람이 깃들여져 있어요.

비 오는 날의 변화

성숙

두글자를 위해

타버린 논바닥

농민의 소망위해

어려움 고통 아픔

버리기 위해

바람과 구름

동체가 되어 하나의 후려침을

하나의 변신을 요구하고 도와주는

모순의 구름덩어리

싹을 트고 꽃 피고

하나의 완결체가 된다

애타게 하고

아픔의 대상이 된다

씻겨 버린 깨끗한 마음

성인이 된다.

※ 이 시는 1연은 식물, 2연은 농민의 바램, 3연은 인간의 마음을, 4·5연은 비의 형성과 의무를, 6연은 식물의 변화, 7연은 홍수로 되어 농민에게 방해가 되고 8연은 인간의 변화를 쓴글로 비라는 존재가 좋은 쪽이거나 나쁜쪽이거나 변하게 하는 것으로 비의 중요한 쪽으로 변하기만을 소망합니다.



장려상

심부름

갈산초등학교
제4학년
김 선 애

어느 일요일 엄마가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그래서 나는
“어떤 심부름 인데요?”

엄마께서

“응, 맛소금이 없거든! 맛소금 좀 사오라고.”

그래서 나는 가게로 갔다.

“아줌마, 맛소금 1개 주세요.”

“그래, 큰거 작은거?”

“작은거요.”

“그래, 자 여기있다.”

“고맙습니다.”

나는 맛소금을 들고 집으로 왔다.

“엄마 다녀왔어요.” 여기 맛소금이요.”

“그래 고맙다. 아참! 심부름 한가지만 더해줄래?”

“뭘 데요?”

“옆 집에 빌린 냄비 좀 갖다 주고 와.”

“네.”

나는 엄마 말대로 냄비를 들고 옆집으로 갔다.

“아줌마, 여기 빌린 냄비요.”

“그래. 고맙다. 잘 가거라.”

“네.”

냄비를 갖다주고 집으로 왔다.

그런데 엄마가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나만 계속 심부름을 시켰다. 나는 너무 짜증나 엄마보고 벌컥 화를 냈다.

“엄마.”

“왜.”

“왜 나만 심부름 시켜. 나도 학생이야. 언니한테는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그리고 왜 나한테만 시키는 거야.”

나는 나도 모르게 화를 내었던 것이다. 나는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가 잠시후 내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사람이 살다보면 그럴수도 있지.”

“네. 다음에는 말 잘 들을게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는 방으로 갔다. 아침이 밝았다.

나는 엄마한테

“엄마, 시키실거 없어요?”

“그럼. 아침 상 차리게 숟가락 좀 놔주고, 반찬 좀 상에다 놔줄래?”

“네. 할게요.”

나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상에 놓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상위에 올려 놓았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진지잡수시라고 했다. 밥을 다 먹고 나는 엄마에게

“엄마, 제가 설겅이 할게요. 방에서 누워 계세요.”

“그래, 고맙구나. 나는 그럼 방에서 쉬마.”

엄마가 방에 들어간후 나는 설겅이를 시작했다. 설겅이가 끝나자 나는 스스로 방청소를 했다. 그래서 엄마한테

“우리 선애. 혼자서도 잘하는데.”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 가족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

다음에도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해야겠다.



장려상

엄마의 마음

신당초등학교
제6학년
윤 재 옥

모처럼 휴일이 있었다.

바로 일요일. 서산에서 피아노 대회가 있어 학원에서 푹푹 찌는 곳에서 하루종일 연습했다. 그래서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이 황금같은 기회를 난 늦잠도 자고 스트레스 해소에 썼다. 엄마에게 반찬투정도 하고 괜한 짜증도 부렸다. 하지만 엄마는

“대회 때문에 우리 재옥이가 고생만 하는 구나.”

하시며 오히려 격려하시고 걱정해 주셨다. 난 반성할 기미도 없고 오히려 그 말을 꺼려 하듯 골말 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이해가 안됐다.

엄마의 마음도 모른채 바보같이 난 엄마에게 걱정만 드리는 딸이 된 것이다. 그런 딸이 된 채 몇 칠이 지나고 대회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난 걱정이 앞섰다.

‘틀리면 어찌지? 손가락이 미끄러지면 어찌지?’

심장도 막 펌프질 해 대었다. 긴장되어 기분도 영 아니었다.

그 날 저녁.

엄마는 삼계탕을 해주셨다. 원래 삼계탕을 잘 먹는 편이지만 그날 따라 내 입맛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래서 먹지 않는다고 또 짜증을 부렸다. 하지만 엄마는

“내일 대회에서 잘 하라고 엄마가 해준거니까 잘 먹어라.”
하셨다. 할 수 없이 먹었다.

저녁을 먹고 금새 잠들었다.

“또각, 또각”

도마소리, 그 소리에 난 깨어났다. 새벽 5시. 엄마께서 내 점심을 싸고 계셨던 것이다. 난 눈물이 흘렀다. 엄만 내가 짜증내고 화내도 사랑으로 감싸주셨다. 그 사랑도 모르는 나.

그 사랑에 보답할 길은 나만의 효도인 것 같다.



장려상

엄마의 마음

대정초등학교

제6학년

오 지 아

우리집은 작은 시골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산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항상 쉴 틈도 없이 온종일 들에서 바쁘게 일을 하신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와보면 집에는 항상 아무도 없어서 혼자서 집을 볼 때가 많았다. 그렇게 집을 보다보면 금새 밖은 어두컴컴 해졌다. 부모님께서는 거의 9시가 넘어서야 흠과 땀으로 땀이 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 오신다. 나는 그런 부모님을 볼때면 안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였다.

“엄마! 엄마는 내 걱정도 안돼?

나는 배가 고파서 엄마 오기만을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데……”

내가 한참 엄마에게 짜증을 내며 징징 거리자 엄마는 아무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셨다. 우리 가족은 10시가 다 되어 그제서야 저녁식사를 하였다. 이런 생활 때문에 엄마와 나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다.

어느덧 가을이 되어, 그동안 부모님께서 피땀 흘려 가꾸신 곡식들이 누렇게 익어갔다. 추수 때가 되자 아빠, 엄마의 일손은 갈수록 바빠졌다.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우리 학교에는 가을 운동회가 열렸다. 푸른 하늘에는 만국기들이 펄럭이고, 운동회에 들뜬 아이들은 한번씩 운동장을 돌며 달리기 경주도 하였다. 나는 육상 선수라서 요번 달리기에서 꼭 1등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이어 운동회 규칙을 발표한 다음, 운동회가 시작이 되었다. 제일 먼저 6학년 달리기 있었다.

“모두 제자리에, 차렷…….”

“탕!”

총소리에 맞추어 여기 저기에서 우리같은 응원에 달리기 경주가 시작이 되었다. 나는 내 예상대로 1등을 하였다. 나는 그 밖에도 청백계주와 부락대항에도 나갔다. 부락대항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차이를 벌여놓았지만 아쉽게도 우리 부락은 2등을 하였다.

‘아얏... 이상하다. 방금 발목이 조금 아팠던 것 같았는데…….’

부락대항을 마치고 나니 웬지 발목이 아팠던 것 같았지만 점심시간이란 방송에 엄마께 달려갔다.

“음~ 맛있다. 역시 우리엄마 김밥은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이야!”

엄마와 맛있게 김밥을 먹는 사이에 점심시간은 훌쩍 지나버렸다. 곧이어, 운동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청백계주가 시작이 되었다.

“지아야, 지금 우리 백군이 뒤지고 있어. 이번에 이기면 우리의 승리가야!”

친구들의 격려에 나는 금방 힘이 솟았다. 선생님의 방송에 나는 1주자로 뛰게 되었다. 총소리에 맞추어 힘껏 달렸다. 2주자에게 배턴을 주자마자 나는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아얏! 발목이... 발목이 아파 죽겠어.....”

내가 쓰러지자마자 친구들과 선생님, 엄마께서 달려오셨다. 울고 있는 나에게 친구 아버지께서 나를 업고 병원으로 데려다 주셨다. 엑스레이를 찍고 난 의사 선생님께서 엄마를 부르셨다.

“발목 인대가 늘어 난것 같은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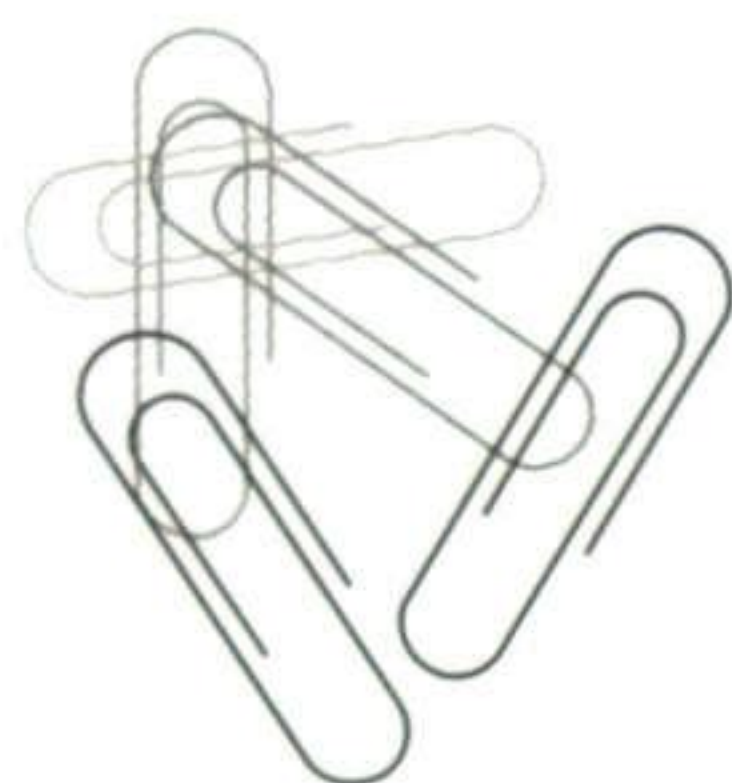
엄마는 우는 나를 업고, 할머니댁으로 가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엄마, 나 괜찮아 울지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는 내가 걱정이 되시는지 자꾸만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 엄마를 보니,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농사를 지으시면서도 우리들에게 짜증 한번 부리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생각을 하니 자꾸만 목이 메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엄마의 거칠어진 손과 발을 매일 밤 주물러 드리기로 엄마와 새끼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였다.



장려상

눈부신 휴일

예산여자중학교

제3학년

김 혜 연

6월의 하늘은 푸르렀다. 싱그러운 어린 잎들이 제법 그늘을 이루고 산과 들은 초록빛 카페트를 깔아 놓은 듯,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것 같았다. 차창 밖으로 연신 달라지는 광경에 우리는 조금은 들뜬 기분이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오늘은 현충일을 며칠 앞둔 일요일. 선생님을 따라 우리 문예반 일곱명은 국립묘지를 참배하러 가는 길이다.

선생님께서서는 6·25 당시 학도병으로 종군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해마다 이 날이면 국립묘지를 찾으시는 것을 안 것은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서 ‘국방일보’에 발표하신 선생님의 시를 통해서였다.

6·25때 학도병으로 함께 종군했던 두 전우는 고향이 이북인 중학교 동창생이었다 한다. 수업시간에 6·25나 통일 이야기가 나오면 선생님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

그리고 해마다 이때 쫓이면 동작동 국립묘지를 찾으신 것이다. 지난주 문예반 작품 합평회가 끝나고 선생님께서 나가신 여가시간에 숙이의 제청으로 올해는 선생님을 모시고 국립묘지를 참배하기로 하였다.

다음날 아침, 선생님 댁 앞에 모인 우리들을 보시고 선생님께서는 놀라시는 것 같았다. 모두가 검소하고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이내 깨달으시고는

“고맙다. 가자.”

하시며 선구자처럼 성큼성큼 앞서 걸으셨다. 서울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국립묘지가 있는 동작동 까지 와서 하차하여 선생님께서 하얀 국화 세 송이를 사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작은 국화 한 송이씩을 샀다. 이윽고 선생님이 찾으시는 무연고 영현묘역에 봉안된 두 전우의 묘비 앞에 섰다. 선생님께서는 준비해 오신 안주를 차려 놓으시고 술을 따랐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으시고 눈을 감으셨다.

우리는 선생님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 눈물은 앞서간 두 전우를 생각하는 눈물이자 죽음을 무릎쓰고 지켜내신 조국을 사랑하는 눈물이었다. 우리들도 갑자기 슬픈 마음이 일어 눈물을 흘렸다. 술잔을 들어 묘비 둘레에 뿌리시고 잡초를 뽑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말씀을 이으셨다.

“이곳에 봉안된 영현들은 대략 16만 3천 위이고, 그 중 12만 위는 결혼을 하지 않고 전사한 후손이 없는 영현들로 나의 두 전우도 그 중의 한 영현들이다. 그들은 나를 몸으로 막아 살리고 대신 죽었다.” 하시며 또 눈물을 흘리셨다. 화낼 줄 모르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라 이토록 큰 한을 품으시고 지내시는 줄을 몰랐던 우리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나의 가장 큰 한은 두 전우를 먼저 보낸 것이다. 그들이 못다 이루고

나에게 남겨준 통일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구슬픈 진혼곡이 울려 퍼졌다. 가슴에 축축히 스며드는
장엄한 선율로 하여 하늘도 조각구름도 아니, 풀 한 포기조차 엄숙한 분
위기에 젖어드는 것만 같았다.

문득 1학년 수학여행때 통일전망대에 갔던 일이 생각났다. 동해의 푸
른 물은 남과 북의 구분없이 마냥 파도치고 있었는데 저만큼 보이는 금
강산과 그 끝자락인 해금강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니 새삼 분단
의 아픔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나 세계는 변하고 있다.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도 서서히 통일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북한체
제가 동요하고 있고 붕괴의 기운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좋은
싫든 변하고 있고, 세계가 그것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선생님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변할 것이고, 오늘같은 일요일은 태양처럼 눈부신
하루로 기억될 것이다.



장려상

비 오는 날에.....

홍성여자중학교
제1학년
김 정 민

비 오는 날 저녁 난 부모님과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다.

“태풍 올가의 북상으로.....”

뉴스에서는 태풍에 대한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어휴, 또 시작이구만.”

“그러게 말이에요 날씨가 사람 죽이네요.”

“아빠, 홍성은 괜찮아요?”

태풍 뉴스 속보가 나오는 중 창밖에 내리는 비를 보고 불안감이 생겼다. 아빠께서는 홍성은 별 피해가 없을 것 같다고 하셨다. 그래서 안심을 할수가 있었다.

저번 해에도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동두천 주변 주민들에게 이번에도 또 큰 피해가 있다고 했다.

‘매년 저러면서 저기에 살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곳을 생활터전으로 몇십년동안 살아온 사람들로서는 내 생각과는 달리 못 떠날 것 같았다. 그래서 아무 생각없이 그런 말을 해서 조금 미안감이 들기도 했다.

그렇게 태풍이 어느 정도 지나간 후부터는 성금 걷기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조금 내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작년에 모였던 그 많은 성금들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을 벌려는 염치 없는 사람들 손에 들어가 제대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TV를 켤 때마다 화면 위쪽에 올라가는 성금을 보고 나만 내지 않는 것 같아 전화를 걸어 성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다. 1,000원씩 내는 것이라 부담도 안되고 액수를 떠나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이번에는 꼭 필요한 수재민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

TV에서는 수재민돕기 프로그램이 장시간에 걸쳐 특별방송으로 방송되고 있었다. 여러 연예인들은 동료들과 나와 성금을 내고, “힘내세요, 화이팅.”하고 응원도 했다. 그리고 이런 돈과 응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조금이나마 힘과 용기가 되고자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뒤 순서로 여러 정치인들도 나와 성금 전달을 했다. 국민들의 세금만 받고 정치도 못한다는 좋지 않은 평을 듣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와 돕는 것을 보니 그때만큼은 내 생각에 들어 있던 정치인들에 대한 내 의식이 조금은 바뀔 수 있었다. 그리고 꼭 내가 도움을 받는 것 같아 모두에게 너무 고마웠다.

매일 뉴스에는 태풍에 대한 소식이 계속 나왔고, “성금을 보내 주신 분” 이렇게 해서 이름과 액수가 나왔다. 그런데 익명으로 백만원씩이나 낸 사람이 있었다. 액수도 많았지만 익명으로 냈다는 것이 너무 훌륭했다.

“이왕 내는것 자랑 좀 하지.”

“정민아, 넌 그런 말 할 것 없다.”

“.....”

“그래도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수해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때
성금 모으기도 하고 그러지.”

이런 엄마의 말씀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그 사람을
보고 우리사회가 아직까지는 상막하지 않은 것은 않은 것 같았다.

어쨌든 비가 멈추고 수해복구로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가는 생활터전과
수재민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때 기꺼이 이웃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회가 되길 바란다.



장려상

깨달음을 주었던 어느 일요일

홍성중 학교
제1학년
전 영 민

지난해 이맘때 쯤, 어느 일요일이었던 것 같다. 그때는 광복절이 되기 얼마전이어서 텔레비전을 보면 대부분 광복절 특집 프로그램들이 방영되고 있었다. 나는 마땅히 할일이 없었던지라 한가지를 보기로 했다. 내가 선택한 프로그램은 일제치하에 성적인 고난을 받던 ‘정신대 할머니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것이었다.

일제시대에 살아보지 못해서 그런지, 나는 그동안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받았던 고통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정신대’라는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신대 할머니들의 슬픈 사연을 듣고 보니 ‘정신대’라는 말의 뜻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심한 압박을 새삼 느낄수 있었다. 알고 보니, ‘정신대 할머니’분들은 예전에 일본 군사들의 성욕을 채워주기 위해 끌려간 분들

이었다. 나는 수많은 여자들의 인생을 망쳐버린 일본사람들이 증오스럽기도 하고, 저질스럽게도 느껴졌다. 나는 어머니께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을 받았다. 설명을 들을때마다 나는 화가 끓었다. 그리고 요즘도 그 할머니들께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말에 눈물이 찔끔했다. 더욱 슬프게 한것은 임신한 여자들도 데려갔다는 점이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 이제 남은 일은 일본에서 할머니들께 정식적인 사과와 피해보상을 해주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나는 그날의 일요일이 지금까지의 일요일 중에 가장 값진 일요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나를 일제시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준 일요일. 그러나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나는 일본인에 대한 증오심에만 너무 깊이 생각했던 것 같다. 지금에 와서 나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광복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주신 열사, 의사, 지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느낀다. 그래서 일제치하의 우리민족의 긍지를 다시한번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지금의 내가 바라는 것은 ‘정신대 할머니’분들께 대한 일본의 사과·보상과 나와 같은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하는 것이다.

장려상

비 오는 날

광천중학교
제3학년
이 상 권

그동안 비가 많이 왔다. 올해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비로 인한 피해도 많았다. 비 때문에 집이 침수된 사람들, 그 해의 농사가 모두 흉작이 된 사람들 등.....

경기도 파주시방과 그 근접지역은 연이은 홍수로 그 피해가 어마어마했다. 그러나 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전, 부모님께서는 우리 지역에도 비가 많이 와서 외할머니댁 농사에 피해가 없는지 전화를 하셨다. 그러나 기대했던 대답과는 달리 외삼촌께선 흉작이라는 대답과 함께 전화를 끊으셨다.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가족은 차를 타고 외할머니댁을 향했다. 외할머니댁에 도착했을 때 나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풍년을 바라보고 있던 배추는 그 형태를 못 알아 볼 정도로 널려 있었고, 무는 외삼

촌계서 다 뽑아 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무사한 것은 하우스에 심은 수박인데 가격이 너무 싸서 얼마는 팔고 나머지는 동네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다는 것이다.

외삼촌의 씩씩한 표정과 발들을 보고 나는 하늘을 쳐다 보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맑은 하늘을 보니 자연재해는 막기 힘들다는 현실에 화가 나고 그동안 농부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저녁이 다 되서야 우리가족은 집에 돌아왔다. 텔레비전을 켜보니 파주 지역에서 수해작업을 하는 것이 나왔다. 나는 다들 그 지역 사람들인가 하였는데 그게 아니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각 지방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러 온 것이었다. 그 중에는 부모님을 따라온 초등학생들도 있었다. 어린 아이들이 침수되었던 갖가지 생활 용품을 닦는 장면을 보고 나 역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내가 실행한 방법은 ARS를 통한 수재민 돕기였다. 한 통화에 천원이라는 이 방법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물론 직접 찾아 가서 도와드리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조금이나마 그들을 도왔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이미 한 방송국에서는 한 통화에 천원이라는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성금이 모아져 가고 있었다. 꼭 IMF 직후, 금모으기 운동과 흡사했다.

국민들의 이런 적극적인 참여를 보며 이런 힘이 있는한 어떤 재해도 꺾이지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자부심이 생겼다.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이번 수해를 겪으며 단합된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흐렸던 하늘이 다시 햇빛을 비추듯이 우울해져 있는 수재민들의 마음도 하루빨리 밝아졌으면 좋겠다.

‘비오는 날’은 나에게 한국인의 힘을 확인해 준 날로 내 마음 속 깊이 간직될 것이다. 아울러 지금도 수해 작업으로 땀을 흘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글을 바치고 싶다.



장려상

어느 일요일

대흥고등학교
제2학년
조 선 희

주제가 ‘어느 일요일’ 이렇게 주어지니까 너무나도 난감하다. 왜냐면 일요일에 특별한 일이나 재미있던 일, 인상 깊었던 일 이렇게 주워지니 쓸 꺼리가 그리 마땅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나에게는 일요일이 꼭 무엇을 말해서 특별하고 인상 깊은 것은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닥쳐오는 일요일이 나에게는 항상 특별하고 중요하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에서인지 나의 일요일은 예전과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남들도 똑같이 겪는 변화이지만 나에게 게을렀던 내 모든 일상생활이 가족도 놀라고 내 자신 역시 놀랄만큼 일요일이 바빠진 것이다. 얼마전 일요일 전날까지만해도 TV볼 것을 실컷 쳐다보고 시간이 아깝다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고3이 되는 것도 4~5개월 정도 밖에 남지가 않았다. 처음에 2학년에 올라왔을 때는 3학년이 될려면 아직도 1년이 남았다고 아무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여름방학이 끝나고 시원한 가을이 지나면 곧 닥쳐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일요일은 곧 쉬는 날” 이렇게 고정관념처럼 내 머릿속 한 자리를 잡고 지울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일요일은 그야말로 황금같은 일요일이다.” 이렇게 머리속에 입력을 하고 되도록이면 지우려 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다.

아직 우리는 2학년이라 굳이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없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반 한명이 일요일이 소중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해 준 친구가 있다. 또 하나의 충격이기도 하다. 그 아이는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 하루에 중요과목은 시간을 정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평일은 물론이거니와 공부에 매달린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 아이는 너무 대단하다.

지난번 어느 일요일 우리는 몇일전부터 친구들과 함께 바다나 계곡에 놀러 가려고 공부는 뒤로 한 채 공부라는 공간을 벗어 나려 준비를 해왔다. 그래서 친구들 시간이 맞지가 않아 일요일로 정해 찻차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다. 그런데 마침 그 친구가 버스를 타는 것이다. 어디 가냐고 계속 물어 봤는데 대답을 해 주지 않았다. 그 일요일의 기온은 제일 뜨거울 때 기온이 34℃가 넘는 온도에 학교에서 선풍기도 돌리지 않은 채 무더운 교실에서 단 혼자서 바지를 걷어 가면서 공부를 한다고 같은 학교 고3 선배가 우리에게 충고를 하면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다. 대충 소식은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 정도 인지는…….

한편 그 친구를 생각하니 지금 내가 이렇게 방심하고 편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다.

일요일에 나태히 지내고 텔레비전에 묻혀 지냈던 것이 너무나 한심했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후회가 된다. 평일에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일요일에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만 했다면 내가 그 아이에게 그런 충고와 교훈을 얻을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문득 든다.

이제 나에게는 어디에 놀러가서 생긴 중요한 일보다 별로 가치없게 생각하는 일요일이 더 신경이 쓰이고 중요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이 글로 옮겨 가는 동안에 말과 글만 그럴 듯하게 쓰고 또 머리속에는 이글을 쓰자마자 놀러 갈 궁리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과연 뭐라고 할까? 아마 일요일의 중요성을 알기는 커녕 어느 일요일의 생긴일을 기억이나 하냐고 물어 볼 것이다.

하지만 난 그 일요일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에서 지울 수 없을 것 같다. 아직 정신을 차리지는 못했지만 그로 인해 조금씩 달라져 가는 내 모습을 거울속에 비춰보면 조금씩 보이기 때문이다.

난 그날을 잊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장려상

비 오는 날

광천고등학교

제3학년

정 향 경

“전국적으로 저기압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라는 말이 무섭게 뭉실뭉실 크고 두툼고 솜사탕과 같은 달콤함을 느끼게 했던 한낮이 어느새 토끼 모양의 구름이 거북이 모양의 구름과 이별하고 슬픈 사랑이야기가 담긴 편지를 태워 바람에 날리게 한 것처럼 하늘은 온통 잿가루를 뿌린 듯 잿빛으로 뒤덮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주룩주룩 비는 많이 내렸다. 거리에 사람들은 제각기 각자의 목적지에 가기 바빴고 아무도 서로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비 오는 날이다.

요번 년도에는 비 소식이 뜸할거라는 기상예보가 빗나가고 지난해 우려했던 침수피해를 동반한 홍수가 났다. 예기치 못한 일로 사람들은 우왕좌왕, 여기저기서는 수재민 돕기 모금이 한창……. 비 오는 날은 모두가 다 왜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내 생각에는 환경오염이 슬픈 일

들을 자아낸 것 같다. 어느 날인가 부터 환경 오염으로 인해 옛날에는 빗물을 받아서 몸을 씻고 밥 짓고 했던 깨끗한 물이 산성이 섞인 빗물이 되어 예전과 같이 밥 짓고 몸을 씻는 일은 아주 먼 옛날 일이 되었고 맞으면 머리가 빠져 대머리가 된다는 얘기로 인해 사람들은 비를 맞지 않기 위해 그 당분간을 위해 우산을 사고, 머리에 책을 얹어 젖지 않도록 하며 뛰어다녔다. 예전의 비 오는 날 비 맞으며 걷던 낭만은 사라져 버린지 오래다.

내 주위 사람들 중에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전에 나도 그 축에 속해 있었지만 요즘은 햇빛 비치는 화창한 날보다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 어둑어둑한 날이 더 좋아졌다. 비 오는 날은 무덥지 않아 좋고, 피곤을 느끼지 않아 좋고, 옛 추억들이 생각나 좋고, 잊혀졌던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어 좋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이 좋다.

신 김치를 큼직큼직하게 자르고 김치를 자른 빨간 국물을 밀가루와 약간의 물과 함께 개어 부치는 김치 부침개, 밀가루로 반죽하고 면을 만들어 따뜻한 물에 같이 끓여 김치와 곁들여 먹는 칼국수, 밀가루로 반죽해 뜨거운 물에 잘게 뜯어 먹는 수제비……. 위의 음식들은 우리의 입에 군침을 돌게하는 비 오는 날 생각나게 하는 별미 음식들이다. 어렸을 적부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비 오는 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생각나게 해서 비 오는 날이 되면 이런 음식을 찾기에 바쁘다. 나 역시도 비가 오는 날이 되면 따끈따끈한 호떡이나 수제비, 부침개 등을 집에서 해 먹는다.

며칠 전 비 오는 날 중학교때의 선생님을 길에서 우연히 뵈 적이 있었다. 그 선생님과 많은 음식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선생님! 왜 비 오는 날에는 밀가루 음식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웃으며 물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나도 며칠 전에 알게 되었는데, 자세히는 모르지

만 비 오는 날에는 몸에 단백질이 빠져 뼈마디도 쭈시고 밀가루 음식을 찾게 되는 거지.”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런 것도 과학적이라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공기 중에 수증기 방울로 증발해서 구름이 형성되었다. 그러다 너무 많이 증발되면 구름은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결국 구름은 비를 만들어 내리게 했다. 이런 얘기는 너무 일반적이다. “햇빛이 비치는 화창한 날에 비가 오는 것은 호랑이 장가가는 날 이래요. 칠월 칠석에 비가 오는 것은 견우와 직녀가 서로 만나지 못하다가 까마귀의 도움으로 다리에서 만나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것이래요.”라는 올해 다섯 살짜리인 사촌 동생의 말에 신뢰가 더 간다.

요즘은 인위적으로 만든 날이 참 많다. 초코렛을 주고 받는 발렌타인 데이, 화이트 데이, 초코렛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먹는 짜장면 데이, 장미 데이, 오렌지 데이등……. 그런데 요즘 또 나타난 것이 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인 칠월칠석날을 상품화시켜 연인들끼리 장미꽃을 주고 받는 날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밖에 비 오는 수요일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주는 것등……. 비 오는 날도 특별한 날이 되었다.

어느날 밤엔 별이 아주 아주 밝고 높이 떴다. 그 다음 날은 무지 많은 비가 내렸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에 나는 엄마와 함께 동네 가까이에 있는 시장에 갔다. 빗물에 씻기는 발은 시원함을 더욱더 느끼게 해주었다. 우산을 접었다.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었다. 엄마와 나는 그 자리에서부터 집까지 도망치듯 뛰었다.

장려상

비 오는 날

대흥고등학교
제2학년
백 순 영

창 밖에 비가 내리고 있다.

지금 라디오에선 DJ가 비 내리는 날 생각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DJ의 말 속에 어느 한 사람이 들어 있다.

아! 기학이…….

그 날도 오늘처럼 비가 왔다. 하늘의 어린 천사가 심통을 부리 듯. 아니, 어느 일요일에 보았던 영화에서 처럼.

“기학아! 어떻게 비가 와! 난 왜 이리 재수가 없을까? 내가 우산을 가져온 날은 먹구름이 끼다가도 금세 화창해 지고, 안 가져온 날은 구름 한 점 없이 맑다가도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오잖아.”

“순영아! 이 비는 소나기 일 꺼야. 조금만 있으면 그칠 꺼야…….”

기학이는 이렇게 날 위로했지만, 기학이도 걱정스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비는 그렇게 설새없이 지치지 않고 내렸다. 우리 둘은 학교 현관 앞에서 발을 동동 굴리며, 원망스레 하늘을 바라보았지만 비는 우리의 바람엔 아랑 곳 하지 않고 씩없이 내렸다.

우린 할 수 없이 비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몇 초도 안되 우린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 서로 마주보며 한바탕 웃었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비속을 걸었다. 난 웃음과 기학이와 함께라는 것이 너무도 즐거웠다. 왜 예전엔 비를 맞는다는 것이 이토록 즐겁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어릴 적, 나에겐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수줍음이 많았던 탓인지 아이들과 어울리는 법을 몰라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며 뛰놀 때, 난 한 쪽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다. 아이들은 내 존재를 모르는 듯 했고, 내게 어느 누구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

난 속으로 차라리 혼자 책을 읽는 것이 더 나을 꺼야!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 귀찮고, 힘들어 질 꺼야! 난 혼자가 더 좋아!란 자기 합리화의 주문을 외웠다. 이런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 예전엔 그렇게 비를 맞으며 같이 걸어줄 친구가 나에겐 없었다. 그래서 난 비가 오는 날이면 혼자 비를 맞으며 가는 것이 싫었는지 몰랐다. 하지만 이제 아니야! 나에게도 기학이란 얼굴이 동그랗고, 눈도 동그랗고, 마음도 동그란 친구가 있다. 그 아이는 내게 손을 내밀어 준 최초의 아이, 아니 유일한 아이였다.

기학이와 난 둘도 없는 짝궁이 되었고 많은 추억을 만들었다.

처음으로 내게 선물한 보라색 국화! 비록 들국화 몇 송이였지만 내가 처음으로 받아 본 꽃.

체육대회때 운동을 못하는 나 때문에 꼴찌로 끝까지 뛰어 준 아이, 그 아이가 내 손을 꼭 잡고 끝까지 뛰어준 너무나도 아니 눈물겹도록 고마

제5회 만해제
백일장·사생실기대회 입상작품집

1999년 9월	일 인쇄
1999년 9월	일 발행

발행처 : 홍성문화원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 632-3613

발행인 : 이 하 영

제 작 : 조양인쇄사 ☎ (0451) 632-2363/634-7856

